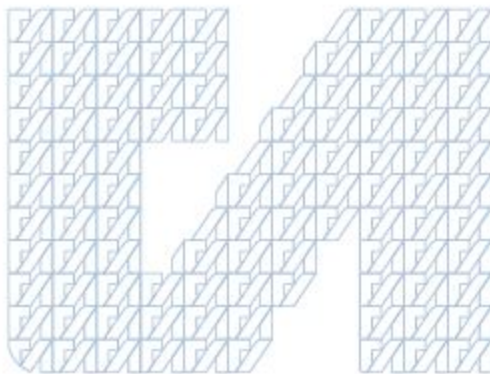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Daejeon

류 유 선



기본연구 2018-07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Daejeon

류 유 선

연구책임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 정양화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기본연구 2018-07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발행인 박재목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5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이라는 다문화가족의 전형성은 한국인과 한국인(국적취득자), 한국인(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외국인(국적미취득자)와 외국인 등의 결합으로 분화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한부모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하거나, 법적 체류지위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고, 이 현상은 대전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음
- 타 지역과 비교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의 규모나 비율은 작음.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타 지역에 비해 적고, 대전만의 특화된 다문화 정책이 없음
-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대전에서 증가하는 실질적인 지역민인 다문화가족이 일터와 학교, 상점과 거리라는 공간에서, 가족구성원 및 지역민이라는 사회적관계를 발전시키며 지역에 착근하여 살 이들에게 법적 배제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다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목적 및 내용

- 양적으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생산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1)대전지역 외국인주민 현황 2)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과 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을 분석하고 4)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심층면접하고 5) 대전지역 다문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 및 기타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사는데 필요한 지원 발굴

■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 2016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5,160명으로 결혼이주남성(739명)보다 약 7배 많음
- 대전지역 5개구의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24.5%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구 20.3%, 대덕구 19.5% 유성구 17.9% 중구 17.8% 순임
- 2016년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30대가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20대 31.3%, 40대 18.2%, 50대 9.2%, 60대 2.1%, 19세 이하 1.7%, 70세 이상 0.3% 순으로 30대 이하 결혼이주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함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32.2%이며, 다음으로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임
- 지난 10년간 대전지역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이 2007년 16.7%에서 2016년 32.2%로 크게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기초자치구별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는 중국이 24.8%로 가장 비율이 높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베트남이 가장 비율이 높음(동구 36.4%, 중구 33.4%, 서구 31.2%, 대덕구 36.4%)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 2016년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이하)는 4,594명임(국내출생 자녀는 4,431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63명)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24명이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6년 4,594명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2011년 이후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1,1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906명, 대덕구 885명, 유성구 865명, 중구 805명 순임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61.0%(2,801명)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령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음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이 2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1.4%), 필리핀(13.6%) 순임

- 특징적인 것은 5개 기초자치구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임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 2016년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은 6,116가구로 구성원은 총 20,405명임(한국인 배우자 6,988명, 결혼이주민 5,729명, 자녀 4,557명 등임)
- 대전의 다문화가족수는 17개시도 가운데 14번째이고, 다문화가구원수도 14번째임
-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대전의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수가 큰 폭(62.4%)으로 증가했음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다문화 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임.

□ 남편과 시부모의지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

-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지역에 대한 정착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빨랐음

□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의 다문화 이해 교육

-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정책에서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한국에 오는 다른 문화의 배우자에게만 한국문화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말고, 파트너인 한국인도 배우자의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출신국 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 한국에 이주한 후,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친정부모나 자매의 도움을 받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이 안정적이었음. **친정부모와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빨리 안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확대

-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정된 다문화교육에서 나아가 비다문화 학생들도 이중언어를 생활하는 교육환경 마련

□ **경제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 경제참여활동 촉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특화형 직업훈련 마련 시급
-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출신국의 학력과 경력 인정 필요

□ **일과 자녀양육의 균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증대**

- 경제활동의 참여가 실제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

□ **예비학교의 증대**

- 최근에 중도입국 혹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경제적, 혹은 교육적 이유로 출신국에 보냈다가 다시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중도입국을 하거나 엄마 나라에서 머물다 오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예비학교의 증대 필요

□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다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지역적, 실질적 네트워크인 다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방향을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필요

차 례

1장 서론	1
1절.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내용	6
3. 기존 연구	7
2절. 다문화와 가족	8
2장 대전지역 외국인주민 현황	13
1절. 외국인주민현황	15
1. 대전시, 구별, 동별 외국인주민현황	15
1) 대전시	15
2) 구별	19
3) 동별	23
2. 대전지역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5
1) 대전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5
2)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6
3) 대전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28
4) 대전지역 유학생 현황	31
3. 대전지역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34
1) 대전시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34
2)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35
4. 대전지역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37
1) 대전시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37
2)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38
5. 대전지역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40
1) 대전시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40
2) 대전시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현황	41
3) 대전시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현황	43

3장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	45
1절. 결혼이주여성	47
1. 대전시, 구별, 동별 결혼이주여성	47
1) 대전시	47
2) 구별	50
3) 동별	52
2. 대전지역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4
1) 대전시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4
2)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5
3.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6
1) 대전시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6
2) 기초자치구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8
4.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현황	60
1)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60
2)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이혼현황	61
3)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	62
4)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63
2절. 다문화가족 자녀	64
1. 대전시, 구별, 동별 다문화가족 자녀	64
1) 대전시	64
2) 구별	67
3) 동별	69
2. 대전지역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71
1) 대전시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71
2) 기초자치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73
3.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4
1)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4
2)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6
3절. 다문화가족	78
1. 대전시, 구별, 동별 다문화가족	78
1) 대전시	78

2) 구별	82
3) 등별	84
4절.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통계 특성	86
1. 결혼이주여성	86
2. 다문화가족자녀	87
3. 다문화가족	88
4장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89
1절.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91
1. 심층면접 개요	91
2. 심층면접 결과	93
1) 이주 결정	93
2) 가족관계	94
3) 정착과정	100
4) 국적과 체류 안정	102
5) 미래계획	104
6) 자녀 교육과 양육	106
7) 지역의 다문화정책	109
2절. 전문가 의견	116
1.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116
2.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한국인 남성의 특성	117
3. 2015년 이후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변화	118
4.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	119
5장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121
1. 결혼이주여성	123
2. 다문화가족 자녀	124
3. 다문화가족	125
4. 지역 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것	126
참고문헌	130

표 차례

[표 2-1]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	15
[표 2-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 주민 추이	17
[표 2-3] 지난 10년간 대전 성별 외국인주민 추이	18
[표 2-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주민 추이	20
[표 2-5]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남성 외국인주민 추이	21
[표 2-6]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여성 외국인주민 추이	22
[표 2-7]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	23
[표 2-8] 2016년 대전 외국인주민 유형별 성별 현황	25
[표 2-9]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7
[표 2-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근로자 현황	28
[표 2-11]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9
[표 2-12]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학생 현황	31
[표 2-13] 2016년 대전 동별 유학생 현황	32
[표 2-14] 2016년 대전 연령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34
[표 2-15]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36
[표 2-16] 2016년 대전 체류기간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37
[표 2-1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39
[표 2-18]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40
[표 2-19]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현황	42
[표 2-20]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현황	43
[표 3-1] 2016년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47
[표 3-2] 지난 10년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추이	49
[표 3-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현황	50
[표 3-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수 추이	51
[표 3-5] 2016년 대전 동별 결혼이주민 현황	52
[표 3-6] 2016년 대전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4
[표 3-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5
[표 3-8]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6

[표 3-9] 지난 10년간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추이	57
[표 3-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9
[표 3-11]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60
[표 3-1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61
[표 3-13]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 추이	62
[표 3-14]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64
[표 3-15]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66
[표 3-16]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 가족 자녀 수	67
[표 3-1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68
[표 3-18]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 자녀수 현황	69
[표 3-19]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71
[표 3-20]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72
[표 3-2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73
[표 3-22]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4
[표 3-23]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5
[표 3-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7
[표 3-25]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현황	78
[표 3-26]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원 분포	80
[표 3-27] 2009 ~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 수 추이	81
[표 3-2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	82
[표 3-29] 2009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수 추이	83
[표 3-30]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 가구원 수	84
[표 4-1] 심층면접자 개요	92

그림 차례

[그림 2-1]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	16
[그림 2-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 주민 추이	17
[그림 2-3] 지난 10년간 대전 성별 외국인 주민 추이 및 증감률	18
[그림 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주민 현황	19
[그림 2-5]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주민 추이	20
[그림 2-6]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남성 외국인 주민 추이	21
[그림 2-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여성 외국인 주민 추이	22
[그림 2-8]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	24
[그림 2-9] 2016년 대전 외국인주민 유형별 성별 현황	26
[그림 2-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7
[그림 2-1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근로자 현황	28
[그림 2-12]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	30
[그림 2-1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학생 현황	31
[그림 2-14] 2016년 대전 동별 유학생 현황	33
[그림 2-15] 2016년 대전 연령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35
[그림 2-16]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36
[그림 2-17] 2016년 대전 체류기간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38
[그림 2-1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39
[그림 2-19]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41
[그림 2-20]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42
[그림 2-21]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43
[그림 3-1] 2016년 전국 결혼이주여성 현황	48
[그림 3-2] 지난 10년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추이	49
[그림 3-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현황	50
[그림 3-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수 추이	51
[그림 3-5] 2016년 대전 동별 결혼이주민 현황	53
[그림 3-6] 2016년 대전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4
[그림 3-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55

[그림 3-8] 2016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별 현황	56
[그림 3-9] 지난 10년간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추이	58
[그림 3-10]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61
[그림 3-11]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62
[그림 3-1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 추이	63
[그림 3-13] 2016년 대전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63
[그림 3-14]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65
[그림 3-15]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66
[그림 3-16] 2016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67
[그림 3-1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 가족 자녀수 추이	68
[그림 3-18]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자녀수 현황	70
[그림 3-19]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71
[그림 3-20]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72
[그림 3-2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분포	73
[그림 3-22]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4
[그림 3-23] 2016년 대전 다문화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6
[그림 3-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77
[그림 3-25] 2016년 전국 다문화가구 현황	79
[그림 3-26]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원 유형별 분포	80
[그림 3-27] 2009 ~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 수 추이	81
[그림 3-2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	82
[그림 3-29] 2009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수 추이	83
[그림 3-30]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가구원 현황	85



서론

1절. 연구 개요

2절. 다문화와 가족

1장

1장 서론

1절. 연구 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018년 11월 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7년 11월 1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외국인 주민은 28,404명으로 대전인구 1,525,849명의 1.9%이고, 이 가운데 다문화가구 가구원은 20,348명으로, 한국인 배우자 6,992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5,958명, 자녀 5,229명, 기타 동거인 2,169명 순이다¹⁾. 다문화가족 통계가 나온 이래,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이라는 다문화가족의 전형성은 한국인과 한국인(국적취득자), 한국인(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외국인(국적미취득자)와 외국인 등의 결합으로 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한부모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하거나, 법적 체류지위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은 비단 다문화가족수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전에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류유선, 2016).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이나 가출, 유기와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가 유독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제기되는 데에는 두 가지 국가주의적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는 한국 전통적 가족 개념과 기능에 충실할 것에 대한 요구다. 최근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 이혼과 출혼, 1인 가구의 증가, 만혼과 비혼의 증가 현상은 가족관계의 해체라기 보다는 기존 가족 개념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지적으로,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요구다. 이 과정에서 일국가족 혹은 단일민족국가의 대척점에 서 있던 다문화가족이 오히려 일국가족의 개념과 전통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가족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과 출산, 양육과 돌봄이 주된 업무인 가족,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유지하는

1) 가장 최근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구원수에 대한 분석은 2018년 11월 1일에 나온 2017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간이 11월 30일인 관계로 통계분석은 2017년 11월 1일에 발표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를 이용했다.

기능을 유지하길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사적, 가족영역의 문제는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졌던 오랜 관행으로 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결혼이주여성의 것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이다. 결혼과 이주 후, 다문화 가족, 특히 결혼이주민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한국어의 습득과 한국문화 적응, 그리고 한국인의 출산과 양육이다. 동화주의적인 다문화 담론과 가족문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지역공동체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변화는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과 의무불이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문화가족의 존재와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자,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영주(2008: 234²⁾)가 지적하였듯이, 법이 “농촌 결혼이민자가 직면한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잦은 이혼과 위장결혼, 계약결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위한 법 개정이 제안되었고,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것이다. 법은 ‘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 ‘다국어서비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은 정착주기, 즉 정착기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착주기에 따라 돌봐야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나, 본국 가족과의 관계, 국적 취득 등에 다른 층위의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김현미외, 2016³).

2018년 현재, 총 11차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이 이뤄졌다⁴.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 특히 결혼이민자에 관한 문제를 개선”⁵하기 위해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개정은 피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요구,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법에서는 다문화가족 가내에 대한 내용이 큰 변화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유지가 큰 방향이다. 2018년 6월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2)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권, 209-236.

3) 김현미 외(2016), 정착주기별 다문화가족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연구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연혁에 따르면, 2번의 타법개정, 9번의 일부 개정이 있음

5) 김원섭(2008), 여성결혼이민자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36권, 112-135:125

가족생활을⁶⁾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타 지역과 비교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의 규모나 비율은 작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타 지역에 비해 적고, 대전만의 특화된 다문화 정책이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거리와 상점, 학교와 일터 등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문화를 다문화가족으로만 인식하던 시민들은 실제로는 다른 문화를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셈이다. 즉 물리적·정서적으로 출신국가와 초국적 연결망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과 접촉 하면서 대전의 지역민들도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지구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이주는 개인과 지역의 변화로 이어진다. 국경을 넘은 개인이 배우고 사용하는 말, 먹는 음식과 사는 물건, 새롭게 맺는 가족 및 친구관계는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들이 이주함으로써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 내는 지역의 담론과 문화도 변화한다. 개인들의 일상생활은 장소, 즉 지역을 근거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은 원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지역의 전통적 문화와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민의 삶, 다양한 지역민들이 형성한 공동체와 그 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 기반이 된다.

대전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다문화가족들은 법이나 제도, 지역민의 인식 속에 있는 수혜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머무르지않은 않는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한국문화와 대전 지역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한국가족과 출신국가의 원가족의 협력을 통해 가족의 재생산을 완수해가는 성공적인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 출신국가 부모와 형제자매의 감정적 지지와 물질, 인적 자원을 재구성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과 교육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스스로 생산적 단위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의 다문화가족들이 이들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다문화가족은 글로벌 연결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제 차이를 이용한 경제 전략을 세우고, 언어적 이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가족재생산의 목표를 수행해나가고 있다.

자녀의 출생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을 넘어 학교와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법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도 확장이 필요해졌다.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결합한 국제결혼만을 다문화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영역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한국인과 국적이 다른 외국인의 결합이자, 이들이 구성한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 이런 잔여적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이 담당

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개정이유

할 부분이 있다.

인구 감소를 지역소멸의 징후로 인지하는 각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존재하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인구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은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외국인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고민해왔다(이면우, 2015:1167).

이에 본 연구는 양적으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생산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대전지역 외국인주민 현황 2)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과 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을 분석하고 4)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심층면접하고 5) 대전지역 다문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 및 기타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 연구방법

- 통계분석 : 통계인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통계분석을 통해 대전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현황 분석
- 심층면접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인터뷰(결혼이주여성 8명, 한국인 배우자 2명)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명과 그 한국인 배우자 남성 2명
 - 캄보디아 1명, 베트남 2명, 몽골 1명, 필리핀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 전문가조사: 대전지역 다문화 전문가 자문회의 2회
 - 첫번째 전문가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전문가들(6명)과 만나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했고,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는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출신국, 문화 등)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7) 이면우(2015),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사회 연구 제8권 제1호, 103-144.

□ 연구내용

- 대전시 외국인 주민 현황 : 구별, 동별 외국인 주민 현황, 유형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출신 국가별 외국인 주민 현황
- 대전시 다문화가족 현황 : 구별·동별 다문화가족 현황, 연령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현황
-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 구별·동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연령별, 부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
- 대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

3. 기존 연구

최근 3년 이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민 수가 많은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남 다문화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충남 이주민통합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지역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통합,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주민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수용 조사], [경기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경기도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연구 등 경기도 지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타시도가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나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비해, 대전은 체류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나 체류이주민의 규모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족 및 체류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없고, 2016년 [대전 지역체류이주민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가 대전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처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는데 의의를 가지며,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통해 이들 다문화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정책 발굴의 기본 자료로 쓰여질 것이다.

2절. 다문화와 가족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가족은 이주노동자나 유학생과 다른 범주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한국인과 동일한 정체성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애매모호하여 교육시키고 동화시켜야할 대상이다.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이주노동자처럼 ‘불안정한 지위(precarious status)’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적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족은 민족만들기라는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 멤버십과 귀속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시작된 이후로,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족은 다문화라는 틀 내에서 멤버십을 가진 사회구성원이자, 정착하여 민족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에 정책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이 되려는 의지를 피력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국가주의적 다문화정책에 순응할 때, 시민권 획득의 자격을 갖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출산이 큰 의무로 주어졌었고 이후에 한국문화 적응과 자녀 양육이 보이지않는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한국인 배우자의 보증이라는 한국적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지원을 얻을 때 결혼이주자는 법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 내내 결혼이주자는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지위(precarious status), 완벽하지 않은 법적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용감하게 국경을 넘어 새로운 땅에서 처음 만난 문화에 적응하는 결혼이주자들이 그 안정적인 법적지위의 내용이 무엇이나? 혹은 정의로운가? 를 따지기에 앞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쉽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에, 세부적으로는 일터와 학교, 상점과 거리라는 공간에, 가족구성원 및 지역민이라는 사회적관계에 착근하여 살 이들에게 법적 배제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다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이다.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생산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시스템과 법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Goldring etc., 2007⁸⁾).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국가 만들기가 당연시되는 지구적

8) Goldring, Luin, Berinstein, Carolina, and Bernhard, Judith, 2007, Institutionalizing

상황에서 시민권의 획득과 이주민 체류 지위에 관한 정책과 법은 ‘불안정성’을 이용하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이들의 이주와 존재 자체를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적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불안정precariousness’라는 개념을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Goldring etc., 2007:6).

따라서 시민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얻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권은 인종에 따라, 젠더에 따라 다른 높이의 장벽을 갖게 되고, 사회적 시민권은 점점 줄어들며, 개인의 정체성은 시민권과 분리된다. 실제로 시민권과 이로 인해 접근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법과 제도, 정치적, 문화적 쟁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인종과 젠더관계, 섹슈얼리티, 종교, 국적, 등 담론의 장”에서 형성되고, 경제적 목표 또한 “특정한 시대와 장소 내의 사회적 신체를 형성하는 정치적·문화적 의미의 범위의 측면에서” 구성된다(리사두건, 2017 : 299).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정상적인 이주자만이 시민이 되고,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이주자는 불안정한 지위의 이주민이 된다는 문화적 재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이주민을 불법과 합법, 정상과 비정상 등 이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정체성과 생애기획, 문화전략을 가진 개인임을 부인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주어진 가족유지의 임무를 완수한 후에 개인의 기획을 시작하라는 가족, 지역, 사회의 압력이 시작된다. 가족의 임무를 완수하고 시작한 개인의 기획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문화가 달라서,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좌절한다.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이들의 참여 통로와 분야는 한정되어 있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이 결혼이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다.

지역사회의 이주민을 돌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책임은 축소되었고, 시장은 민주적 책임에서 벗어나 확장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시민사회는 누구를 시민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논란으로 분열되었고, 가족은 젠더화되었고 더욱 개인적이 것이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가족의 생존이 가족에게 전가된, 시민권은 없고, 일터에서 배제당하며, 국가의 복지를 받기 어려운 개인들, 부분적 시민권만 가진 결혼이주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야하는 여성, 병든 부모를 돌봐야하는 여성들은 최저임금노동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여기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특히 남편과 사별하거나 별거 등으로 혼자서 자녀를

precarious immigration status in canada, CERIS Working Paper No. 61
9) 리사 두건(2017), 한우리 홍보람 옮김, 평등의 몰락, 현실문화

양육해야하는 이들은 최저임금노동체계 속에 편입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의 양육과 돌봄처럼 사회적 책임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들은 사적영역, 가족에 넣어두기 위해 다문화가족 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제3의 길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경향은 인간의 출산과 양육, 교육, 문화의 전수 등 사회적 재생산 비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주장한다. “즉 인간의 부양 욕구와 더불어 가정과 시민사회에서 작동되는 개인적 책임감을 통해,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 기관에서 개인과 가정으로 이동시킨다”(리사 두건, 2017:60).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내세우고 있는 문화적 담론들은 계급의 이미지와 여성혐오적인 언어들을 개인의 능력과 자질,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대체하고 있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복지의존적 여성으로 이미지화한다.

사회유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형성과 유지는 ‘개인적’이는 이유로 개인의 책임이 되었고,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가족은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복지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저소득 계층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요구와 이들이 일하고 있는 불안정한 직장과 여기서 제공하는 부족한 임금과 복지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가족이 감당해야할 영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난한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이 빈곤과 관련한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중립적인 언어로 일할기회와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지를 위해서는 저임금노동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사실 일할 기회와 역량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들이 계급과 젠더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보지 않으려는 시도이다(리사 두건, 2017).

한국사회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발생한 다문화가족은 지역과 국가 ‘재생산’이라는 큰 구조의 문제 속에서 가족의 문제로 개인화되고 있다. 즉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자들은 자녀의 돌봄비용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임금노동에 참여해야하는 다중의 책임자가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는 존재로써 두 개 이상의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족, 경제, 종교, 정치, 학교 등 다양한 개인과 커뮤니티, 기관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들이다(Blanc etc, 1995¹⁰). 이들이 실천하는 초국적 활동(transnational activities)은 규칙적이며 상당한 시간의 투자를 기반으로 이뤄진다(Portes, 1999¹¹). 이런 평범한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10) Cristina Szanton Blanc, Linda Basch, and Nian Click Schiller, 1995, Southern Asian Institute, International Affair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Transnationalism, Nation-State, and Culture, Vol. 36.No.4:683-686

11) Portes, Alejandro(1999), Conclusion: Towards new world-the origins and effects

행위들이 국민국가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실체가 된다.

지역민이 건강하고 다양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정부와 지역사회의 기능이다. 한국사회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발생한 다문화가족은 지역과 국가 '재생산'이라는 큰 구조의 문제 속에서 가족의 문제로 개인화되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자들은 자녀의 돌봄비용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임금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다중의 책임자가 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역에 다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해 법적 배제와 차별을 줄여나갈 다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463-477.

DSI

대전지역 외국인주민 현황

1절. 외국인주민현황

2장

2장 대전지역 외국인주민 현황

1절. 외국인주민현황

1. 대전시, 구별, 동별 외국인주민현황

1) 대전시

- 2016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유학생·외국국적동포·귀화자·외국인 주민자녀(이하‘외국인주민’)는 26,656명으로 대전광역시 총인구(1,535,445명) 대비 1.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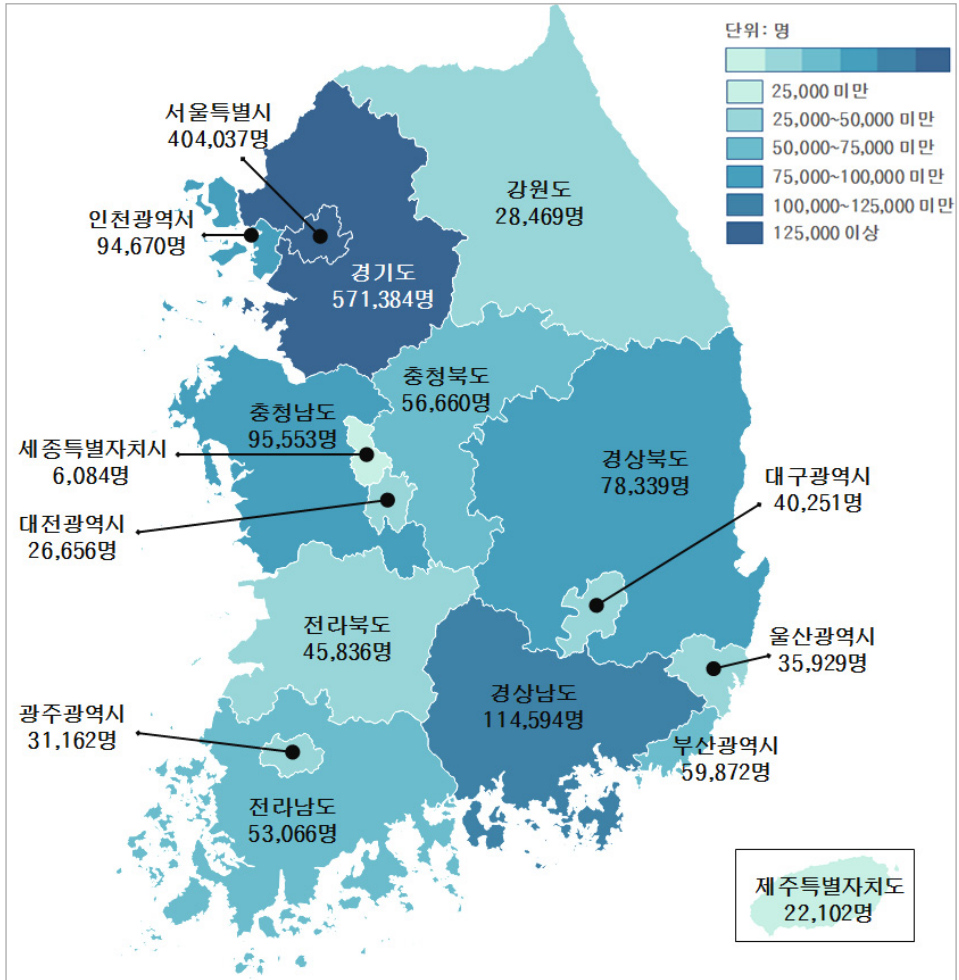
[표 2-1]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16.11.1)(A)	비율 (B/A)	합계(B)			성비 ¹⁾
			계	남	여	
전국	51,269,554	3.4	1,764,664	946,561	818,103	115.7
서울특별시	9,805,506	4.1	404,037	189,361	214,676	88.2
부산광역시	3,440,484	1.7	59,872	31,901	27,971	114.1
대구광역시	2,461,002	1.6	40,251	21,407	18,844	113.6
인천광역시	2,913,024	3.2	94,670	50,587	44,083	114.8
광주광역시	1,501,557	2.1	31,162	15,945	15,217	104.8
대전광역시	1,535,445	1.7	26,656	11,817	14,839	79.6
울산광역시	1,166,033	3.1	35,929	20,768	15,161	137.0
세종특별자치시	242,507	2.5	6,084	3,351	2,733	122.6
경기도	12,671,956	4.5	571,384	319,501	251,883	126.8
강원도	1,521,751	1.9	28,469	13,651	14,818	92.1
충청북도	1,603,404	3.5	56,660	32,446	24,214	134.0
충청남도	2,132,566	4.5	95,553	54,736	40,817	134.1
전라북도	1,833,168	2.5	45,836	22,557	23,279	96.9
전라남도	1,796,017	3.0	53,066	28,492	24,574	115.9
경상북도	2,682,169	2.9	78,339	45,097	33,242	135.7
경상남도	3,339,633	3.4	114,594	72,868	41,726	174.6
제주특별자치도	623,332	3.5	22,102	12,076	10,026	120.4

주: 1)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의 외국인 주민 인구를 17개 시도 외국인 주민 인구와 비교하면 15번째 인구를 차지하며, 성비는 전국 대비 가장 낮은 79.6%를 나타내고 있음([표 2-1]참조).
- 지난 10년간 대전지역의 외국인 주민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2,044명이던 대전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2016년 26,656명으로 약 2.2배 증가함([표 2-2]참조).

[표 2-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 주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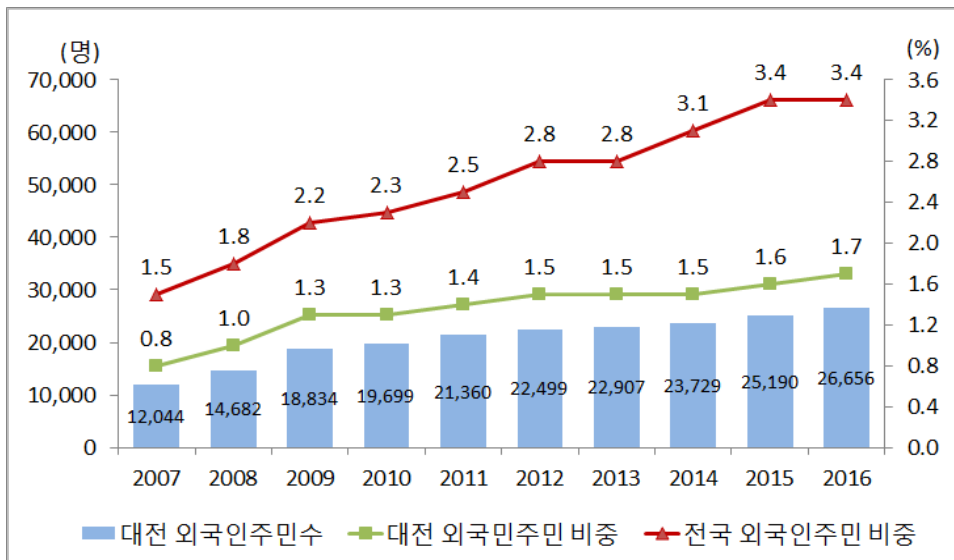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외국인 주민	722,686	891,341	1,106,884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41,919	1,764,664
	비율 ¹⁾	1.5	1.8	2.2	2.3	2.5	2.8	2.8	3.1	3.4	3.4
	증감률 ²⁾	-	23.3	24.2	2.9	11.0	11.4	2.6	8.6	11.0	1.3
대전	외국인 주민	12,044	14,682	18,834	19,699	21,360	22,499	22,907	23,729	25,190	26,656
	비율	0.8	1.0	1.3	1.3	1.4	1.5	1.5	1.5	1.6	1.7
	증감률	-	21.9	28.3	4.6	8.4	5.3	1.8	3.6	6.2	5.8

주: 1)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주: 2)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2-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 주민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외국인 주민은 2007년 5,628명에서 2016년 11,817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1배 증가하였고, 여성 외국인 주민은 2007년 6,416명에서 2016년 14,839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함([표 2-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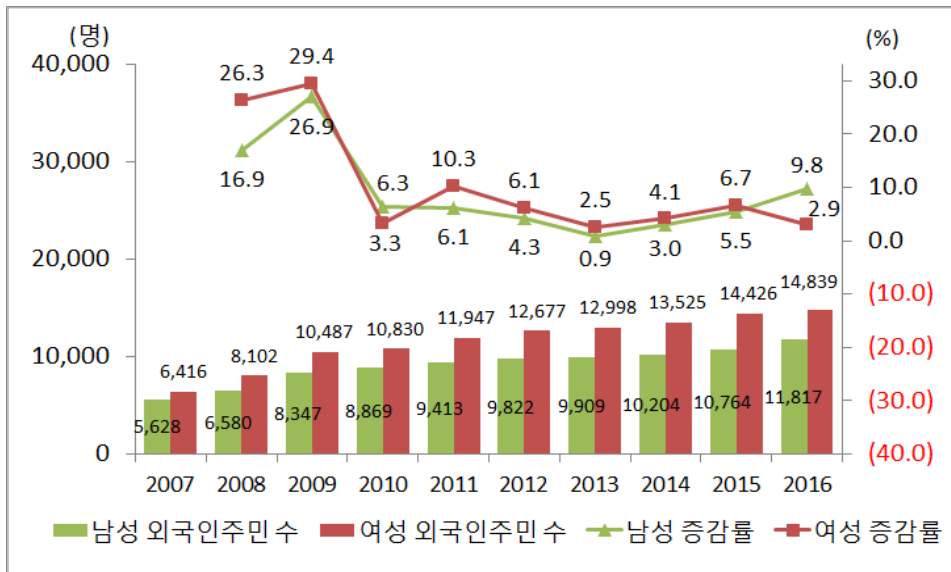
[표 2-3] 지난 10년간 대전 성별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성	5,628	6,580	8,347	8,869	9,413	9,822	9,909	10,204	10,764	11,817
증감률 ¹⁾	-	16.9	26.9	6.3	6.1	4.3	0.9	3.0	5.5	9.8
여성	6,416	8,102	10,487	10,830	11,947	12,677	12,998	13,525	14,426	14,839
증감률	-	26.3	29.4	3.3	10.3	6.1	2.5	4.1	6.7	2.9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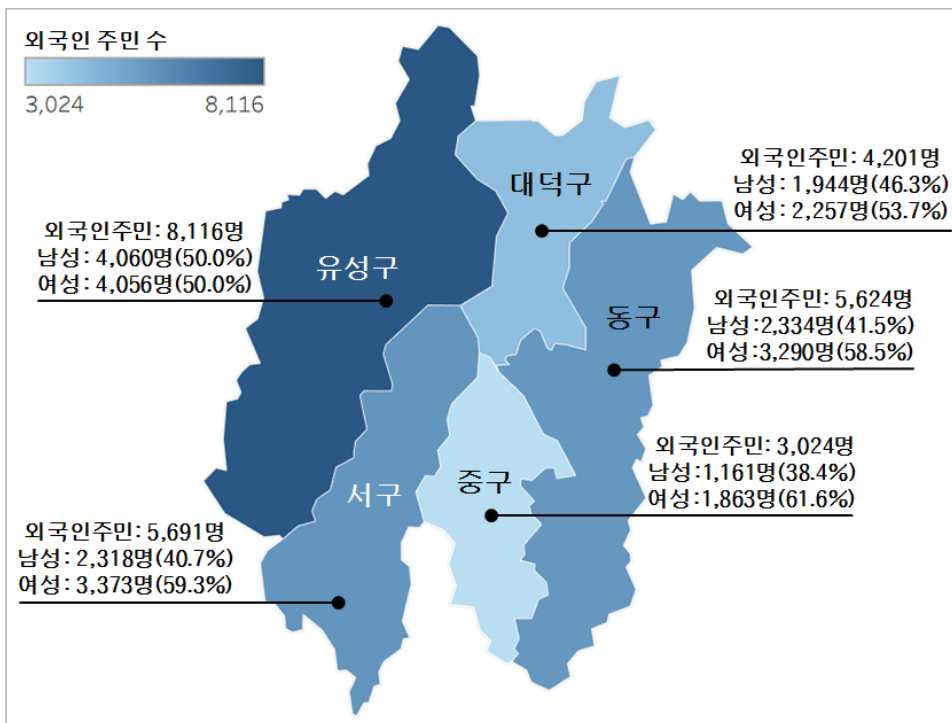


[그림 2-3] 지난 10년간 대전 성별 외국인 주민 추이 및 증감률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2) 구별

-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가 8,11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구 5,691명 동구 5,624명 대덕구 4,201명 중구 3,024명 순으로 나타남(그림 2-4참조).
- 유성구가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이유는 관내 국립대인 충남대와 카이스트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연구시설이 외국인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주민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 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주민 추이를 살펴보면 약 1,500 ~ 3,000명이었던 지난 2007년과 달리 2016년에는 약 3,000 ~ 8,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어 기초자치구별로 많은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표 2-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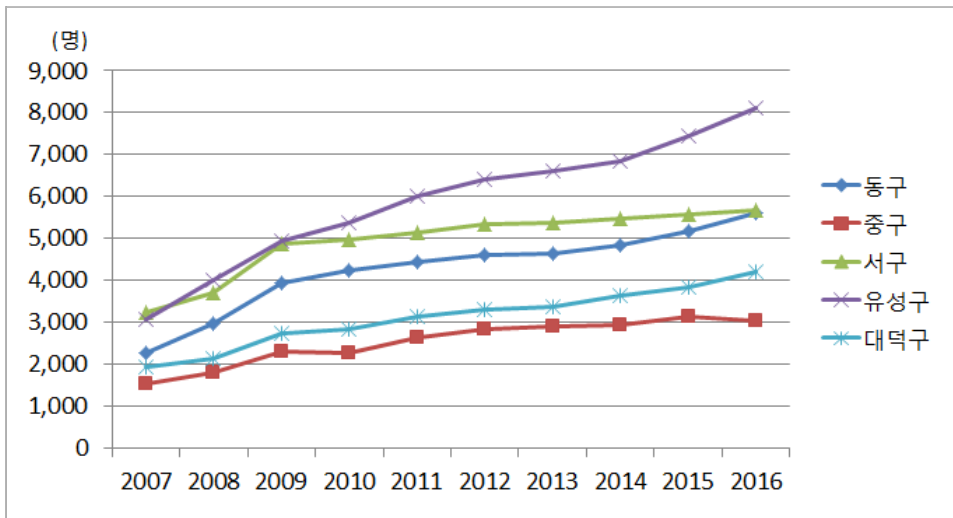
[표 2-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증감률 ¹⁾	12,044	14,682	18,834	19,699	21,360	22,499	22,907	23,729	25,190	26,656
동구 증감률	-	31.0	31.6	7.4	4.8	4.4	0.0	4.4	7.5	8.4
중구 증감률	-	19.0	27.5	-1.6	16.3	6.4	2.9	1.0	7.1	-3.8
서구 증감률	-	14.7	31.4	2.0	3.2	4.2	0.7	1.2	2.0	2.2
유성구 증감률	-	31.0	23.4	8.3	11.9	6.7	3.4	3.6	8.7	8.9
대덕구 증감률	-	11.2	28.0	3.6	10.2	5.0	2.1	8.4	5.2	9.4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2-5]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주민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치구별 남성 외국인 주민은 2007년 약 500 ~ 1,500명에서 2016년에는 약 1,000 ~ 4,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어 기초자치구별로 많은 남성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표 2-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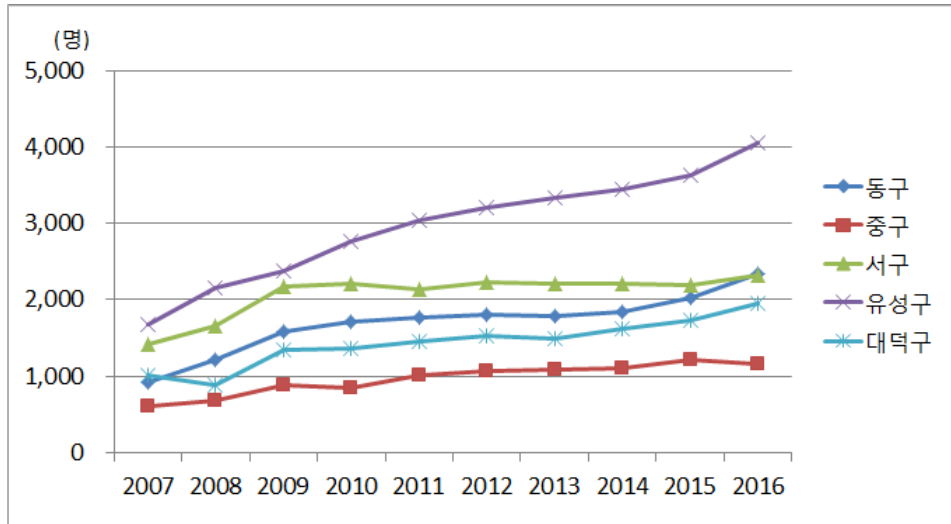
[표 2-5]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남성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증감률 ¹⁾	5,628	6,580	8,347	8,869	9,413	9,822	9,909	10,204	10,764	11,817
동구 증감률	917	1,213	1,577	1,702	1,764	1,810	1,791	1,845	2,018	2,334
중구 증감률	612	675	886	843	1,012	1,070	1,084	1,094	1,208	1,161
서구 증감률	1,421	1,656	2,165	2,201	2,141	2,221	2,212	2,205	2,198	2,318
유성구 증감률	1,673	2,147	2,375	2,755	3,041	3,203	3,327	3,439	3,620	4,060
대덕구 증감률	1,005	889	1,344	1,368	1,455	1,518	1,495	1,621	1,720	1,944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2-6]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남성 외국인 주민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대전 기초자치구별 여성 외국인 주민 추이를 살펴보면 약 1,000 ~ 2,000명이었던 지난 2007년과 달리 2016년에는 약 2,000 ~ 4,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어 남성 외국인 주민 수와 마찬가지로 여성 외국인 주민 수도 자치구별 큰 증가가 있었음 ([표 2-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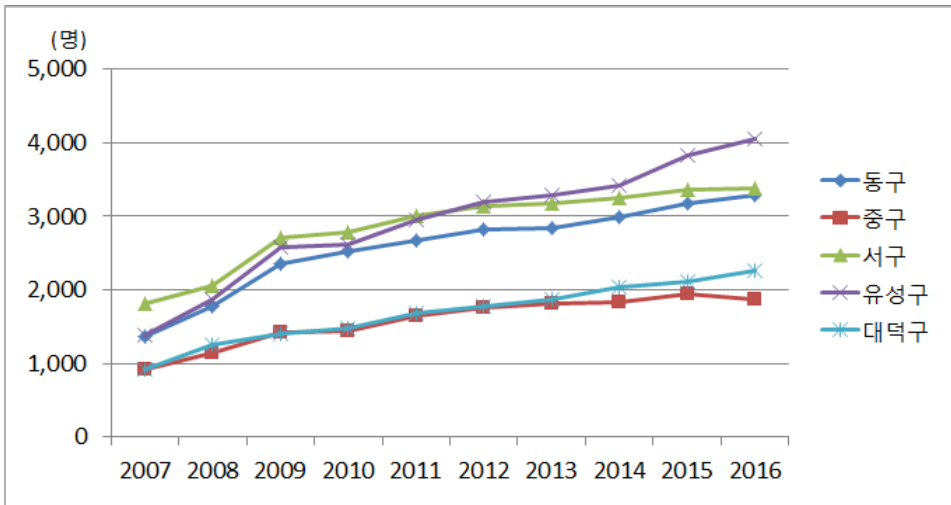
[표 2-6]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여성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증감률 ¹⁾	6,416	8,102	10,487	10,830	11,947	12,677	12,998	13,525	14,426	14,839
	-	26.3	29.4	3.3	10.3	6.1	2.5	4.1	6.7	2.9
동구 증감률	1,364	1,774	2,355	2,522	2,664	2,814	2,834	2,982	3,171	3,290
	-	30.1	32.8	7.1	5.6	5.6	0.7	5.2	6.3	3.8
중구 증감률	916	1,143	1,432	1,438	1,640	1,753	1,822	1,842	1,936	1,863
	-	24.8	25.3	0.4	14.0	6.9	3.9	1.1	5.1	-3.8
서구 증감률	1,820	2,060	2,718	2,781	2,999	3,134	3,180	3,254	3,368	3,373
	-	13.2	31.9	2.3	7.8	4.5	1.5	2.3	3.5	0.1
유성구 증감률	1,389	1,865	2,575	2,608	2,959	3,196	3,289	3,417	3,831	4,056
	-	34.3	38.1	1.3	13.5	8.0	2.9	3.9	12.1	5.9
대덕구 증감률	927	1,260	1,407	1,481	1,685	1,780	1,873	2,030	2,120	2,257
	-	35.9	11.7	5.3	13.8	5.6	5.2	8.4	4.4	6.5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2-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여성 외국인 주민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3) 동별

- 대전광역시 2016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음. 자치구 별로 가장 많은 외국인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자양동으로 2,101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419명, 서구는 도마2동으로 898명, 유성구는 온천2동으로 3,179명, 대덕구는 오정동으로 761명으로 나타남. 특히 유성구의 온천2동 외국인 주민 3,179명은 중구 관내 외국인 주민 3,024명보다 높은 수치로 외국인인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동임을 알 수 있음([표 2-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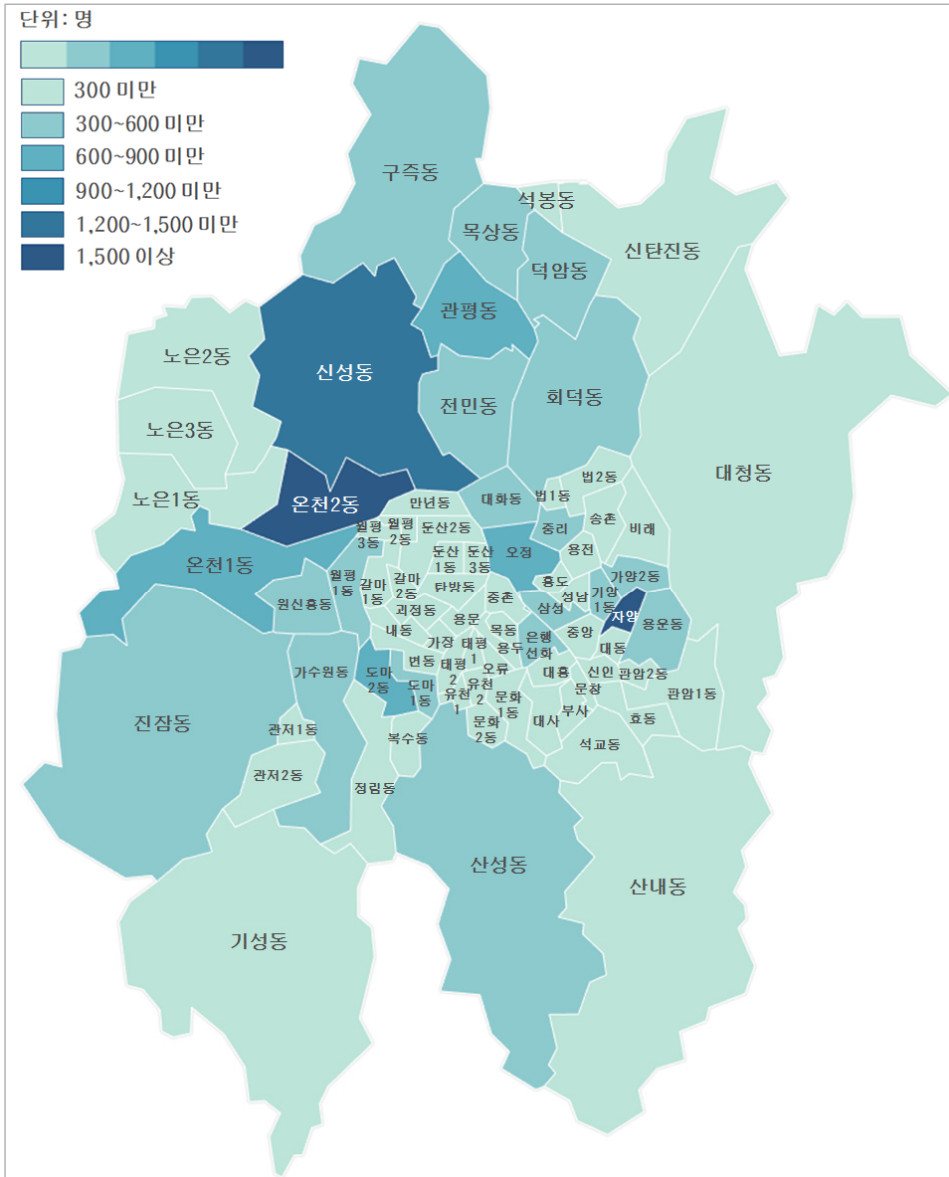
[표 2-7]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연번	동명	외국인 주민 수	연번	동명	외국인 주민 수	연번	동명	외국인 주민 수	연번	동명	외국인 주민 수
1	동구	5,624	22	대흥동	236	43	탄방동	262	64	전민동	358
2	효동	270	23	문창동	119	44	둔산1동	165	65	노은1동	257
3	판암1동	86	24	석교동	278	45	둔산2동	234	66	구즉동	500
4	판암2동	169	25	대사동	95	46	괴정동	213	67	관평동	622
5	용운동	531	26	부사동	99	47	가장동	112	68	온천1동	846
6	자양동	2,101	27	용두동	117	48	내동	169	69	원신흥동	353
7	가양1동	388	28	오류동	108	49	갈마1동	253	70	노은2동	182
8	가양2동	302	29	태평1동	122	50	갈마2동	240	71	노은3동	258
9	용전동	282	30	태평2동	144	51	월평1동	343	72	대덕구	4,201
10	홍도동	279	31	유천1동	118	52	월평2동	161	73	오정동	761
11	대청동	20	32	유천2동	170	53	월평3동	69	74	대화동	486
12	산내동	263	33	문화1동	172	54	만년동	266	75	회덕동	354
13	중앙동	139	34	문화2동	168	55	가수원동	422	76	비래동	173
14	신인동	149	35	산성동	419	56	기성동	53	77	충리동	440
15	대동	158	36	서구	5,691	57	관저1동	143	78	법1동	192
16	성남동	178	37	복수동	204	58	관저2동	225	79	법2동	133
17	삼성동	309	38	도마1동	543	59	둔산3동	97	80	신탄진동	233
18	중구	3,024	39	도마2동	898	60	유성구	8,116	81	석봉동	175
19	은행선화동	338	40	정림동	176	61	진잠동	336	82	덕암동	528
20	목동	99	41	변동	244	62	온천2동	3,179	83	목상동	514
21	충촌동	222	42	용문동	199	63	신성동	1,225	84	송촌동	212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지역의 동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GIS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음.
 그림을 살펴보면 유성구 방향으로 600명이상 거주하는 동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대전지역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1) 대전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로 유형이 나뉨. 대전지역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¹²⁾이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학생 20.5%, 외국인 주민자녀 16.6%, 외국인 근로자 11.6%, 외국국적동포 6.2% 순임(그림 2-9참조).
- 전국 유형별 외국인 주민현황과 비교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19.1%p 낮고, 유학생의 비중은 15.1%p 높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표 2-8참조).

[표 2-8] 2016년 대전 외국인주민 유형별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¹⁾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²⁾	외국인 주민자녀
대전	전체	26,656	3,079	5,899	5,467	1,644	6,136	4,431
		(100.0)	(11.6)	(22.1)	(20.5)	(6.2)	(23.0)	(16.6)
	남성	11,817	2,160	739	2,633	763	3,244	2,278
		(100.0)	(18.3)	(6.3)	(22.3)	(6.5)	(27.5)	(19.3)
	여성	14,839	919	5,160	2,834	881	2,892	2,153
		(100.0)	(6.2)	(34.8)	(19.1)	(5.9)	(19.5)	(14.5)
전국	전체	1,764,664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91,459
		(100.0)	(30.7)	(18.1)	(5.4)	(13.4)	(21.6)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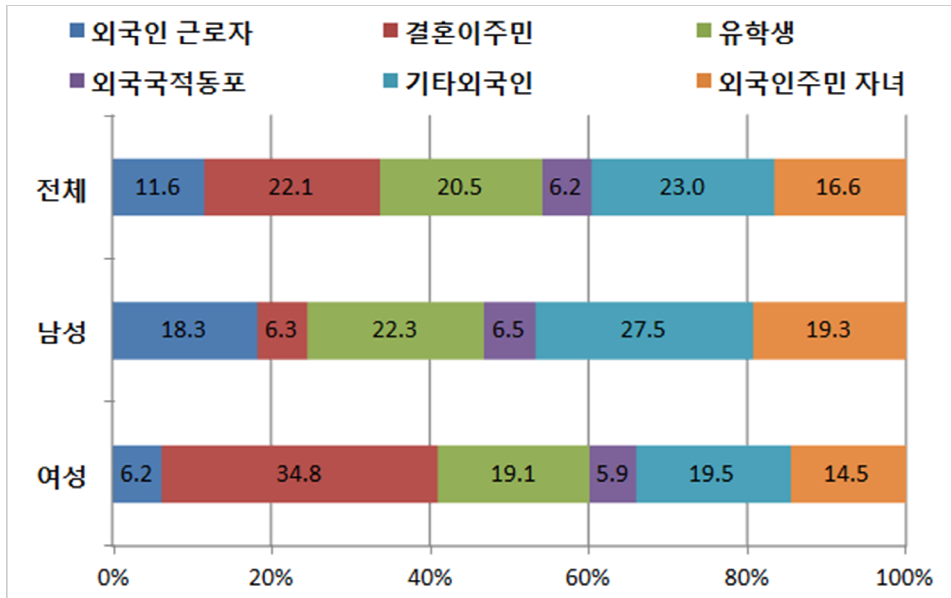
주: 1)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주민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합한 결과임. 국적취득자의 경우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하는데 사유는 기타 사유 국적취득의 경우도 대부분 결혼귀화자라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

주: 2) 기타외국인이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12) 기타외국인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기타외국인을 제외하고 유학생(22.3%)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결혼이주민(34.8%)의 비율이 가장 높아 대조를 보임(그림 2-9)참조).



[그림 2-9] 2016년 대전 외국인주민 유형별 성별 현황

2)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전체 유형별 외국인주민 분포 분석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유형별 외국인 주민 분포¹³⁾를 살펴보고, 어떠한 추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함(표 2-9)참조).
- 대전지역 구별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와 유성구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구, 서구, 대덕구는 결혼이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음(그림 2-10)참조).

13) 기타외국인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함.

[표 2-9]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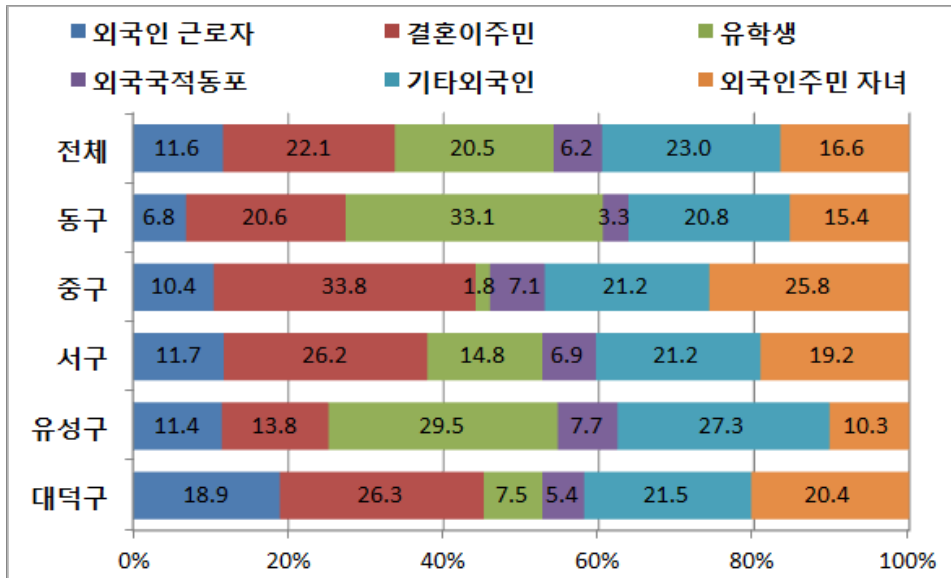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¹⁾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²⁾	외국인 주민자녀
전체	26,656 (100.0)	3,079 (11.6)	5,899 (22.1)	5,467 (20.5)	1,644 (6.2)	6,136 (23.0)	4,431 (16.6)
동구	5,624 (100.0)	380 (6.8)	1,161 (20.6)	1,862 (33.1)	185 (3.3)	1,169 (20.8)	867 (15.4)
중구	3,024 (100.0)	313 (10.4)	1,021 (33.8)	54 (1.8)	216 (7.1)	640 (21.2)	780 (25.8)
서구	5,691 (100.0)	666 (11.7)	1,492 (26.2)	843 (14.8)	390 (6.9)	1,207 (21.2)	1,093 (19.2)
유성구	8,116 (100.0)	926 (11.4)	1,121 (13.8)	2,392 (29.5)	625 (7.7)	2,217 (27.3)	835 (10.3)
대덕구	4,201 (100.0)	794 (18.9)	1,104 (26.3)	316 (7.5)	228 (5.4)	903 (21.5)	856 (20.4)

주: 1)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주민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합한 결과.

주: 2) 기타외국인이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3) 대전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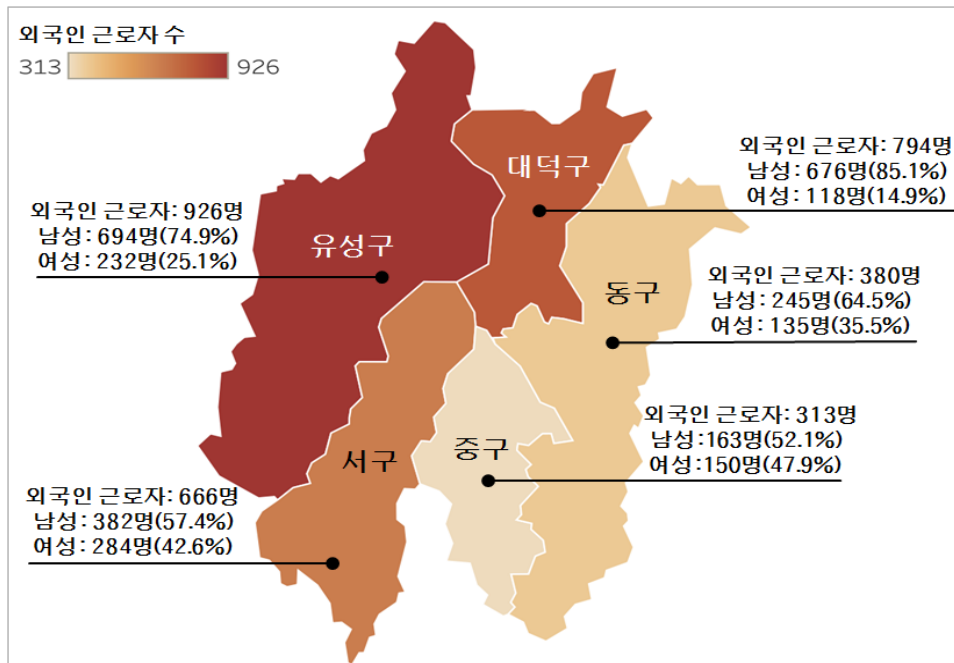
- 대전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주민 유형인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를 구별, 동별로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¹⁴⁾ 대전지역 기초자치구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926명, 30.1%)가 가장 많음.

[표 2-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3,079 (100.0)	380 (12.3)	313 (10.2)	666 (21.6)	926 (30.1)	794 (25.8)
남성	2,160 (100.0)	245 (11.3)	163 (7.5)	382 (17.7)	694 (32.1)	676 (31.3)
여성	919 (100.0)	135 (14.7)	150 (16.3)	284 (30.9)	232 (25.2)	118 (12.8)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외국인 근로자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14)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자녀는 다른 챕터에서 분석함

- 대전광역시 동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1]와 같음.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자양동으로 97명, 중구는 은행선화동으로 49명, 서구는 둔산1동으로 84명, 유성구는 온천2동으로 238명, 대덕구는 목상동으로 276명으로 나타남.

[표 2-11] 2016년 대전지역 동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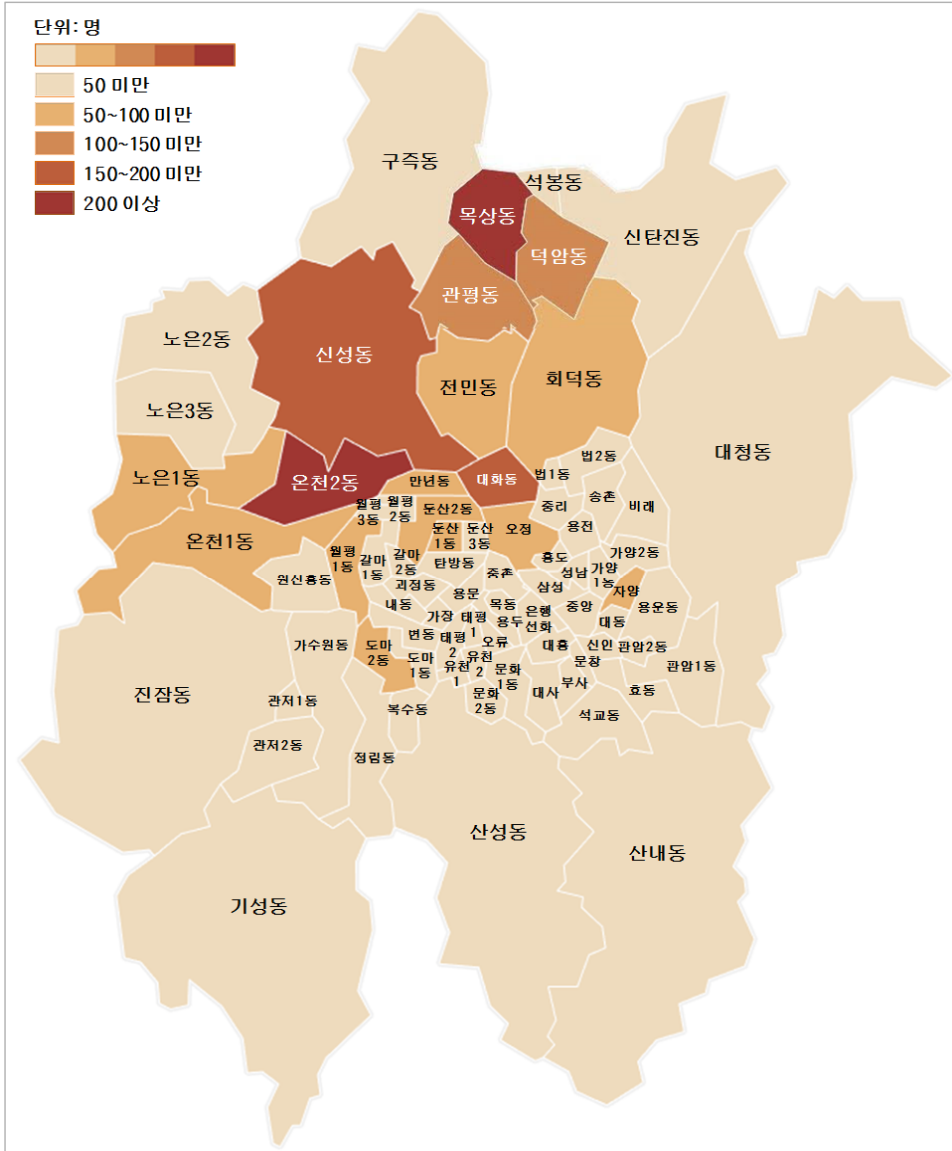
(단위: 명)

연번	동명	외국인 근로자 수	연번	동명	외국인 근로자 수	연번	동명	외국인 근로자 수	연번	동명	외국인 근로자 수
1	동구	380	22	대흥동	43	43	탄방동	43	64	전민동	54
2	효동	20	23	문창동	15	44	둔산1동	84	65	노은1동	62
3	판암1동	***	24	석교동	22	45	둔산2동	56	66	구즉동	47
4	판암2동	8	25	대사동	8	46	괴정동	15	67	관평동	143
5	용운동	33	26	부사동	***	47	가장동	9	68	온천1동	97
6	자양동	97	27	용두동	17	48	내동	14	69	원신흥동	24
7	가양1동	48	28	오류동	14	49	갈마1동	37	70	노은2동	29
8	가양2동	23	29	태평1동	10	50	갈마2동	30	71	노은3동	24
9	용전동	23	30	태평2동	***	51	월평1동	61	72	대덕구	794
10	홍도동	11	31	유천1동	38	52	월평2동	9	73	오정동	77
11	대청동	***	32	유천2동	17	53	월평3동	***	74	대화동	154
12	산내동	37	33	문화1동	16	54	만년동	77	75	회덕동	55
13	중앙동	18	34	문화2동	6	55	가수원동	26	76	비래동	5
14	신인동	12	35	산성동	25	56	기성동	19	77	중리동	45
15	대동	15	36	서구	666	57	관저1동	17	78	법1동	8
16	성남동	13	37	복수동	12	58	관저2동	13	79	법2동	***
17	삼성동	18	38	도마1동	36	59	둔산3동	5	80	신탄진동	20
18	중구	313	39	도마2동	51	60	유성구	926	81	석봉동	7
19	은행선화동	49	40	정림동	20	61	진잠동	28	82	덕암동	122
20	목동	6	41	변동	14	62	온천2동	238	83	목상동	276
21	증촌동	21	42	용문동	15	63	신성동	180	84	송촌동	22

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지역의 동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GIS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2-12]와 같음. 그림을 살펴보면 유성구 방향으로 100명이상 거주하는 동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12] 2016년 대전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4) 대전지역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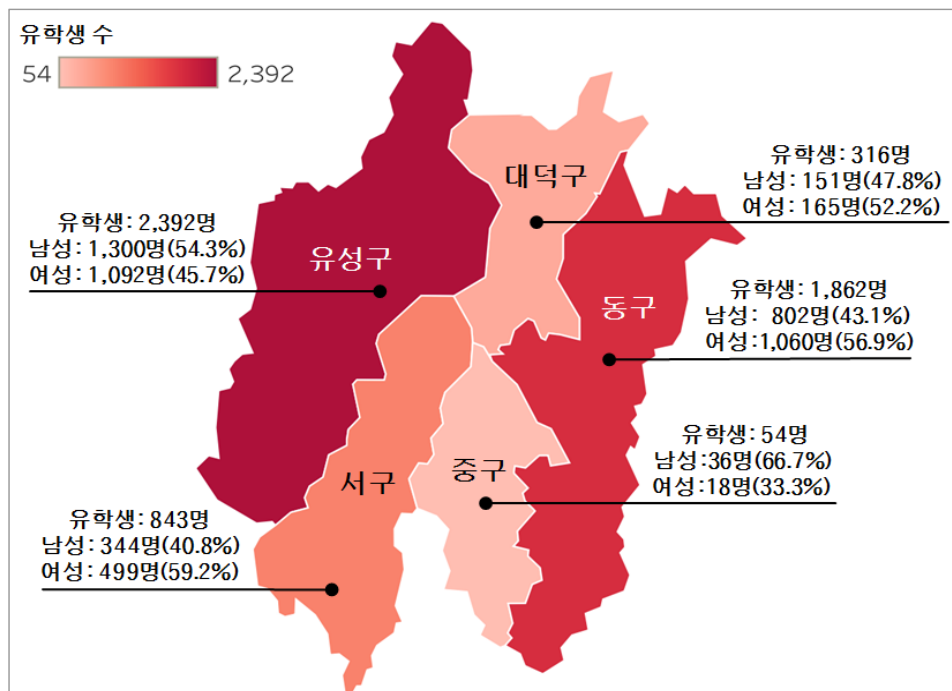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외국인 주민 유형인 유학생의 구별 수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2,39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1,862명, 서구 843명, 대덕구 316명, 중구 54명 순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유성구가 유학생이 가장 많음.

[표 2-12]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5,467 (100.0)	1,862 (34.1)	54 (1.0)	843 (15.4)	2,392 (43.8)	316 (5.8)
남성	2,633 (100.0)	802 (30.5)	36 (1.4)	344 (13.1)	1,300 (49.4)	151 (5.7)
여성	2,834 (100.0)	1,060 (37.4)	18 (0.6)	499 (17.6)	1,092 (38.5)	165 (5.8)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유학생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광역시 동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3]과 같음.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유학생 수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자양동으로 1,451명, 중구는 은행신화동으로 14명, 서구는 도마2동으로 485명, 유성구는 온천2동으로 1,736명, 대덕구는 오정동으로 268명으로 나타남([표 2-13]참조)15).

[표 2-13] 2016년 대전 동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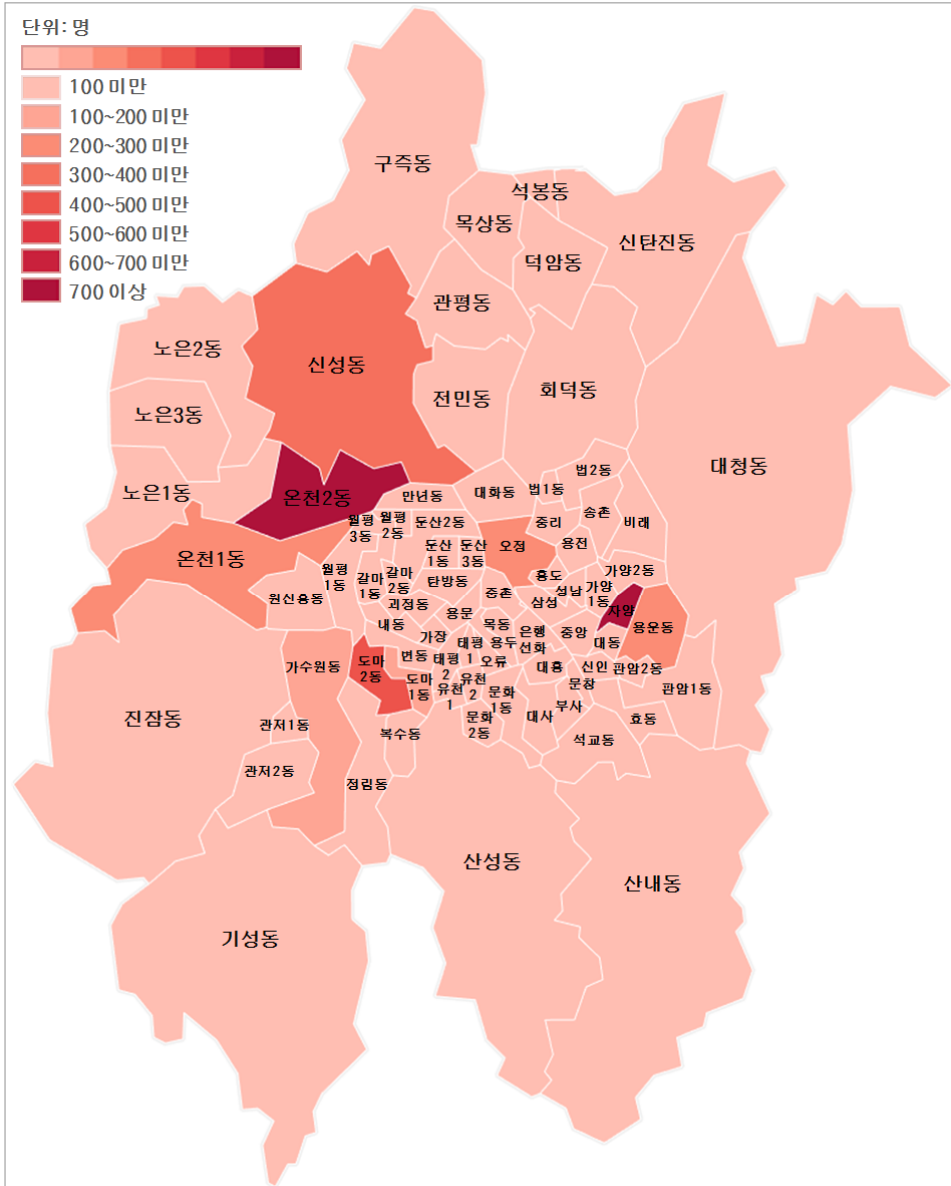
연번	동명	유학생수	연번	동명	유학생수	연번	동명	유학생수	연번	동명	유학생수
1	동구	1,862	22	대흥동	13	43	탄방동	7	64	전민동	11
2	효동	***	23	문창동	***	44	둔산1동	***	65	노은1동	***
3	판암1동	***	24	석교동	***	45	둔산2동	6	66	구즉동	***
4	판암2동	***	25	대사동	***	46	괴정동	***	67	관평동	***
5	용운동	225	26	부사동	***	47	가장동	***	68	온천1동	228
6	자양동	1,451	27	용두동	8	48	내동	***	69	월신흥동	10
7	가양1동	61	28	오류동	***	49	갈마1동	5	70	노은2동	8
8	가양2동	9	29	태평1동	***	50	갈마2동	***	71	노은3동	***
9	용전동	32	30	태평2동	***	51	월평1동	39	72	대덕구	316
10	홍도동	61	31	유천1동	***	52	월평2동	***	73	오정동	268
11	대청동	***	32	유천2동	***	53	월평3동	***	74	대화동	***
12	산내동	***	33	문화1동	6	54	만년동	***	75	회덕동	***
13	중앙동	***	34	문화2동	***	55	가수원동	110	76	비래동	***
14	신인동	***	35	산성동	***	56	기성동	***	77	중리동	40
15	대동	6	36	서구	843	57	관저1동	***	78	법1동	***
16	성남동	***	37	복수동	13	58	관저2동	***	79	법2동	***
17	삼성동	9	38	도마1동	157	59	둔산3동	***	80	신탄진동	***
18	중구	54	39	도마2동	485	60	유성구	2,392	81	석봉동	***
19	은행신화동	14	40	정립동	***	61	진잠동	***	82	덕암동	***
20	목동	***	41	변동	***	62	온천2동	1,736	83	목상동	***
21	중촌동	***	42	용문동	***	63	신성동	388	84	송촌동	***

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15) 자양동과, 도마 2동, 온천2동, 오정동은 대학교가 입지해있는 곳임.

○ 대전지역의 동별 유학생 현황을 GIS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2-14]와 같음.



[그림 2-14] 2016년 대전 동별 유학생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3. 대전지역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1) 대전시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외국인 주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3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24.1%, 30대 19.2%, 40대 11.9%, 50대 8.5%, 60대 3.6%, 70세 이상 1.0% 순으로 나타나, 20대 이하 젊은 외국인주민(55.7%)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함(표 2-14참조).
- 전국 연령별 외국인 주민현황과 비교해보면, 대전지역 외국인 주민 19세 이하의 비중은 8.2%p, 20대는 8.0%p 높아, 젊은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2-14] 2016년 대전 연령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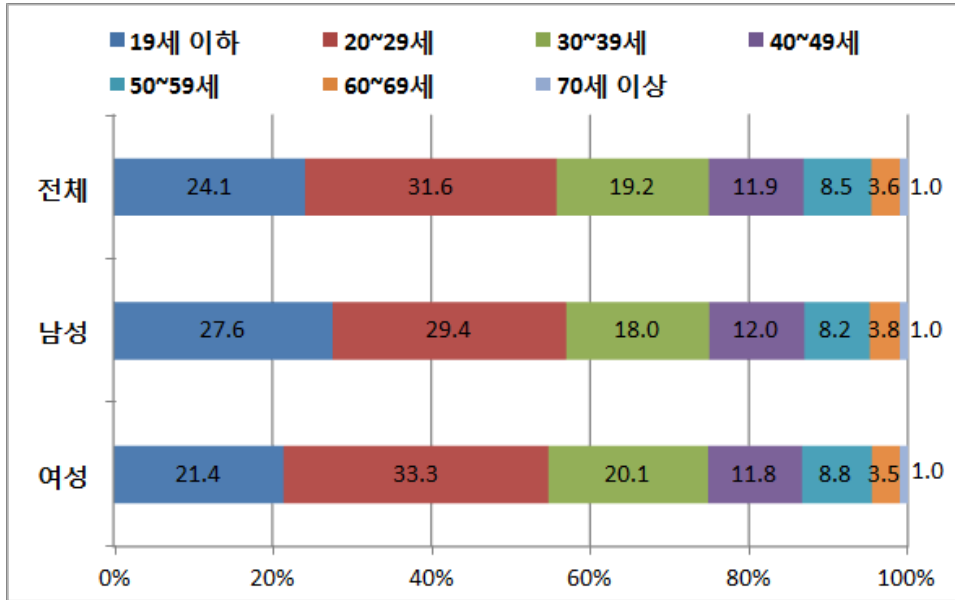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이하 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대전	전체	26,656 (100.0)	6,436 (24.1)	8,425 (31.6)	5,105 (19.2)	3,170 (11.9)	2,277 (8.5)	967 (3.6)	276 (1.0)
	남성	11,817 (100.0)	3,261 (27.6)	3,477 (29.4)	2,126 (18.0)	1,414 (12.0)	969 (8.2)	448 (3.8)	122 (1.0)
	여성	14,839 (100.0)	3,175 (21.4)	4,948 (33.3)	2,979 (20.1)	1,756 (11.8)	1,308 (8.8)	519 (3.5)	154 (1.0)
전국	전체	1,764,664 (100.0)	280,668 (15.9)	415,715 (23.6)	412,663 (23.4)	283,308 (16.1)	238,681 (13.5)	107,691 (6.1)	25,938 (1.5)

주: 1)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163명 합산되지 아니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29.4%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27.6%, 30대 18.0%, 40대 12.0%, 50대 8.2%, 60대 3.8%, 70세 이상 1.0%순으로 나타남. 여성도 마찬가지로 20대 비율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21.4%, 30대 20.1%, 40대 11.8%, 50대 8.8%, 60대 3.5%, 70세 이상 1.0%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외국인주민 연령집단의 분포 순위가 같음(그림 2-15)참조). 단, 여성이 남성보다 20대 비중은 다소 높고 19세 이하 비중은 다소 낮음.



[그림 2-15] 2016년 대전 연령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2)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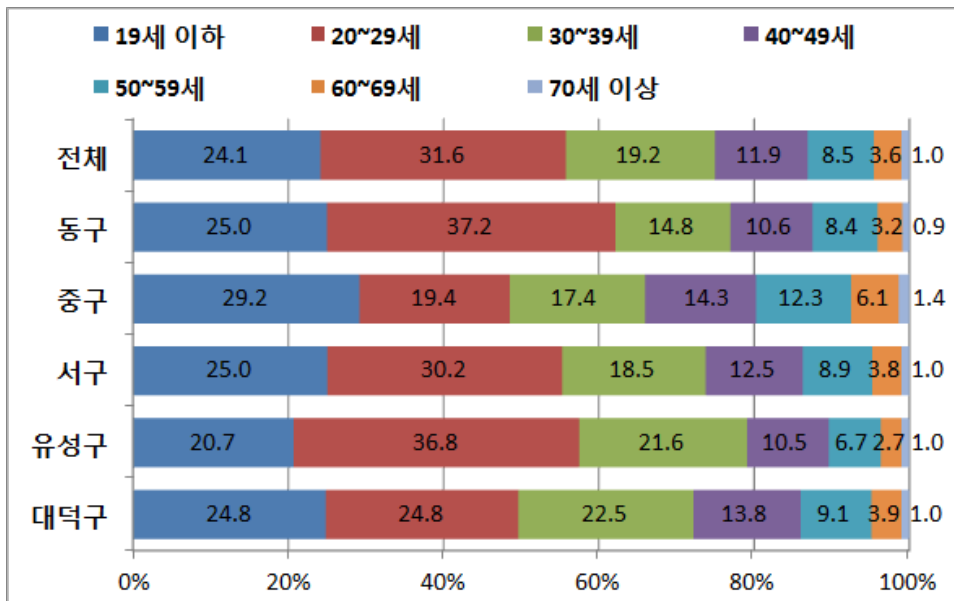
- 대전지역 전체 연령별 외국인주민 분포 분석에 이어 5개 기초자치구를 비교하면, 타 자치구보다 동구와 유성구의 20대 연령비율(동구 37.2%, 유성구 36.8%)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구, 유성구가 20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이 높은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표 2-15)참조).

[표 2-15]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26,656 (100.0)	6,436 (24.1)	8,425 (31.6)	5,105 (19.2)	3,170 (11.9)	2,277 (8.5)	967 (3.6)	276 (1.0)
동구	5,624 (100.0)	1,408 (25.0)	2,090 (37.2)	830 (14.8)	594 (10.6)	470 (8.4)	180 (3.2)	52 (0.9)
중구	3,024 (100.0)	884 (29.2)	586 (19.4)	525 (17.4)	432 (14.3)	372 (12.3)	184 (6.1)	41 (1.4)
서구	5,691 (100.0)	1,425 (25.0)	1,720 (30.2)	1,053 (18.5)	710 (12.5)	508 (8.9)	217 (3.8)	58 (1.0)
유성구	8,116 (100.0)	1,677 (20.7)	2,986 (36.8)	1,750 (21.6)	853 (10.5)	546 (6.7)	221 (2.7)	83 (1.0)
대덕구	4,201 (100.0)	1,042 (24.8)	1,043 (24.8)	947 (22.5)	581 (13.8)	381 (9.1)	165 (3.9)	42 (1.0)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6]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4. 대전지역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1) 대전시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 2016년 대전지역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2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 18.9%, 1년~2년 미만 16.9%, 2년~3년 미만 14.0%, 3년~4년 미만·10년 이상 각 9.1%, 4년~5년 미만 6.3% 순임. 성별로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년~3년 미만의 비중이 다소 낮고 5년~10년 미만의 비중이 다소 높음(그림 2-17참조).
- 전국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현황과 비교해보면, 1년 미만의 비중이 5.6%p 높은 점이 특기할만함([표 2-1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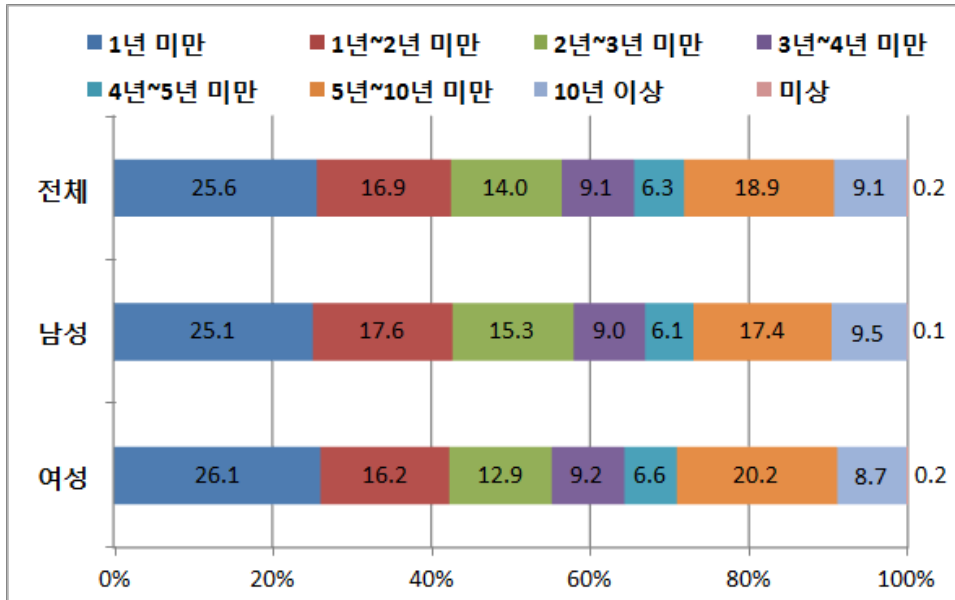
[표 2-16] 2016년 대전 체류기간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대전	전체	19,687 (100.0)	5,042 (25.6)	3,322 (16.9)	2,754 (14.0)	1,789 (9.1)	1,250 (6.3)	3,711 (18.9)	1,786 (9.1)	33 (0.2)
	남성	9,222 (100.0)	2,314 (25.1)	1,625 (17.6)	1,408 (15.3)	828 (9.0)	558 (6.1)	1,602 (17.4)	876 (9.5)	11 (0.1)
	여성	10,465 (100.0)	2,728 (26.1)	1,697 (16.2)	1,346 (12.9)	961 (9.2)	692 (6.6)	2,109 (20.2)	910 (8.7)	22 (0.2)
전국	1,413,758 (100.0)	282,450 (20.0)	224,959 (15.9)	246,975 (17.5)	152,971 (10.8)	112,940 (8.0)	287,914 (20.4)	104,337 (7.4)	1,212 (0.1)	

주: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7] 2016년 대전 체류기간별 성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전체 체류기간별 외국인 분포 분석에 이어 2016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체류기간 외국인분포를 살펴보면 동구는 1년 미만이 31.5%로 가장 높고, 중구는 5년~10년 미만, 서구는 1년 미만 23.2%, 유성구는 1년 미만 26.6%, 대덕구 1년 미만이 22.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구를 제외하고 각 자치구별로 1년 미만의 체류 외국인 주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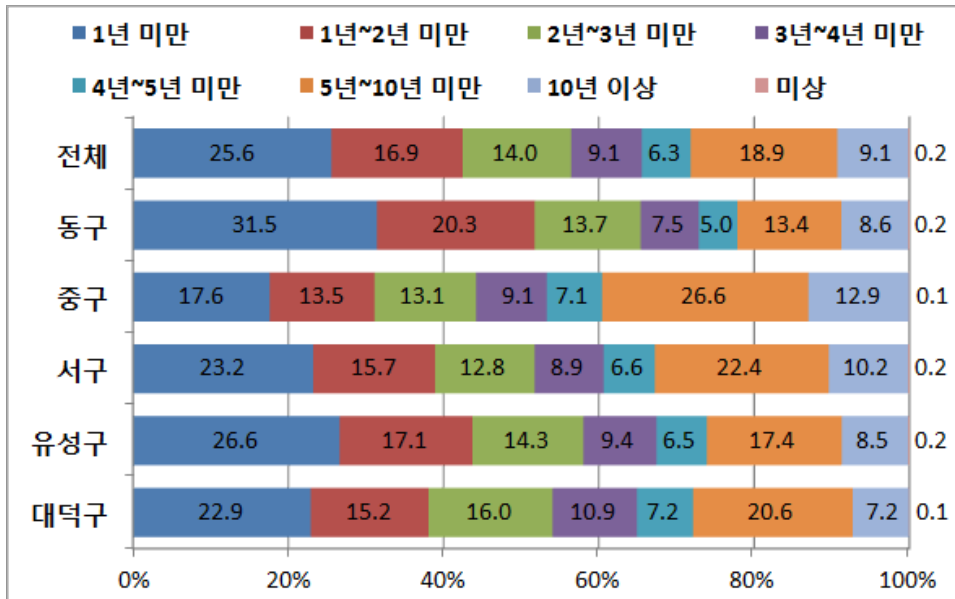
[표 2-1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전체	19,687 (100.0)	5,042 (25.6)	3,322 (16.9)	2,754 (14.0)	1,789 (9.1)	1,250 (6.3)	3,711 (18.9)	1,786 (9.1)	33 (0.2)
동구	4,245 (100.0)	1,336 (31.5)	861 (20.3)	580 (13.7)	318 (7.5)	211 (5.0)	569 (13.4)	363 (8.6)	7 (0.2)
중구	1,813 (100.0)	319 (17.6)	244 (13.5)	237 (13.1)	165 (9.1)	129 (7.1)	483 (26.6)	234 (12.9)	2 (0.1)
서구	3,978 (100.0)	923 (23.2)	623 (15.7)	509 (12.8)	356 (8.9)	264 (6.6)	891 (22.4)	404 (10.2)	8 (0.2)
유성구	6,812 (100.0)	1,814 (26.6)	1,162 (17.1)	975 (14.3)	641 (9.4)	442 (6.5)	1,183 (17.4)	581 (8.5)	14 (0.2)
대덕구	2,839 (100.0)	650 (22.9)	432 (15.2)	453 (16.0)	309 (10.9)	204 (7.2)	585 (20.6)	204 (7.2)	2 (0.1)

주: 국적취득자 수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를 제외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체류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5. 대전지역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1) 대전시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중국 29.3%로, 대전의 외국인 주민 10명 중 3명가량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베트남 16.8%, 한국계 중국 12.0%, 미국 6.3% 순으로 나타남(표 2-18참조).
-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한국계 중국 33.9%로 나타나 대전과 대조를 보임.

[표 2-18]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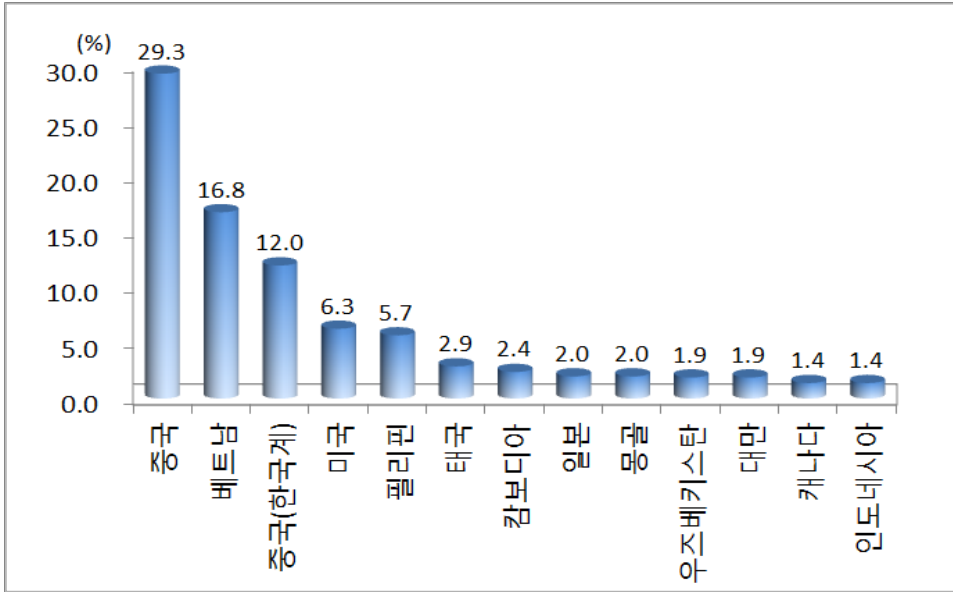
(단위: 명, %)

		국가 명	주민 수			국가 명	주민 수
전국	순위	전체	1,774,538 (100.0)	대전	순위	전체	26,819 (100.0) ¹⁾
	1	중국(한국계)	601,713 (33.9)		1	중국	7,865 (29.3)
	2	중국	272,714 (15.4)		2	베트남	4,508 (16.8)
	3	베트남	215,888 (12.2)		3	중국(한국계)	3,223 (12.0)
	4	태국	85,449 (4.8)		4	미국	1,700 (6.3)
	5	필리핀	79,698 (4.5)		5	필리핀	1,520 (5.7)
	6	미국	58,870 (3.3)		6	태국	786 (2.9)
	7	캄보디아	54,148 (3.1)		7	캄보디아	651 (2.4)
	8	우즈베키스탄	48,898 (2.8)		8	일본	538 (2.0)
	9	인도네시아	42,468 (2.4)		9	몽골	526 (2.0)
	10	네팔	33,707 (1.9)		10	우즈베키스탄	512 (1.9)
	11	몽골	30,119 (1.7)		11	대만	508 (1.9)
	12	일본	28,292 (1.6)		12	캐나다	384 (1.4)
	13	스리랑카	26,971 (1.5)		13	인도네시아	372 (1.4)
	14	미얀마	21,584 (1.2)		-	-	-
15	대만	20,772 (1.2)					

주: 출신국가 구성비 1.0%이상만 정렬함

주: 1) 기존 외국인주민합계(26,656명)에서 제외된 대전 귀화 자녀 163명도 합산.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19]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외국인주민

주: 출신국가 구성비 1.0%이상만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대전시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28.2%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베트남 12.3%, 한국계 중국 11.8%, 미국 7.1%, 필리핀 4.4%, 우즈베키스탄 2.6%, 태국 2.5%, 대만 2.3%, 인도네시아 2.2%, 몽골 2.0%, 캄보디아 1.9%, 캐나다 1.7%, 방글라데시 1.5%, 파키스탄 1.4%, 네팔·카자흐스탄·일본 1.2%, 스리랑카 1.0% 순으로 나타남 ([표 2-19]참조).
-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한국계 중국 31.8%로 대전이 한국계 중국 주민 수는 3순위(11.8%)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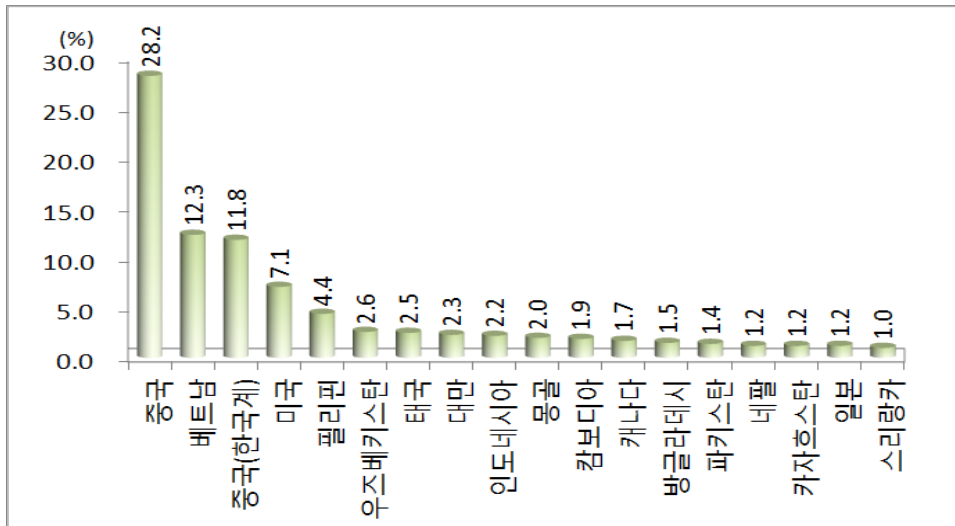
[표 2-19]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전국			대전		
순위	국가 명	주민 수	순위	국가 명	주민 수
	전체	951,244 (100.0)		전체	11,889 (100.0)
1	중국(한국계)	302,964 (31.8)	1	중국	3,353 (28.2)
2	중국	120,722 (12.7)	2	베트남	1,463 (12.3)
3	베트남	95,028 (10.0)	3	중국(한국계)	1,399 (11.8)
4	태국	49,633 (5.2)	4	미국	850 (7.1)
5	필리핀	40,142 (4.2)	5	필리핀	522 (4.4)
6	인도네시아	38,259 (4.0)	6	우즈베키스탄	313 (2.6)
7	캄보디아	34,362 (3.6)	7	태국	300 (2.5)
8	우즈베키스탄	33,165 (3.5)	8	대만	274 (2.3)
9	네팔	29,494 (3.1)	9	인도네시아	258 (2.2)
10	미국	29,481 (3.1)	10	몽골	235 (2.0)
11	스리랑카	26,047 (2.7)	11	캄보디아	222 (1.9)
12	미얀마	20,793 (2.2)	12	캐나다	204 (1.7)
13	몽골	14,866 (1.6)	13	방글라데시	174 (1.5)
14	방글라데시	14,739 (1.5)	14	파키스탄	171 (1.4)
15	파키스탄	10,981 (1.2)	15	네팔	145 (1.2)
16	대만	10,611 (1.1)	16	카자흐스탄	140 (1.2)
-	-	-	17	일본	138 (1.2)
			18	스리랑카	116 (1.0)

주: 출신국가 구성비 1.0%이상만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20]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남성 외국인주민

3) 대전시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현황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30.2%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베트남 20.4%, 한국계 중국 1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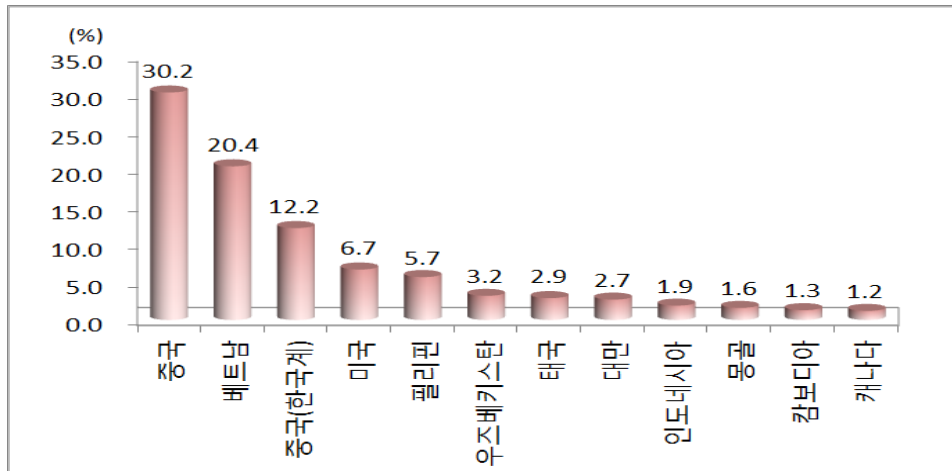
[표 2-20]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전국			대전		
순위	국가 명	주민 수	순위	국가 명	주민 수
	전체	823,294 (100.0)		전체	14,930 (100.0)
1	중국(한국계)	298,749 (36.3)	1	중국	4,512 (30.2)
2	중국	151,992 (18.5)	2	베트남	3,045 (20.4)
3	베트남	120,860 (14.7)	3	중국(한국계)	1,824 (12.2)
4	필리핀	39,556 (4.8)	4	미국	998 (6.7)
5	태국	35,816 (4.4)	5	필리핀	850 (5.7)
6	미국	29,389 (3.6)	6	우즈베키스탄	485 (3.2)
7	캄보디아	19,786 (2.4)	7	태국	429 (2.9)
8	일본	19,399 (2.4)	8	대만	400 (2.7)
9	우즈베키스탄	15,733 (1.9)	9	인도네시아	288 (1.9)
10	몽골	15,253 (1.9)	10	몽골	234 (1.6)
11	대만	10,161 (1.2)	11	캄보디아	197 (1.3)
12	캐나다	8,000 (1.0)	12	캐나다	180 (1.2)

주: 1.0%이상만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2-21] 2016년 대전 출신국가별 여성 외국인주민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

1절. 결혼이주여성

2절. 다문화가족 자녀

3절. 다문화가족

4절.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통계 특성

3장

3장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

1절. 결혼이주여성

1. 대전시, 구별, 동별 결혼이주여성

1)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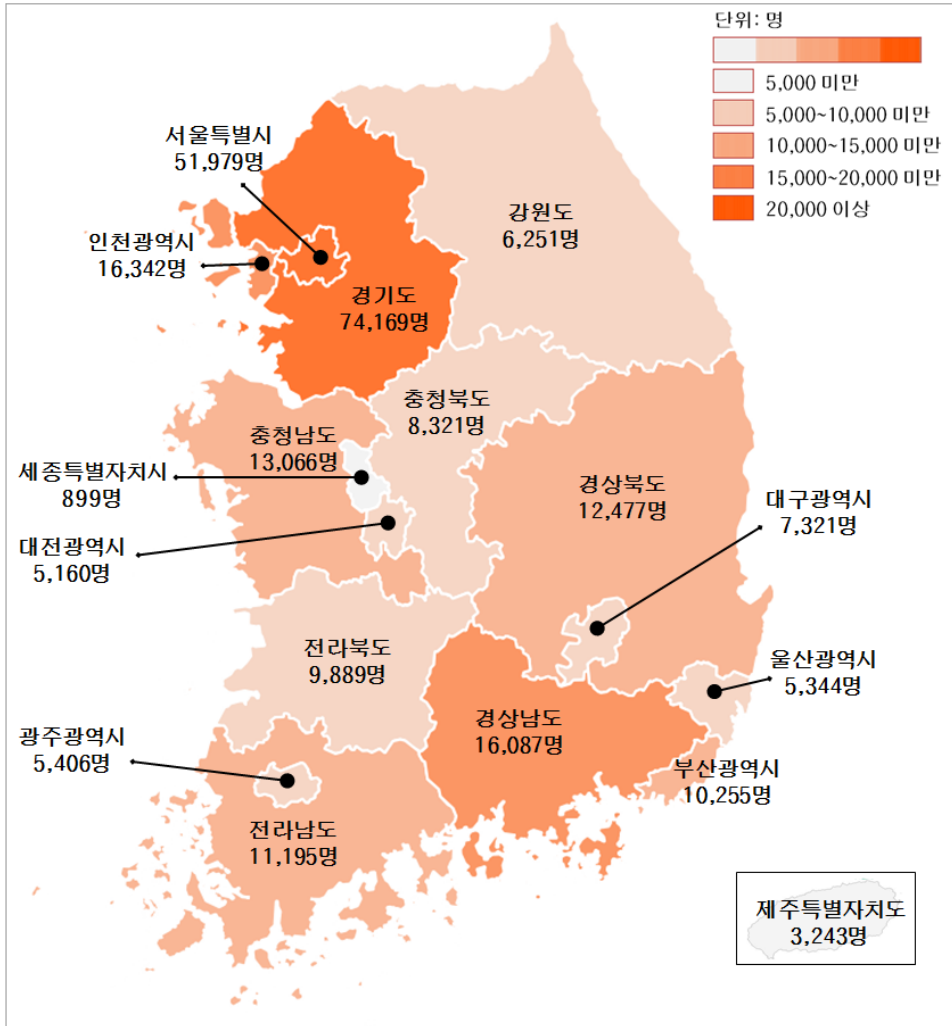
- 2016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5,160명으로 결혼이주남성(739명)보다 약 7배 많음([표 3-1]참조).

[표 3-1] 2016년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결혼이주민			국적미취득			국적취득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서울특별시	73,914	21,935	51,979	33,139	9,524	23,615	40,775	12,411	28,364
부산광역시	11,853	1,598	10,255	6,672	984	5,688	5,181	614	4,567
대구광역시	8,403	1,082	7,321	4,793	694	4,099	3,610	388	3,222
인천광역시	20,988	4,646	16,342	9,873	2,031	7,842	11,115	2,615	8,500
광주광역시	6,001	595	5,406	3,298	361	2,937	2,703	234	2,469
대전광역시	5,899	739	5,160	3,361	422	2,939	2,538	317	2,221
울산광역시	6,217	873	5,344	3,332	444	2,888	2,885	429	2,456
세종특별자치시	1,053	154	899	598	97	501	455	57	398
경기도	95,848	21,679	74,169	46,297	9,712	36,585	49,551	11,967	37,584
강원도	6,768	517	6,251	3,547	265	3,282	3,221	252	2,969
충청북도	9,433	1,112	8,321	4,841	548	4,293	4,592	564	4,028
충청남도	14,863	1,797	13,066	8,020	824	7,196	6,843	973	5,870
전라북도	10,568	679	9,889	5,768	388	5,380	4,800	291	4,509
전라남도	11,749	554	11,195	6,645	281	6,364	5,104	273	4,831
경상북도	13,640	1,163	12,477	7,473	670	6,803	6,167	493	5,674
경상남도	17,929	1,842	16,087	9,554	1,177	8,377	8,375	665	7,710
제주특별자치도	3,822	579	3,243	2,290	306	1,984	1,532	273	1,259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1] 2016년 전국 결혼이주여성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의 결혼이주여성 인구를 17개시도 결혼이주여성 인구와 비교하면 15번째 인구를 차지함.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4,169명)이며, 다음으로 서울(51,979명), 인천(16,342명), 경남(16,087명), 충남(13,066명), 경북(12,477명), 전남(11,195명), 부산(10,255명), 전북(9,889명), 충북(8,321명), 대구(7,321명), 강원도(6,251명), 광주(5,406명), 울산(5,344명), 대전(5,160명), 제주(3,243명), 세종(899명) 순임([그림 3-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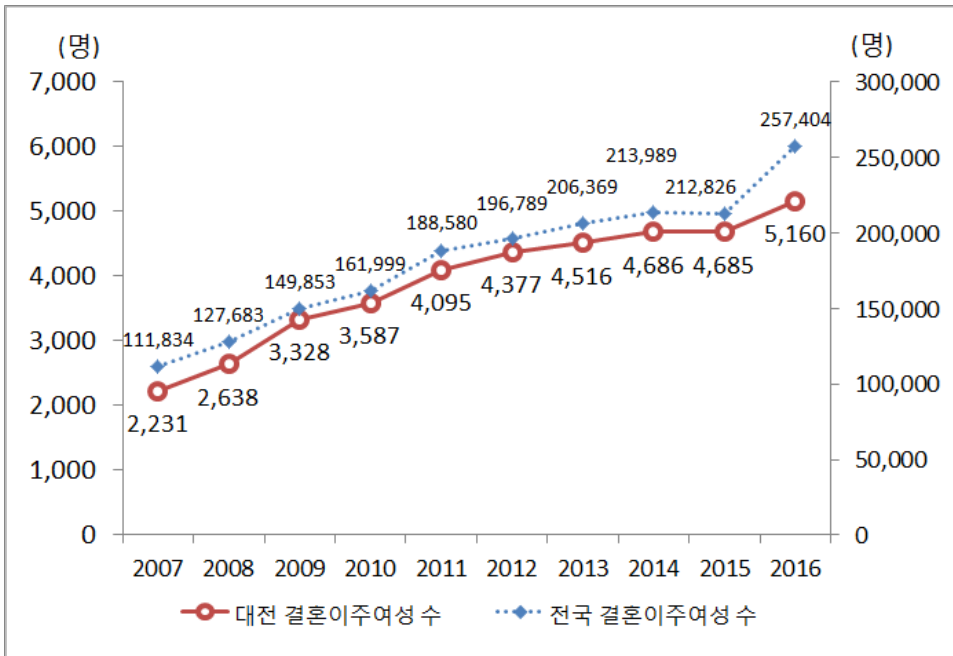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대전의 결혼이주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231명이던 대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5,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함. 반면 증감률은 2011년 이후로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음([표 3-2]참조)

[표 3-2] 지난 10년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추이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	2,231	2,638	3,328	3,587	4,095	4,377	4,516	4,686	4,685	5,160
증감률	-	18.2	26.2	7.8	14.2	6.9	3.2	3.8	0.0	10.1
전국	111,834	127,683	149,853	161,999	188,580	196,789	206,369	213,989	212,826	257,404
증감률	-	14.2	17.4	8.1	16.4	4.4	4.9	3.7	-0.5	20.9

주: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 인해 수치 증가 경향 더해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3-2] 지난 10년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추이

2)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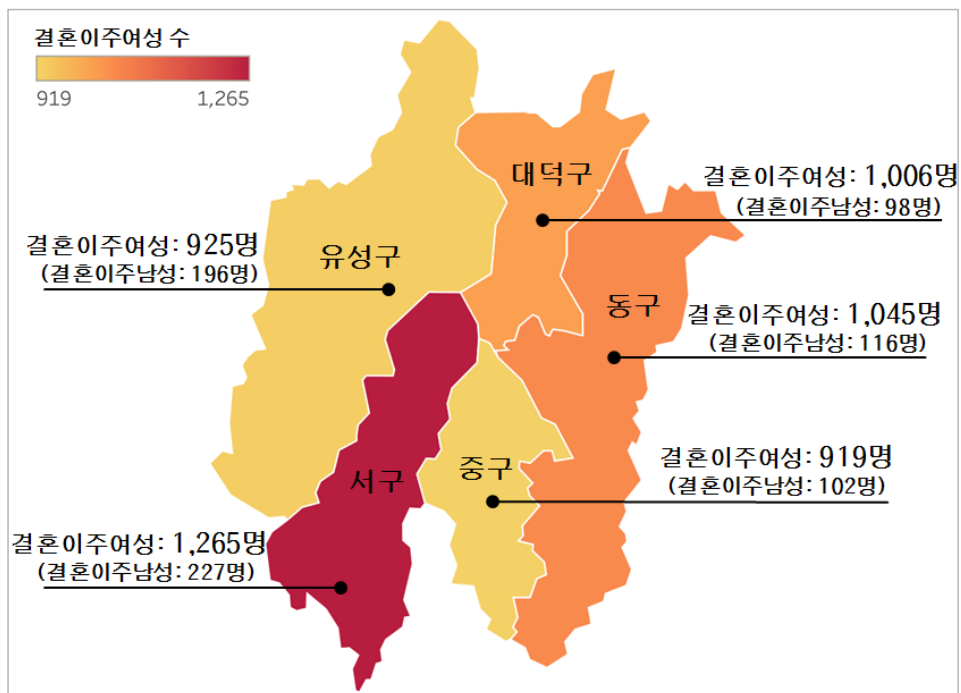
- 대전지역 5개구의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24.5%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구 20.3%, 대덕구 19.5% 유성구 17.9% 중구 17.8% 순임([표 3-3]참조)

[표 3-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결혼이주여성	5,160 (100.0)	1,045 (20.3)	919 (17.8)	1,265 (24.5)	925 (17.9)	1,006 (19.5)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3]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지난 10년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결혼이주여성 수의 추이는 [표 3-4]와 같음.
 동구가 2007년 138명에서 2016년 1,045명으로 가장 크게 결혼이주여성 수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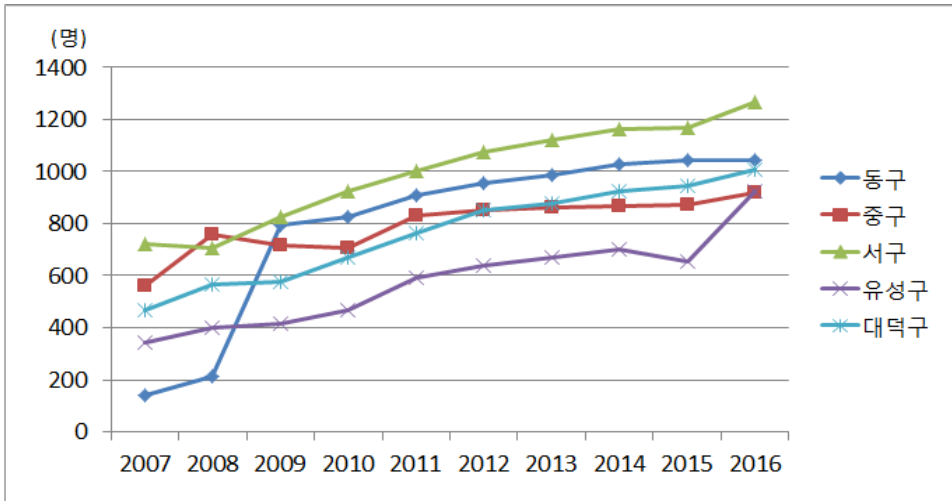
[표 3-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증감률	2,231 -	2,638 18.2	3,328 26.2	3,587 7.8	4,095 14.2	4,377 6.9	4,516 3.2	4,686 3.8	4,685 0.0	5,160 10.1
동구 증감률	138 -	211 52.9	795 276.8	826 3.9	907 9.8	958 5.6	985 2.8	1,030 4.6	1,045 1.5	1,045 0.0
중구 증감률	562 -	756 34.5	715 -5.4	704 -1.5	829 17.8	854 3.0	864 1.2	865 0.1	870 0.6	919 5.6
서구 증감률	721 -	704 -2.4	824 17.0	922 11.9	1,003 8.8	1,073 7.0	1,121 4.5	1,165 3.9	1,167 0.2	1,265 8.4
유성구 증감률	344 -	399 16.0	417 4.5	466 11.8	594 27.5	640 7.7	669 4.5	700 4.6	656 -6.3	925 41.0
대덕구 증감률	466 -	568 21.9	577 1.6	669 15.9	762 13.9	852 11.8	877 2.9	926 5.6	947 2.3	1,006 6.2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그림 3-4]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결혼이주여성 수 추이

주: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 인해 수치 증가 경향 더해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3) 동별

- 행정안전부 동별 통계에 결혼이주민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남녀수가 모두 합쳐진 통계를 제시함. 대전광역시 동별 결혼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음.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결혼이주민 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삼성동 110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151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106명, 유성구는 구즉동으로 184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129명으로 나타남([표 3-5]참조).

[표 3-5] 2016년 대전 동별 결혼이주민 현황

(단위: 명, %)

연번	읍면동	결혼 이주민 수	연번	읍면동	결혼 이주민 수	연번	읍면동	결혼 이주민 수	연번	읍면동	결혼 이주민 수
1	동구	1,161	22	대흥동	48	43	탄방동	89	64	전민동	49
2	효동	93	23	문창동	39	44	둔산1동	20	65	노은1동	56
3	판암1동	45	24	석교동	105	45	둔산2동	51	66	구즉동	184
4	판암2동	80	25	대사동	34	46	괴정동	76	67	관평동	77
5	용운동	87	26	부사동	46	47	가장동	40	68	온천1동	156
6	자양동	52	27	용두동	35	48	내동	63	69	원신흥동	142
7	가양1동	90	28	오류동	34	49	갈마1동	84	70	노은2동	44
8	가양2동	110	29	태평1동	39	50	갈마2동	81	71	노은3동	76
9	용전동	108	30	태평2동	47	51	월평1동	69	72	대덕구	1,104
10	홍도동	63	31	유천1동	24	52	월평2동	72	73	오정동	125
11	대청동	5	32	유천2동	61	53	월평3동	28	74	대화동	108
12	산내동	94	33	문화1동	45	54	만년동	49	75	회덕동	113
13	중앙동	43	34	문화2동	68	55	가수원동	101	76	비래동	68
14	신인동	57	35	산성동	151	56	기성동	15	77	중리동	156
15	대동	57	36	서구	1,492	57	관저1동	46	78	법1동	83
16	성남동	63	37	복수동	68	58	관저2동	93	79	법2동	56
17	삼성동	110	38	도마1동	106	59	둔산3동	34	80	신탄진동	84
18	중구	1,021	39	도마2동	87	60	유성구	1,121	81	석봉동	60
19	은행선화동	116	40	정림동	61	61	진잠동	123	82	덕암동	129
20	목동	37	41	변동	95	62	온천2동	146	83	목상동	57
21	중촌동	88	42	용문동	64	63	신성동	68	84	송촌동	65

주: 행정안전부 동별 통계에 결혼이주민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남녀수가 모두 합쳐진 통계만 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대전지역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1) 대전시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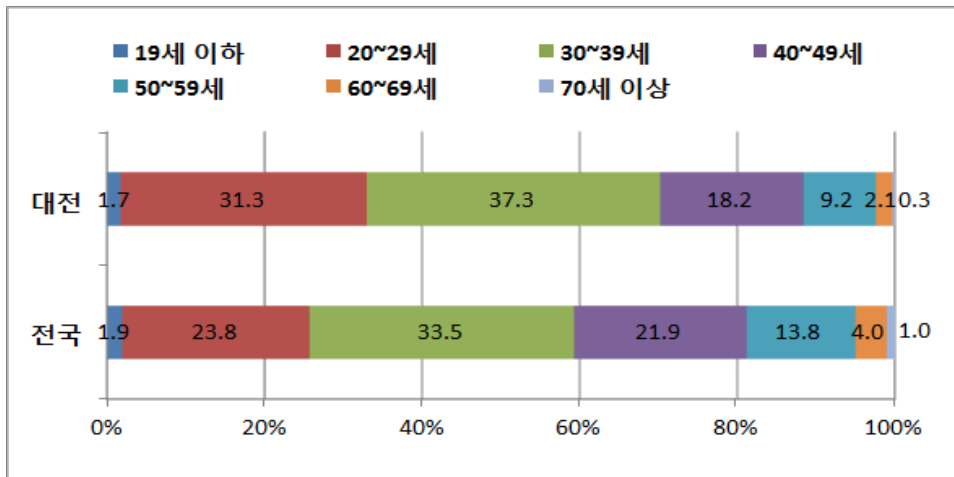
○ 2016년 대전지역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은 [표 3-6]과 같음.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30대가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20대 31.3%, 40대 18.2%, 50대 9.2%, 60대 2.1%, 19세 이하 1.7%, 70세 이상 0.3% 순으로 30대 이하 결혼이주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함. 전국과 비교하면 대전 결혼이주여성은 20대 7.5%p와 30대 3.8%p차로 비율이 높음([그림 3-6]참조).

[표 3-6] 2016년 대전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대전	5,160 (100.0)	89 (1.7)	1,613 (31.3)	1,923 (37.3)	937 (18.2)	476 (9.2)	106 (2.1)	16 (0.3)
전국	257,404 (100.0)	4,970 (1.9)	61,293 (23.8)	86,137 (33.5)	56,419 (21.9)	35,606 (13.8)	10,298 (4.0)	2,681 (1.0)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6] 2016년 대전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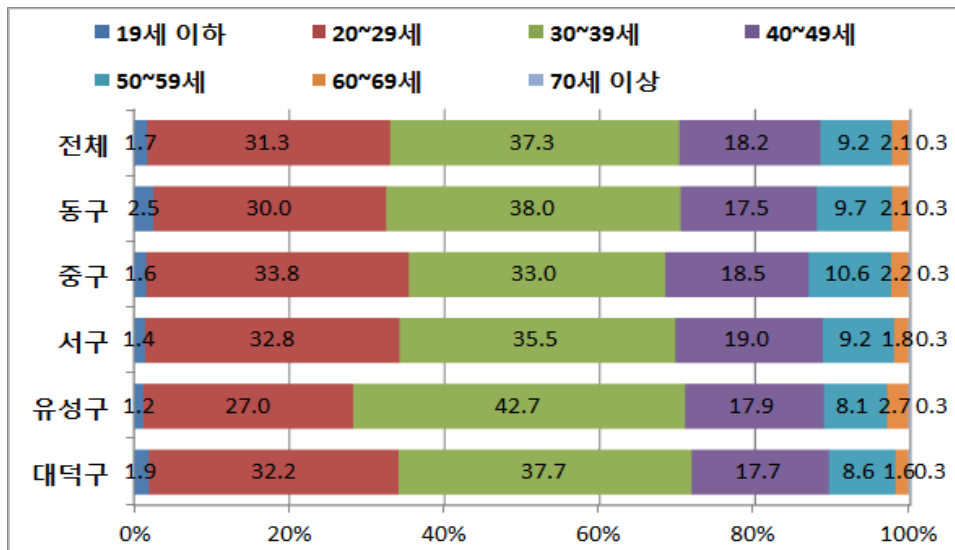
○ 기초자치구의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구별로 40대 이하 젊은 결혼이주여성이 65%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이후 20년 간 급속하게 늘어난 국제결혼의 영향이 40대 이하 여성의 분포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5,160 (100.0)	89 (1.7)	1,613 (31.3)	1,923 (37.3)	937 (18.2)	476 (9.2)	106 (2.1)	16 (0.3)
동구	1,045 (100.0)	26 (2.5)	313 (30.0)	397 (38.0)	183 (17.5)	101 (9.7)	22 (2.1)	3 (0.3)
중구	919 (100.0)	15 (1.6)	311 (33.8)	303 (33.0)	170 (18.5)	97 (10.6)	20 (2.2)	3 (0.3)
서구	1,265 (100.0)	18 (1.4)	415 (32.8)	449 (35.5)	240 (19.0)	116 (9.2)	23 (1.8)	4 (0.3)
유성구	925 (100.0)	11 (1.2)	250 (27.0)	395 (42.7)	166 (17.9)	75 (8.1)	25 (2.7)	3 (0.3)
대덕구	1,006 (100.0)	19 (1.9)	324 (32.2)	379 (37.7)	178 (17.7)	87 (8.6)	16 (1.6)	3 (0.3)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7]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3.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1) 대전시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32.2%이며, 다음으로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임 ([그림 3-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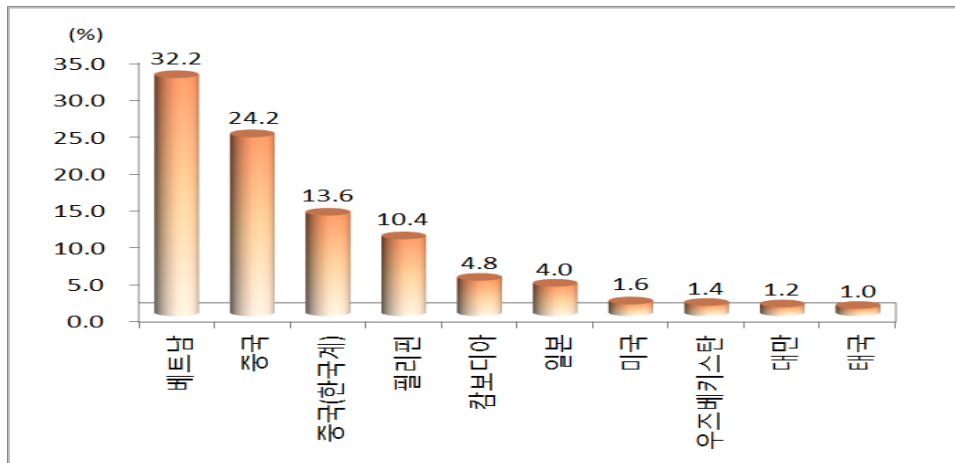
[표 3-8] 2016년 전국 및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

전국	순위	국가 명	결혼이주여성 수	대전	순위	국가 명	결혼이주여성 수
		전체	257,404 (100.0)			전체	5,160 (100.0)
1	중국(한국계)	79,786 (31.0)	1	베트남	1,662 (32.2)		
2	베트남	64,779 (25.2)	2	중국	1,249 (24.2)		
3	중국	52,897 (20.6)	3	중국(한국계)	703 (13.6)		
4	필리핀	17,550 (6.8)	4	필리핀	539 (10.4)		
5	일본	10,126 (3.9)	5	캄보디아	246 (4.8)		
6	캄보디아	7,112 (2.8)	6	일본	207 (4.0)		
7	태국	3,179 (1.2)	7	미국	81 (1.6)		
8	몽골	3,133 (1.2)	8	우즈베키스탄	74 (1.4)		
9	미국	3,115 (1.2)	9	대만	64 (1.2)		
-	-	-	-	10	태국	53 (1.0)	

주: 1.0%이상만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8] 2016년 대전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별 현황

○ 지난 10년간 대전지역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9]와 같음. 베트남 여성이 2007년 16.7%에서 2016년 32.2%로 크게 증가하며,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표 3-9]참조).

[표 3-9] 지난 10년간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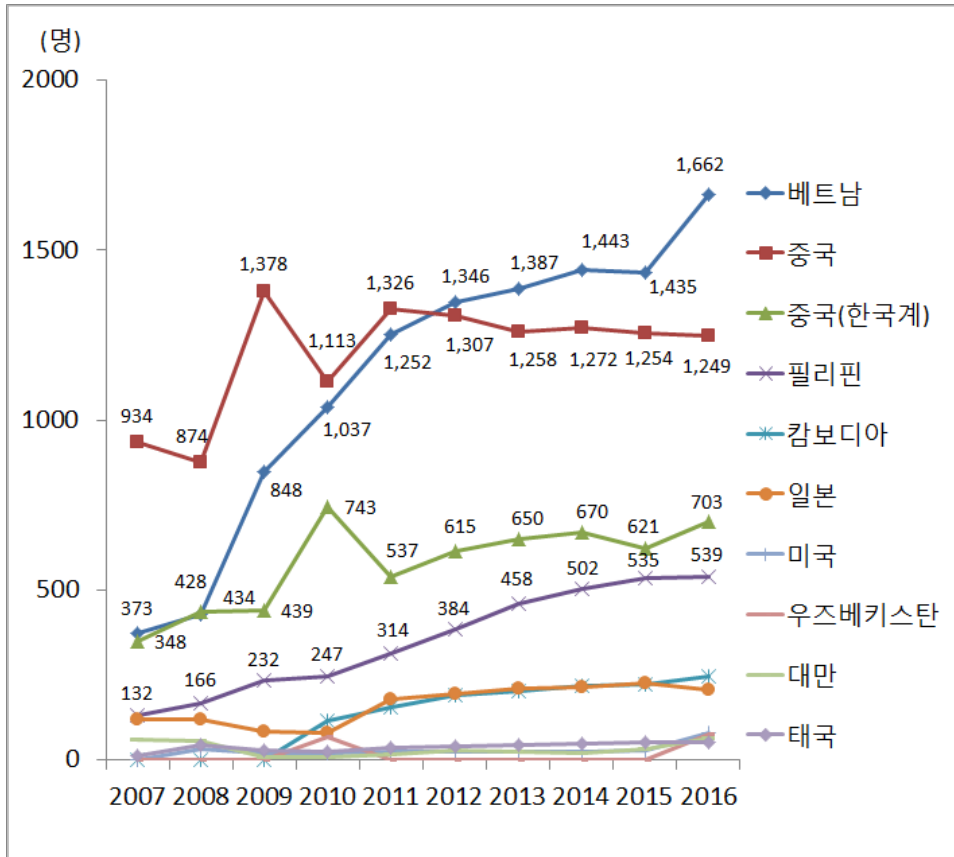
(단위: 명, %)

국가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231 (100.0)	2,638 (100.0)	3,328 (100.0)	3,587 (100.0)	4,095 (100.0)	4,377 (100.0)	4,516 (100.0)	4,686 (100.0)	4,685 (100.0)	5,160 (100.0)
베트남	373 (16.7)	428 (16.2)	848 (25.5)	1,037 (28.9)	1,252 (30.6)	1,346 (30.8)	1,387 (30.7)	1,443 (30.8)	1,435 (30.6)	1,662 (32.2)
중국	934 (41.9)	874 (33.1)	1,378 (41.4)	1,113 (31.0)	1,326 (32.4)	1,307 (29.9)	1,258 (27.9)	1,272 (27.1)	1,254 (26.8)	1,249 (24.2)
중국 (한국계)	348 (15.6)	434 (16.5)	439 (13.2)	743 (20.7)	537 (13.1)	615 (14.1)	650 (14.4)	670 (14.3)	621 (13.3)	703 (13.6)
필리핀	132 (5.9)	166 (6.3)	232 (7.0)	247 (6.9)	314 (7.7)	384 (8.8)	458 (10.1)	502 (10.7)	535 (11.4)	539 (10.4)
캄보디아	- (-)	- (-)	- (-)	114 (3.2)	153 (3.7)	192 (4.4)	204 (4.5)	219 (4.7)	221 (4.7)	246 (4.8)
일본	120 (5.4)	119 (4.5)	84 (2.5)	79 (2.2)	179 (4.4)	194 (4.4)	211 (4.7)	213 (4.5)	224 (4.8)	207 (4.0)
미국	- (-)	32 (1.2)	20 (0.6)	21 (0.6)	22 (0.5)	25 (0.6)	22 (0.5)	24 (0.5)	27 (0.6)	81 (1.6)
우즈베키 스탄	- (-)	- (-)	- (-)	68 (1.9)	- (-)	- (-)	- (-)	- (-)	- (-)	74 (1.4)
대만	61 (2.7)	55 (2.1)	10 (0.3)	10 (0.3)	15 (0.4)	26 (0.6)	25 (0.6)	21 (0.4)	32 (0.7)	64 (1.2)
태국	12 (0.5)	44 (1.7)	27 (0.8)	22 (0.6)	34 (0.8)	39 (0.9)	43 (1.0)	48 (1.0)	50 (1.1)	53 (1.0)

주: 2016년 출신국가별 순위 기준으로 1.0%이상만 2007~2015년 수치 정렬함

주: 2009년까지 캄보디아는 기타, 우즈베키스탄은 2007~2009년, 2012~2015년 중앙아시아에 통합되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3-9] 지난 10년간 대전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추이

주: 일본부터 태국까지 수치 생략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2) 기초자치구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 대전전체에 이어 기초자치구별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만 중국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비율이 높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비율이 높음(표 3-10)참조).

[표 3-10]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5,160 (100.0)	1,045 (100.0)	919 (100.0)	1,265 (100.0)	925 (100.0)	1,006 (100.0)
베트남	1,662 (32.2)	380 (36.4)	307 (33.4)	395 (31.2)	214 (23.1)	366 (36.4)
중국	1,249 (24.2)	247 (23.6)	212 (23.1)	332 (26.2)	229 (24.8)	229 (22.8)
중국(한국계)	703 (13.6)	142 (13.6)	129 (14.0)	159 (12.6)	142 (15.4)	131 (13.0)
필리핀	539 (10.4)	99 (9.5)	114 (12.4)	139 (11.0)	78 (8.4)	109 (10.8)
캄보디아	246 (4.8)	46 (4.4)	48 (5.2)	50 (4.0)	39 (4.2)	63 (6.3)
일본	207 (4.0)	*** (-)	*** (-)	52 (4.1)	66 (7.1)	*** (-)
미국	81 (1.6)	*** (-)	*** (-)	*** (-)	44 (4.8)	*** (-)
우즈베키스탄	74 (1.4)	19 (1.8)	*** (-)	*** (-)	13 (1.4)	11 (1.1)
대만	64 (1.2)	*** (-)	*** (-)	23 (1.8)	20 (2.2)	*** (-)
태국	53 (1.0)	*** (-)	*** (-)	*** (-)	*** (-)	*** (-)

주: 대전 전체 1.0%이상 순위 기준으로 5개구 정렬함

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4.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현황

1)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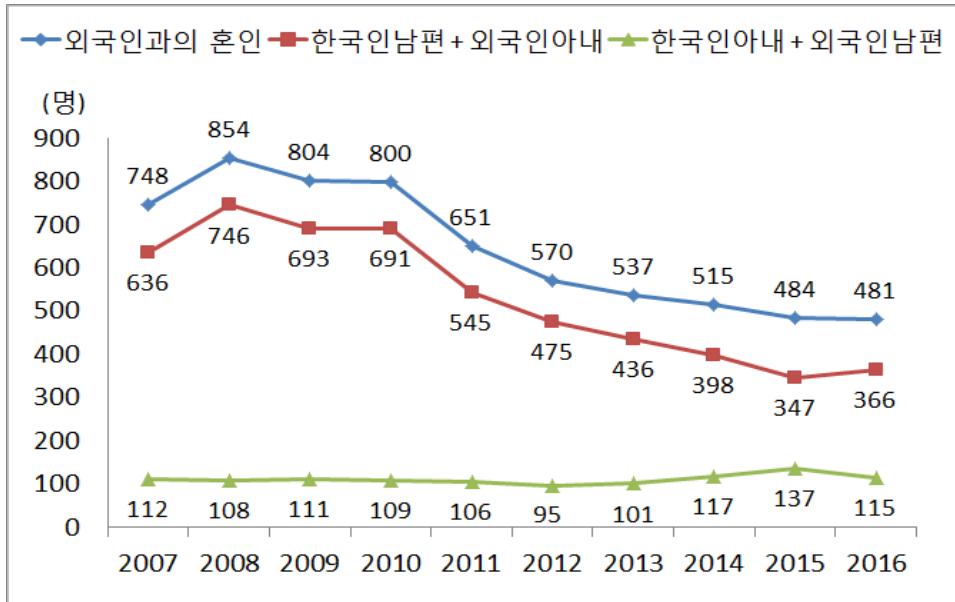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대전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481건으로 전체 혼인의 5.8%를 차지함([표 3-11]참조).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비율이 76.1%,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의 비율이 23.9%로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48건이었던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8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3-10]참조).

[표 3-11]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단위: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혼인 건수 (A)	9,684	9,499	8,885	9,351	9,726	9,745	9,621	9,118	8,805	8,325
외국인과의 혼인	748	854	804	800	651	570	537	515	484	481
(B)대비 구성비	7.7	9.0	9.0	8.6	6.7	5.8	5.6	5.6	5.5	5.8
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	636	746	693	691	545	475	436	398	347	366
(B)대비 구성비	85.0	87.4	86.2	86.4	83.7	83.3	81.2	77.3	71.7	76.1
한국인아내 + 외국인남편	112	108	111	109	106	95	101	117	137	115
(B)대비 구성비	15.0	12.6	13.8	13.6	16.3	16.7	18.8	22.7	28.3	23.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그림 3-10]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2)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이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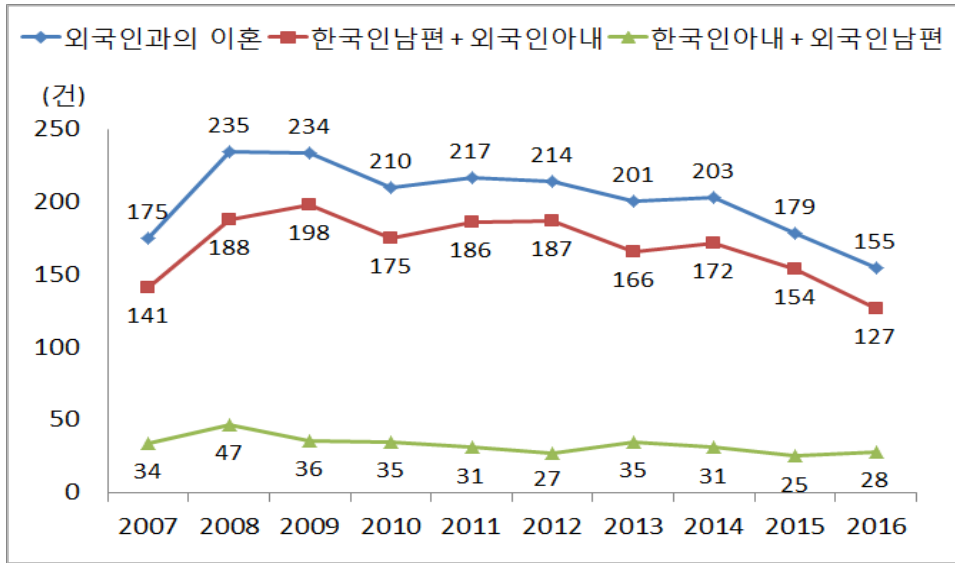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대전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155건으로 전체 이혼의 5.4%를 차지함(표 3-12참조).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혼인 현황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그림 3-11참조).

[표 3-1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이혼 건수	3,449	3,236	3,433	3,189	3,067	2,938	3,003	3,221	2,999	2,890
외국인과의 이혼	175	235	234	210	217	214	201	203	179	155
· 구성비	5.1	7.3	6.8	6.6	7.1	7.3	6.7	6.3	6.0	5.4
한국인남편+ 외국인아내	141	188	198	175	186	187	166	172	154	127
한국인아내+ 외국인남편	34	47	36	35	31	27	35	31	25	2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그림 3-11]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3)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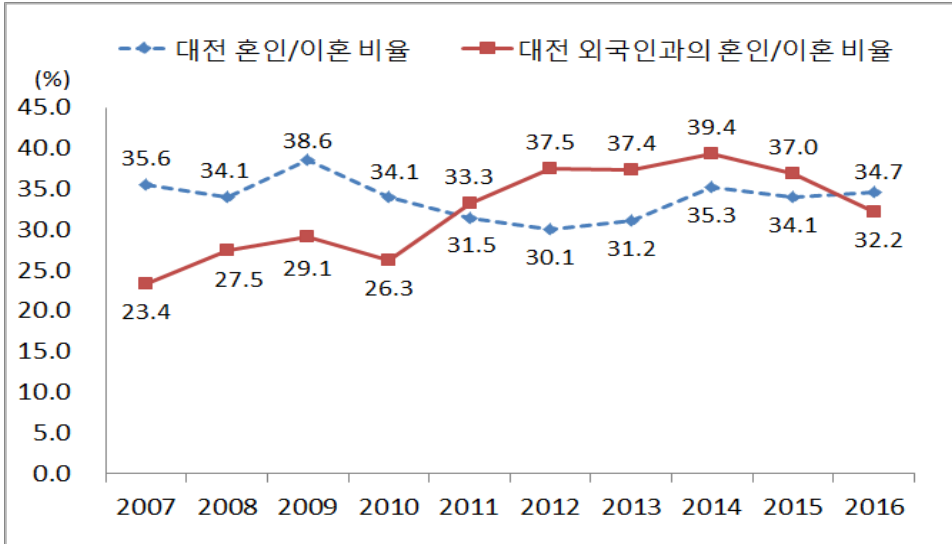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은 [표 3-13]과 같음. 2016년 현재 대전 전체 혼인/이혼 비율은 34.7%,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은 32.2%로 두 집단의 혼인/이혼 비율의 큰 차이가 없음. 단, 2007년 23.4%였던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은 2016년 32.2%로 크게 증가함.

[표 3-13]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 추이

(단위: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혼인 건수	9,684	9,499	8,885	9,351	9,726	9,745	9,621	9,118	8,805	8,325
이혼 건수	3,449	3,236	3,433	3,189	3,067	2,938	3,003	3,221	2,999	2,890
구성비	35.6	34.1	38.6	34.1	31.5	30.1	31.2	35.3	34.1	34.7
외국인과의 혼인	748	854	804	800	651	570	537	515	484	481
외국인과의 이혼	175	235	234	210	217	214	201	203	179	155
구성비	23.4	27.5	29.1	26.3	33.3	37.5	37.4	39.4	37.0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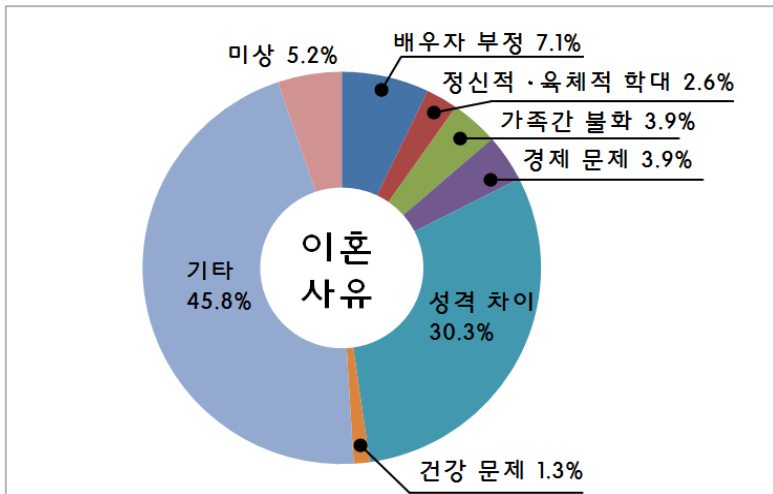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그림 3-12] 지난 10년간 대전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비율 추이

4)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과의 이혼의 사유는 [그림 3-13]과 같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30.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부정(7.1%), 정신적·육체적 학대(2.6%), 가족간 불화(3.9%), 경제문제(3.9%), 건강 문제 1.3% 순임.



[그림 3-13] 2016년 대전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2절. 다문화가족 자녀

1. 대전시, 구별, 동별 다문화가족 자녀

1)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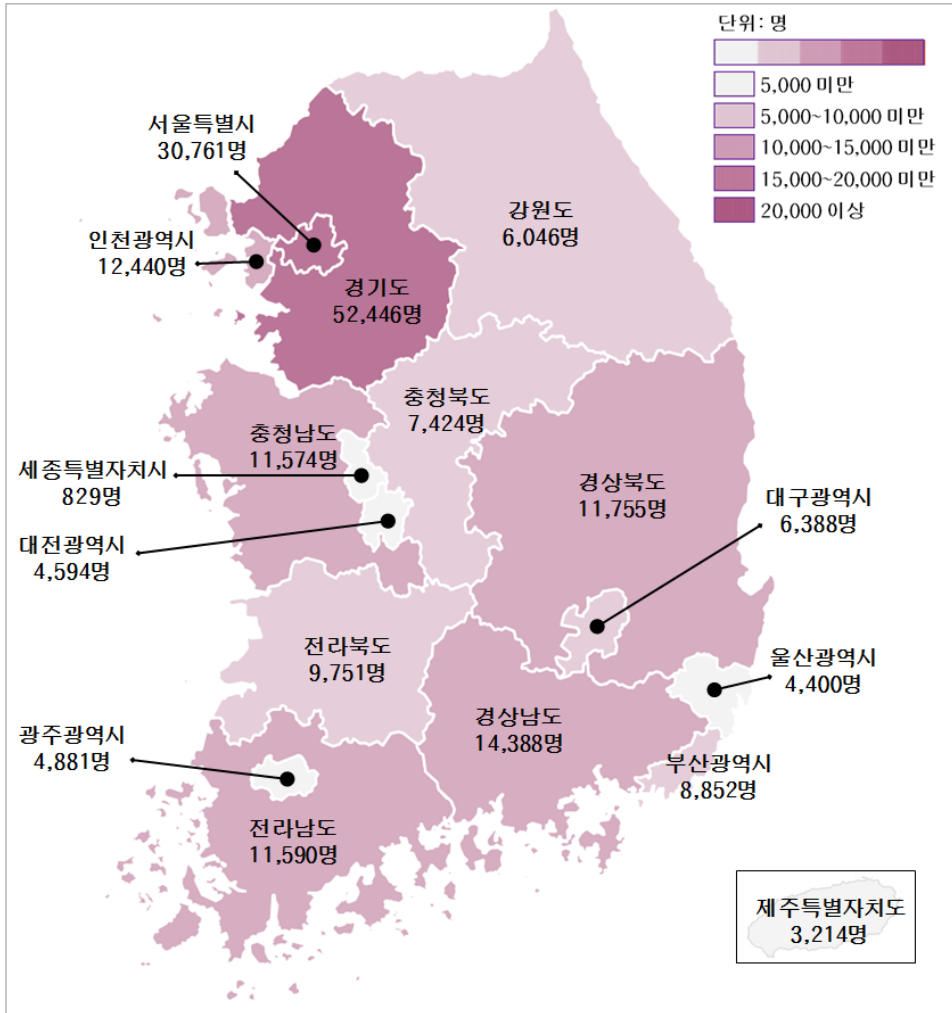
- 2016년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이하)는 4,594명임. 국내출생 자녀는 4,431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63명으로 국내출생 자녀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표 3-14참조).

[표 3-14]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서울특별시	30,761	15,495	15,266	2,666	1,286	1,380	28,095	14,209	13,886
부산광역시	8,852	4,533	4,319	329	166	163	8,523	4,367	4,156
대구광역시	6,388	3,193	3,195	239	122	117	6,149	3,071	3,078
인천광역시	12,440	6,404	6,036	758	391	367	11,682	6,013	5,669
광주광역시	4,881	2,560	2,321	123	60	63	4,758	2,500	2,258
대전광역시	4,594	2,350	2,244	163	72	91	4,431	2,278	2,153
울산광역시	4,400	2,249	2,151	148	70	78	4,252	2,179	2,073
세종특별자치시	829	425	404	35	14	21	794	411	383
경기도	52,446	26,747	25,699	3,312	1,578	1,734	49,134	25,169	23,965
강원도	6,046	3,136	2,910	162	76	86	5,884	3,060	2,824
충청북도	7,424	3,766	3,658	257	109	148	7,167	3,657	3,510
충청남도	11,574	5,912	5,662	397	191	206	11,177	5,721	5,456
전라북도	9,751	5,107	4,644	264	102	162	9,487	5,005	4,482
전라남도	11,590	5,931	5,659	258	113	145	11,332	5,818	5,514
경상북도	11,755	6,033	5,722	289	130	159	11,466	5,903	5,563
경상남도	14,388	7,449	6,939	354	141	213	14,034	7,308	6,726
제주특별자치도	3,214	1,671	1,543	120	62	58	3,094	1,609	1,485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14]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의 다문화가족 자녀 인구를 17개 시도 다문화가족 자녀 인구와 비교하면 14번째 인구를 차지함.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24명이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6년 4,594명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증가폭은 2011년 이후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3-15)참조).

[표 3-15]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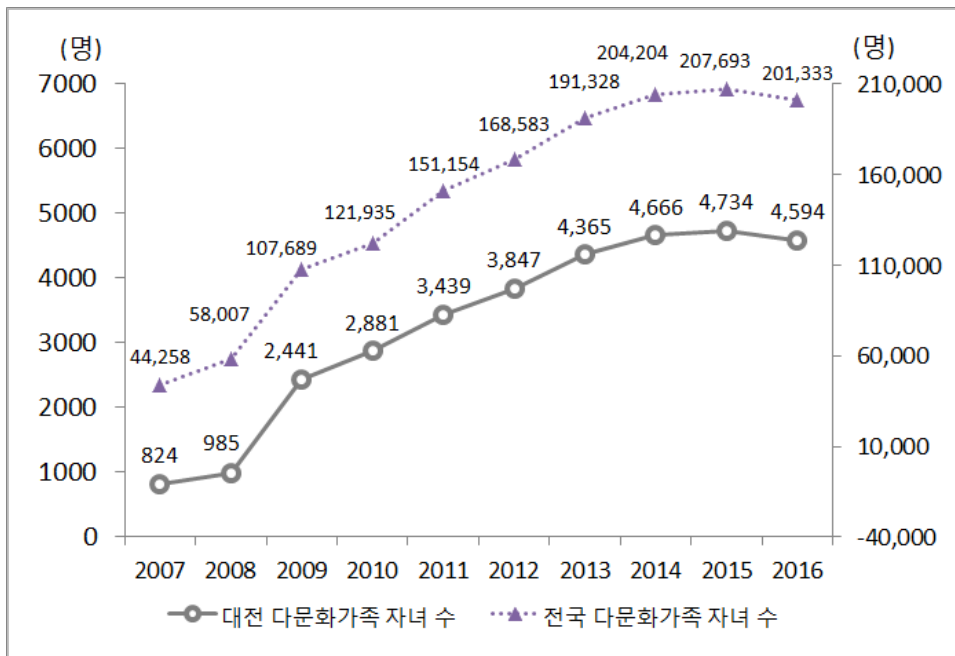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	전체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734	4,594
	증감율	-	19.5	147.8	18.0	19.4	11.9	13.5	6.9	1.5	-3.0
	남아	422	525	1,110	1,518	1,806	1,990	2,264	2,440	2,473	2,350
	여아	402	460	1,331	1,363	1,633	1,857	2,101	2,226	2,261	2,244
전국	전체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7,693	201,333
	증감율	-	31.1	85.6	13.2	24.0	11.5	13.5	6.7	1.7	-3.1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주: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3-15]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주: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2)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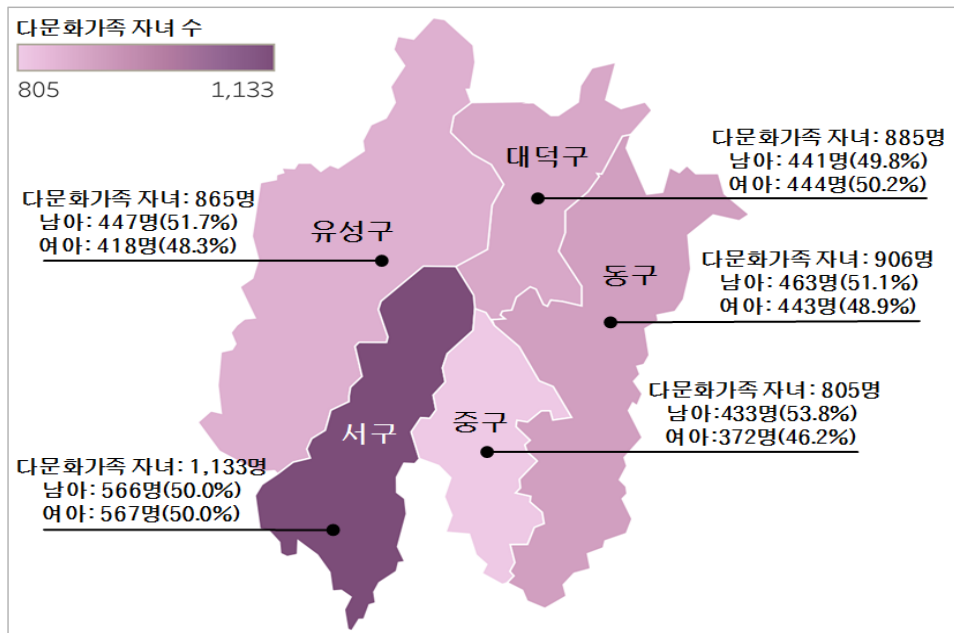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1,1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906명, 대덕구 885명, 유성구 865명, 중구 805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6]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 가족 자녀 수

(단위: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아	여아	계	남아	여아	계	남아	여아
전체	4,594	2,350	2,244	163	72	91	4,431	2,278	2,153
동구	906(19.7)	463(19.7)	443(19.7)	39(23.9)	13(18.1)	26(28.6)	867(19.6)	450(19.8)	417(19.4)
중구	805(17.5)	433(18.4)	372(16.6)	25(15.3)	10(13.9)	15(16.5)	780(17.6)	423(18.6)	357(16.6)
서구	1,133(24.7)	566(24.1)	567(25.3)	40(24.5)	19(26.4)	21(23.1)	1,093(24.7)	547(24.0)	546(25.4)
유성구	865(18.8)	447(19.0)	418(18.6)	30(18.4)	20(27.8)	10(11.0)	835(18.8)	427(18.7)	408(19.0)
대덕구	885(19.3)	441(18.8)	444(19.8)	29(17.8)	10(13.9)	19(20.9)	856(19.3)	431(18.9)	425(19.7)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16] 2016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자치구 별로 다문화가족 자녀수의 큰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그림 3-1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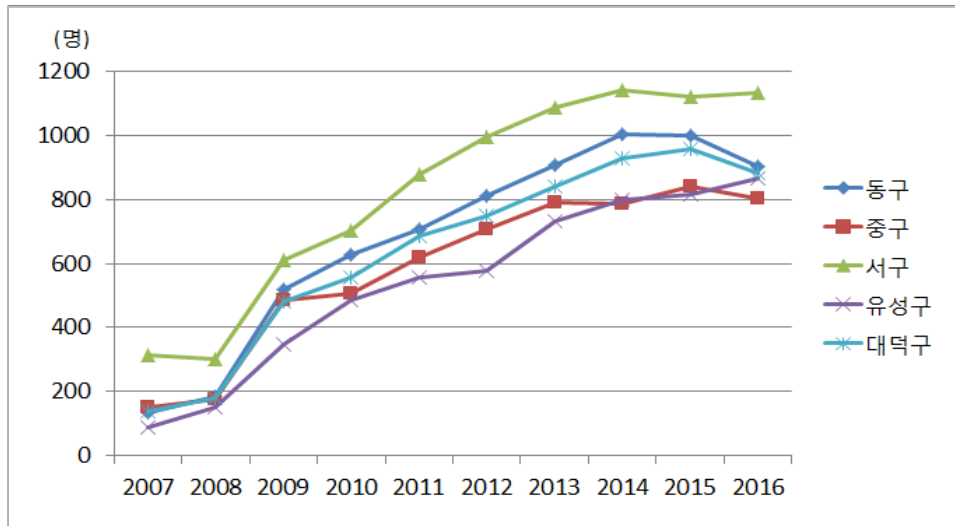
[표 3-1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734	4,594
증감율	-	19.5	147.8	18.0	19.4	11.9	13.5	6.9	1.5	-3.0
동구	135	184	519	626	705	813	909	1,006	1,000	906
증감율	-	36.3	182.1	20.6	12.6	15.3	11.8	10.7	-0.6	-9.4
중구	148	175	483	508	617	708	792	787	840	805
증감율	-	18.2	176.0	5.2	21.5	14.7	11.9	-0.6	6.7	-4.2
서구	315	299	610	704	877	998	1,087	1,142	1,120	1,133
증감율	-	-5.1	104.0	15.4	24.6	13.8	8.9	5.1	-1.9	1.2
유성구	87	149	348	485	555	577	734	800	815	865
증감율	-	71.3	133.6	39.4	14.4	4.0	27.2	9.0	1.9	6.1
대덕구	139	178	481	558	685	751	843	931	959	885
증감율	-	28.1	170.2	16.0	22.8	9.6	12.3	10.4	3.0	-7.7

주: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17] 지난 10년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 가족 자녀수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3) 동별

- 대전광역시 동별 다문화 가족 자녀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8]과 같음.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 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으로 89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148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95명, 유성구는 구즉동으로 125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125명으로 나타남([표 3-18]참조).

[표 3-18]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 자녀수 현황

(단위: 명)

연번	동명	다문화 자녀	연번	동명	다문화 자녀	연번	동명	다문화 자녀	연번	동명	다문화 자녀
1	동구	867	22	대흥동	19	43	탄방동	52	64	전민동	48
2	효동	73	23	문창동	32	44	둔산1동	10	65	노은1동	52
3	판암1동	22	24	석교동	86	45	둔산2동	32	66	구즉동	125
4	판암2동	47	25	대사동	16	46	괴정동	53	67	관평동	72
5	용운동	67	26	부사동	30	47	가장동	33	68	온천1동	102
6	자양동	42	27	용두동	23	48	내동	47	69	원신흥동	84
7	가양1동	80	28	오류동	27	49	갈마1동	53	70	노은2동	35
8	가양2동	89	29	태평1동	37	50	갈마2동	54	71	노은3동	75
9	용전동	55	30	태평2동	53	51	월평1동	37	72	대덕구	856
10	홍도동	51	31	유천1동	18	52	월평2동	41	73	오정동	91
11	대청동	***	32	유천2동	49	53	월평3동	24	74	대화동	84
12	산내동	71	33	문화1동	43	54	만년동	32	75	회덕동	96
13	중앙동	33	34	문화2동	58	55	가수원동	94	76	비래동	55
14	신인동	48	35	산성동	148	56	기성동	9	77	증리동	87
15	대동	46	36	서구	1,093	57	관저1동	29	78	법1동	69
16	성남동	57	37	복수동	51	58	관저2동	67	79	법2동	41
17	삼성동	82	38	도마1동	95	59	둔산3동	23	80	신탄진동	61
18	중구	780	39	도마2동	71	60	유성구	835	81	석봉동	50
19	은행선화동	67	40	정림동	47	61	진잠동	106	82	덕암동	125
20	목동	20	41	변동	79	62	온천2동	82	83	목상동	41
21	중촌동	54	42	용문동	60	63	신성동	54	84	송촌동	56

주: 귀화자녀 163명은 동별 통계가 미존재, 국내출신 자녀 4,431명의 동별 통계만을 활용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2. 대전지역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 대전시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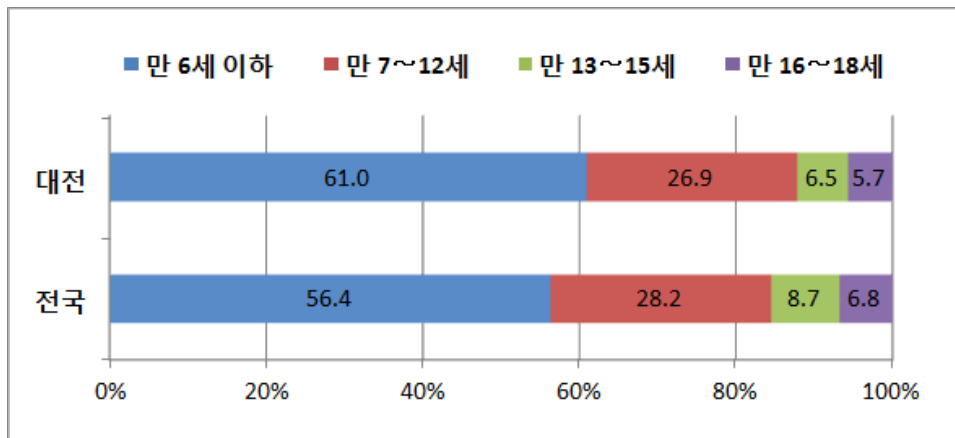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61.0%(2,801명)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령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3-19)참조).

[표 3-19]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대전	전체	4,594 (100.0)	2,801 (61.0)	1,234 (26.9)	299 (6.5)	260 (5.7)
	남아	2,350 (100.0)	1,422 (60.5)	637 (27.1)	162 (6.9)	129 (5.5)
	여아	2,244 (100.0)	1,379 (61.5)	597 (26.6)	137 (6.1)	131 (5.8)
전국	201,333 (100.0)	113,506 (56.4)	56,768 (28.2)	17,453 (8.7)	13,606 (6.8)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19]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 구간별로 인원수가 크게 증가함(표 3-2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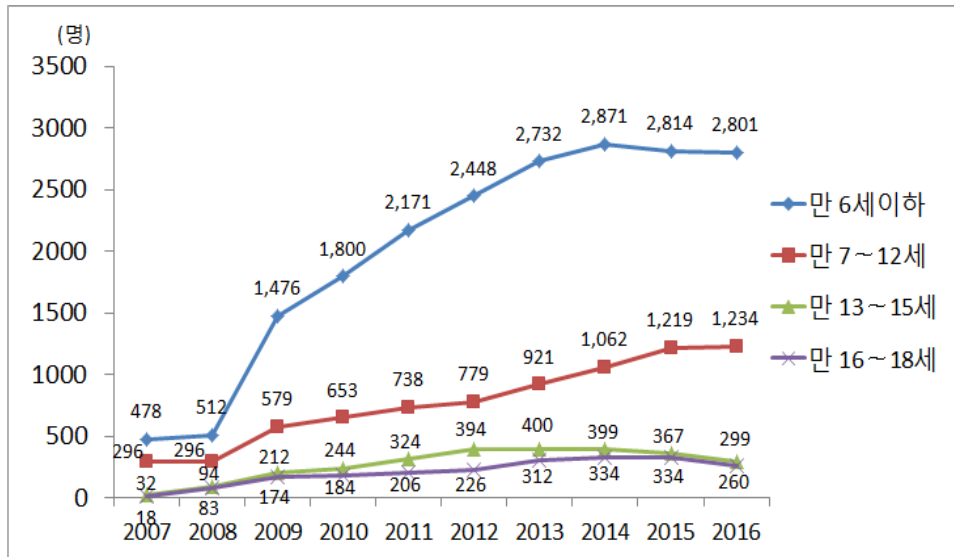
[표 3-20]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	824 (100.0)	985 (100.0)	2,441 (100.0)	2,881 (100.0)	3,439 (100.0)	3,847 (100.0)	4,365 (100.0)	4,666 (100.0)	4,734 (100.0)	4,594 (100.0)
증감율	-	19.5	147.8	18.0	19.4	11.9	13.5	6.9	1.5	-3.0
만 6세 이하 (%)	478 (58.0)	512 (52.0)	1,476 (60.5)	1,800 (62.5)	2,171 (63.1)	2,448 (63.6)	2,732 (62.6)	2,871 (61.5)	2,814 (59.4)	2,801 (61.0)
증감율	-	7.1	188.3	22.0	20.6	12.8	11.6	5.1	-2.0	-0.5
만 7~12세 (%)	296 (35.9)	296 (30.1)	579 (23.7)	653 (22.7)	738 (21.5)	779 (20.2)	921 (21.1)	1,062 (22.8)	1,219 (25.7)	1,234 (26.9)
증감율	-	0.0	95.6	12.8	13.0	5.6	18.2	15.3	14.8	-1.2
만 13~15세 (%)	32 (3.9)	94 (9.5)	212 (8.7)	244 (8.5)	324 (9.4)	394 (10.2)	400 (9.2)	399 (8.6)	367 (7.8)	299 (6.5)
증감율	-	193.8	125.5	15.1	32.8	21.6	1.5	-0.2	-8.0	-18.5
만 16~18세 (%)	18 (2.2)	83 (8.4)	174 (7.1)	184 (6.4)	206 (6.0)	226 (5.9)	312 (7.1)	334 (7.2)	334 (7.1)	260 (5.7)
증감율	-	361.1	109.6	5.7	12.0	9.7	38.1	7.1	0.0	-22.2

주: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그림 3-20]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2) 기초자치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가 기초자치구별로 모두 60% 내외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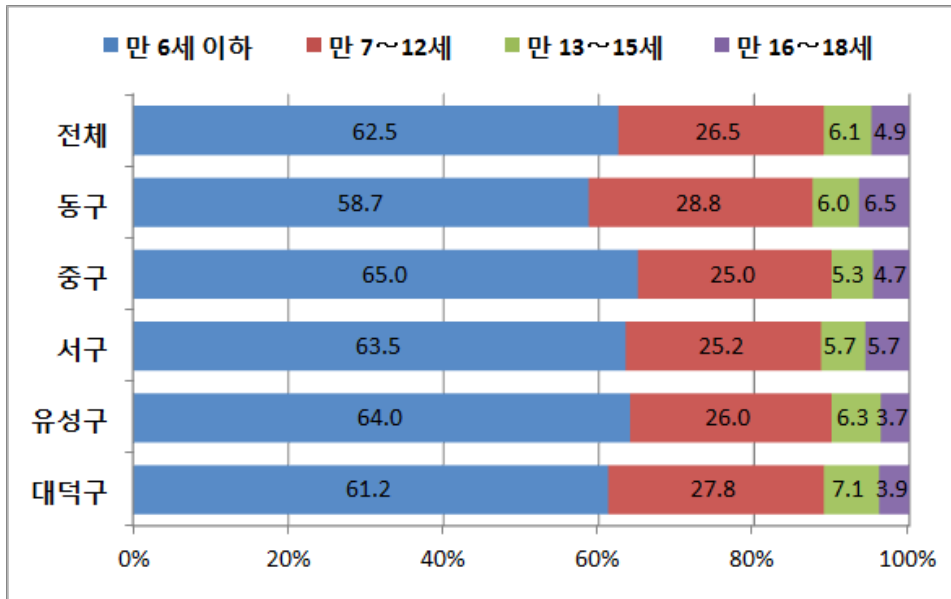
[표 3-2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전체	4,431 (100.0)	2,768 (62.5)	1,175 (26.5)	269 (6.1)	219 (4.9)
동구	867 (100.0)	509 (58.7)	250 (28.8)	52 (6.0)	56 (6.5)
중구	780 (100.0)	507 (65.0)	195 (25.0)	41 (5.3)	37 (4.7)
서구	1,093 (100.0)	694 (63.5)	275 (25.2)	62 (5.7)	62 (5.7)
유성구	835 (100.0)	534 (64.0)	217 (26.0)	53 (6.3)	31 (3.7)
대덕구	856 (100.0)	524 (61.2)	238 (27.8)	61 (7.1)	33 (3.9)

주: 1) 기초자치구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통계가 미비해 대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163명 합산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1]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3.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1)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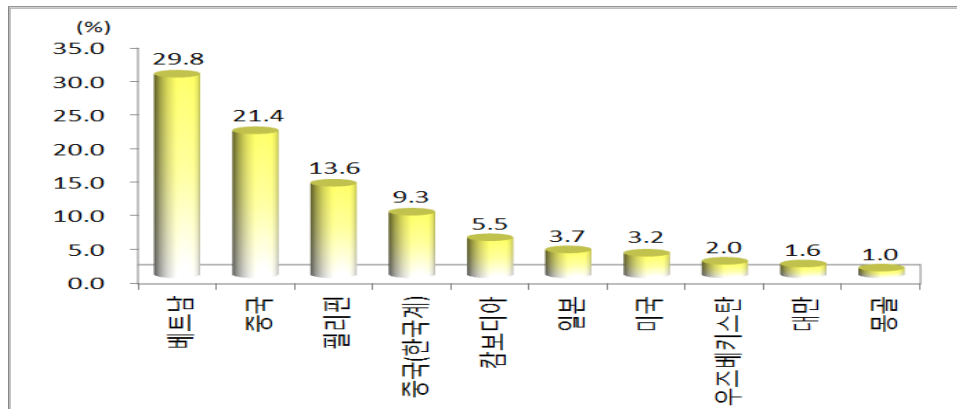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이 2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1.4%), 필리핀(13.6%) 순임.

[표 3-22]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전국			대전		
	순위	국가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순위	국가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1	전체	201,333 (100.0)	1	전체	4,594 (100.0)
	2	베트남	56,468 (28.0)	2	베트남	1,367 (29.8)
	3	중국	37,963 (18.9)	3	중국	981 (21.4)
	4	중국(한국계)	36,610 (18.2)	4	필리핀	627 (13.6)
	5	필리핀	20,146 (10.0)	5	중국(한국계)	429 (9.3)
	6	일본	9,485 (4.7)	6	캄보디아	253 (5.5)
	7	캄보디아	6,909 (3.4)	7	일본	171 (3.7)
	8	미국	5,874 (2.9)	8	미국	147 (3.2)
	9	몽골	2,719 (1.4)	9	우즈베키스탄	92 (2.0)
	10	우즈베키스탄	2,581 (1.3)	10	대만	75 (1.6)
	11	태국	2,543 (1.3)	11	몽골	46 (1.0)
	12	대만	2,522 (1.3)			
	13	캐나다	2,128 (1.1)			

주: 1) 기존 외국인주민합계(26,656명)에서 제외된 대전 귀화 자녀 163명도 합산.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2]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표 3-23]과 같음.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가 2007년 10.1%에서 2016년 29.8%로 매우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임.

[표 3-23]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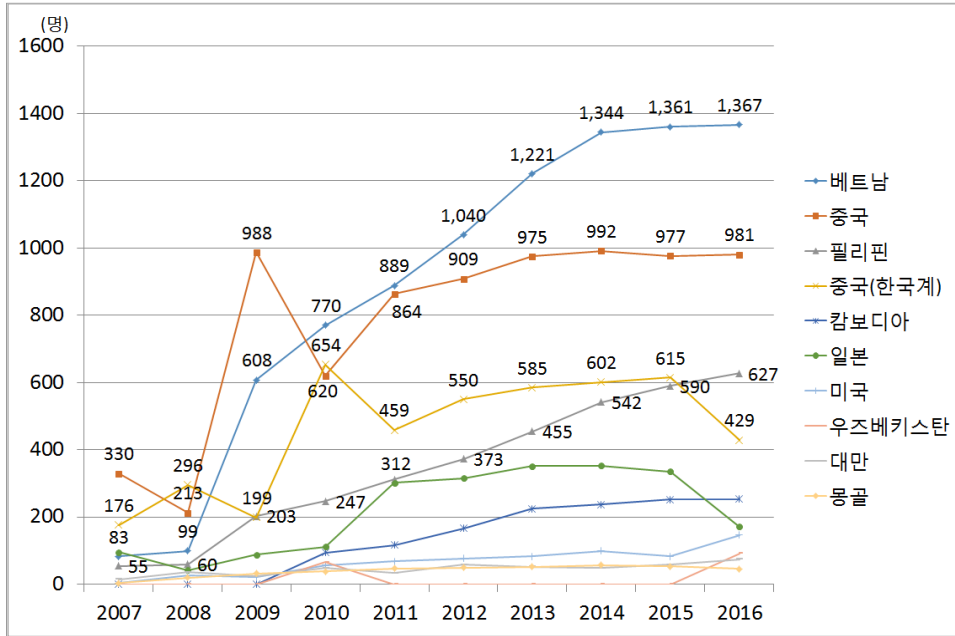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824 (100.0)	985 (100.0)	2441 (100.0)	2,881 (100.0)	3439 (100.0)	3,847 (100.0)	4,365 (100.0)	4,666 (100.0)	4,734 (100.0)	4,594 (100.0)
베트남	83 (10.1)	99 (10.1)	608 (24.9)	770 (26.7)	889 (25.9)	1,040 (27.0)	1,221 (28.0)	1,344 (28.8)	1,361 (28.7)	1,367 (29.8)
중국	330 (40.0)	213 (21.6)	988 (40.5)	620 (21.5)	864 (25.1)	909 (23.6)	975 (22.3)	992 (21.3)	977 (20.6)	981 (21.4)
필리핀	55 (6.7)	60 (6.1)	203 (8.3)	247 (8.6)	312 (9.1)	373 (9.7)	455 (10.4)	542 (11.6)	590 (12.5)	627 (13.6)
중국(한국계)	176 (21.4)	296 (30.1)	199 (8.2)	654 (22.7)	459 (13.3)	550 (14.3)	585 (13.4)	602 (12.9)	615 (13.0)	429 (9.3)
캄보디아	- (-)	- (-)	- (-)	95 (3.3)	117 (3.4)	167 (4.3)	225 (5.2)	238 (5.1)	252 (5.3)	253 (5.5)
일본	96 (11.7)	42 (4.3)	88 (3.6)	112 (3.9)	302 (8.8)	316 (8.2)	352 (8.1)	353 (7.6)	335 (7.1)	171 (3.7)
미국	4 (0.5)	26 (2.6)	22 (0.9)	57 (2.0)	69 (2.0)	77 (2.0)	83 (1.9)	100 (2.1)	83 (1.8)	147 (3.2)
우즈베키스탄	- (-)	- (-)	- (-)	66 (2.3)	- (-)	- (-)	- (-)	- (-)	- (-)	92 (2.0)
대만	15 (1.8)	36 (3.7)	24 (1.0)	48 (1.7)	34 (1.0)	58 (1.5)	52 (1.2)	49 (1.1)	58 (1.2)	75 (1.6)
몽골	4 (0.5)	20 (2.0)	33 (1.4)	39 (1.4)	47 (1.4)	50 (1.3)	52 (1.2)	57 (1.2)	53 (1.1)	46 (1.0)

주: 1) 2009년까지 캄보디아는 기타, 우즈베키스탄은 2007~2009년, 2012~2015년 중앙아시아에 포함되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주: 2) 2016년 국적별 순위 기준으로 1.0%이상만 2007~2015년 수치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3-23] 2016년 대전 다문화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2)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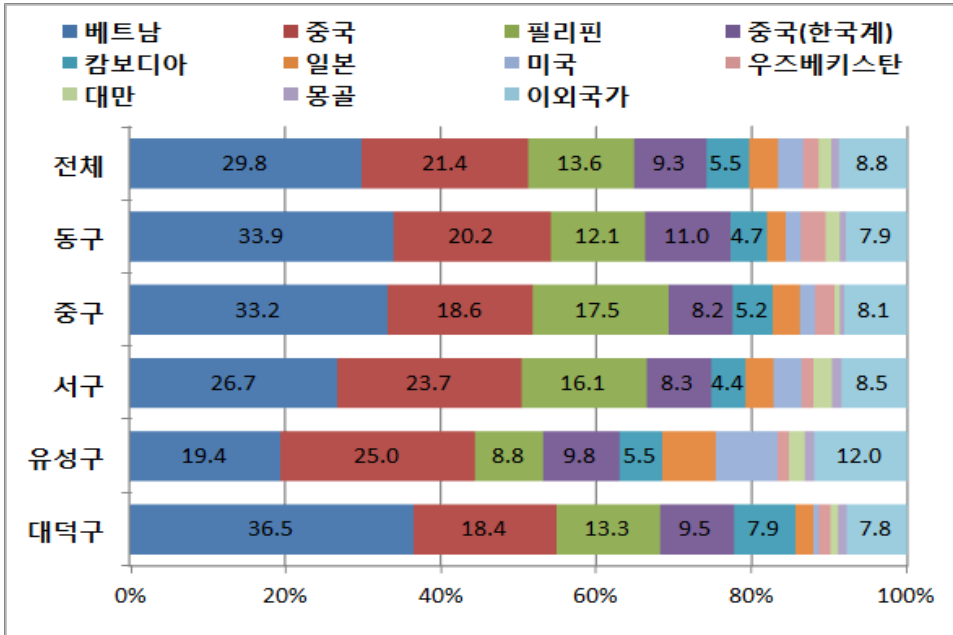
- 2016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3-24참조).
- 특징적인 것은 5개 기초자치구 모두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임.

[표 3-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국가 명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4,594 (100.0)	906 (100.0)	805 (100.0)	1,133 (100.0)	865 (100.0)	885 (100.0)
베트남	1,367 (29.8)	307 (33.9)	267 (33.2)	302 (26.7)	168 (19.4)	323 (36.5)
중국	981 (21.4)	183 (20.2)	150 (18.6)	269 (23.7)	216 (25.0)	163 (18.4)
필리핀	627 (13.6)	110 (12.1)	141 (17.5)	182 (16.1)	76 (8.8)	118 (13.3)
중국(한국계)	429 (9.3)	100 (11.0)	66 (8.2)	94 (8.3)	85 (9.8)	84 (9.5)
캄보디아	253 (5.5)	43 (4.7)	42 (5.2)	50 (4.4)	48 (5.5)	70 (7.9)
일본	171 (3.7)	22 (2.4)	28 (3.5)	41 (3.6)	60 (6.9)	20 (2.3)
미국	147 (3.2)	17 (1.9)	15 (1.9)	41 (3.6)	68 (7.9)	6 (0.7)
우즈베키스탄	92 (2.0)	29 (3.2)	20 (2.5)	17 (1.5)	13 (1.5)	13 (1.5)
대만	75 (1.6)	16 (1.8)	6 (0.7)	27 (2.4)	17 (2.0)	9 (1.0)
몽골	46 (1.0)	7 (0.8)	5 (0.6)	14 (1.2)	10 (1.2)	10 (1.1)
이외국가	406 (8.8)	72 (7.9)	65 (8.1)	96 (8.5)	104 (12.0)	69 (7.8)

주: 1) 전체 국적별 10순위 기준으로 자치구의 국적별 다문화자녀 비율 1.0%이상만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4]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주: 1)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대만, 몽골은 비율 수치 생략.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3절. 다문화가족

1. 대전시, 구별, 동별 다문화가족

1) 대전시

- 2016년 대전지역 다문화가구는 6,116가구로 구성원은 총 20,405명(한국인 배우자 6,988명, 결혼이주민 5,729명, 자녀 4,557명 등)임.

[표 3-25]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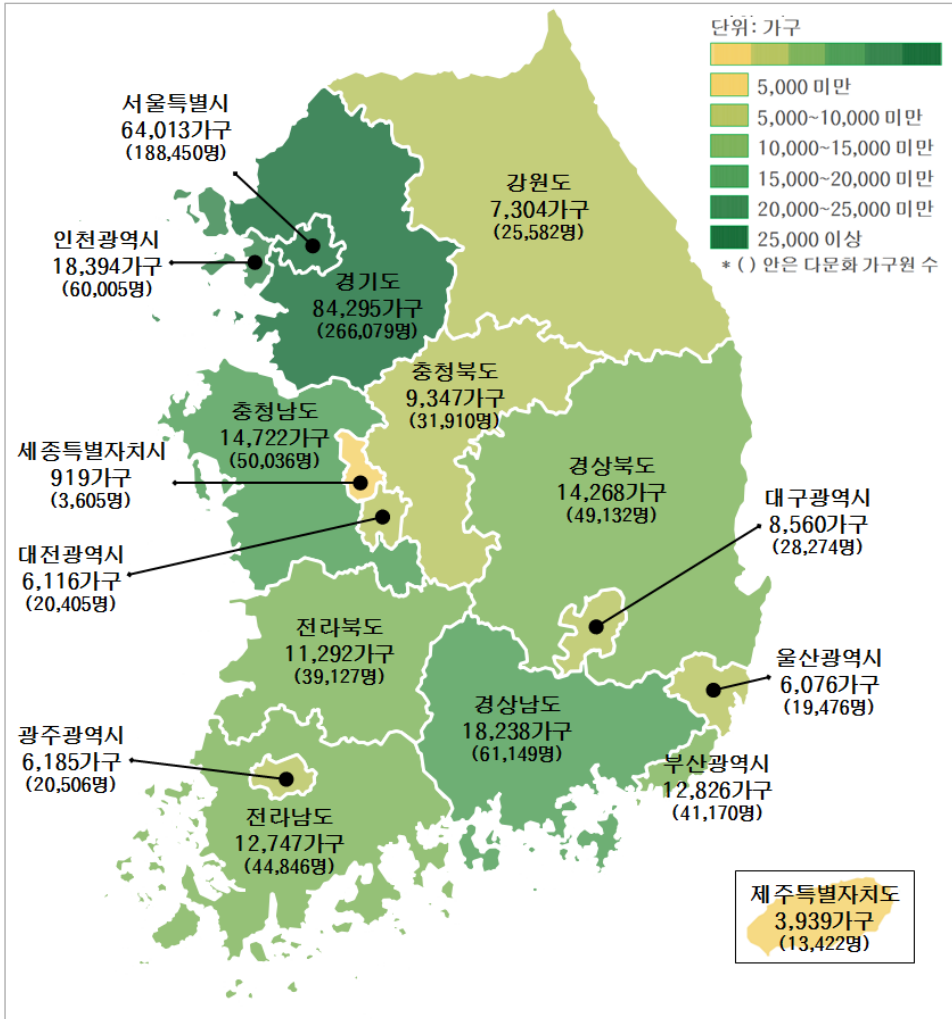
구분	총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주민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국적 미취득	국적 취득	소계	귀화 / 외국국 적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전국	299,241	963,174	298,858	309,622	158,620	151,002	199,161	9,750	189,411	155,533	106,781	48,752
서울	64,013	188,450	49,811	71,406	32,988	38,418	30,587	2,655	27,932	36,646	19,747	16,899
부산	12,826	41,170	14,701	11,563	6,643	4,920	8,768	325	8,443	6,138	5,174	964
대구	8,560	28,274	9,725	8,151	4,725	3,426	6,324	238	6,086	4,074	3,331	743
인천	18,394	60,005	17,752	20,290	9,830	10,460	12,358	754	11,604	9,605	6,663	2,942
광주	6,185	20,506	6,523	5,880	3,281	2,599	4,841	122	4,719	3,262	2,615	647
대전	6,116	20,405	6,988	5,729	3,329	2,400	4,557	162	4,395	3,131	2,642	489
울산	6,076	19,476	6,155	6,084	3,313	2,771	4,373	146	4,227	2,864	2,122	742
세종	919	3,605	1,215	1,017	594	423	814	35	779	559	452	107
경기도	84,295	266,079	76,551	92,775	46,064	46,711	52,150	3,287	48,863	44,603	28,249	16,354
강원도	7,304	25,582	9,399	6,608	3,532	3,076	5,933	159	5,774	3,642	3,151	491
충북	9,347	31,910	10,906	9,171	4,792	4,379	7,252	227	7,025	4,581	3,581	1,000
충남	14,722	50,036	16,768	14,448	7,953	6,495	11,408	386	11,022	7,412	5,573	1,839
전북	11,292	39,127	13,622	10,340	5,748	4,592	9,558	257	9,301	5,607	4,627	980
전남	12,747	44,846	15,958	11,534	6,629	4,905	11,286	248	11,038	6,068	5,009	1,059
경북	14,268	49,132	17,585	13,327	7,420	5,907	11,545	284	11,261	6,675	5,434	1,241
경남	18,238	61,149	20,501	17,600	9,508	8,092	14,213	347	13,866	8,835	6,946	1,889
제주	3,939	13,422	4,698	3,699	2,271	1,428	3,194	118	3,076	1,831	1,465	366

주1):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다른 결혼이주민, 자녀 표 수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

주2): (기타동거인)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의 다문화가구 수를 17개시도 다문화가구 수와 비교하면 14번째를 차지함. 대전의 다문화가구원 수를 17개시도 다문화 가구원 수와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수와 마찬가지로 14번째 인구를 차지.



[그림 3-25] 2016년 전국 다문화가구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의 다문화가구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가 3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 28.1%, 자녀 22.3%, 기타동거인 15.3%를 차지함(표 3-26 참조).

[표 3-26]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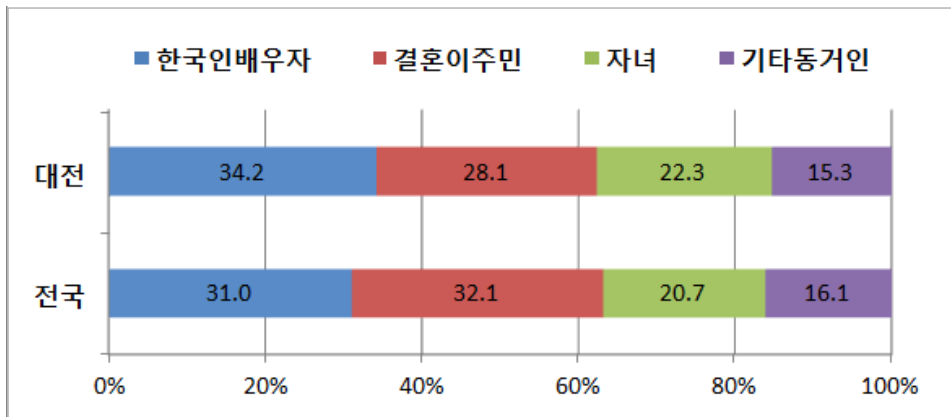
(단위: %)

행정구역	다문화 가구원	한국인배우자	결혼이주민	자녀	기타동거인
전국	100.0	31.0	32.1	20.7	16.1
서울특별시	100.0	26.4	37.9	16.2	19.4
부산광역시	100.0	35.7	28.1	21.3	14.9
대구광역시	100.0	34.4	28.8	22.4	14.4
인천광역시	100.0	29.6	33.8	20.6	16.0
광주광역시	100.0	31.8	28.7	23.6	15.9
대전광역시	100.0	34.2	28.1	22.3	15.3
울산광역시	100.0	31.6	31.2	22.5	14.7
세종특별자치시	100.0	33.7	28.2	22.6	15.5
경기도	100.0	28.8	34.9	19.6	16.8
강원도	100.0	36.7	25.8	23.2	14.2
충청북도	100.0	34.2	28.7	22.7	14.4
충청남도	100.0	33.5	28.9	22.8	14.8
전라북도	100.0	34.8	26.4	24.4	14.3
전라남도	100.0	35.6	25.7	25.2	13.5
경상북도	100.0	35.8	27.1	23.5	13.6
경상남도	100.0	33.5	28.8	23.2	14.4
제주특별자치도	100.0	35.0	27.6	23.8	13.6

주1):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다른 결혼이주민, 자녀 표 수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

주2): (기타동거인)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6]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원 유형별 분포

○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대전의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2009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수가 62.4% 증가하여, 큰 증가폭을 보임([표 3-27]참조).

[표 3-27] 2009 ~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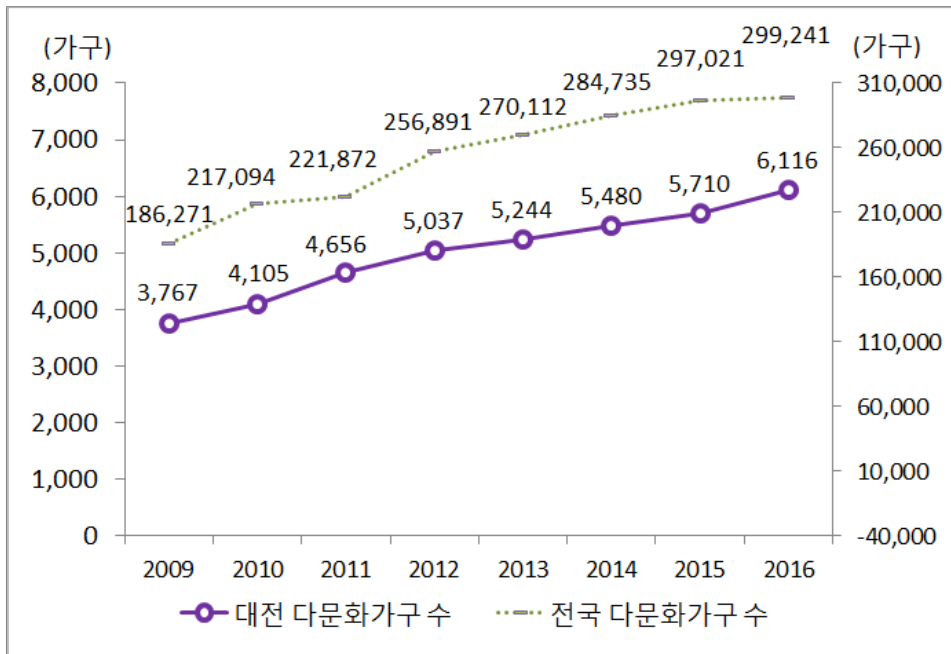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	3,767	4,105	4,656	5,037	5,244	5,480	5,710	6,116
증감률	-	9.0	13.4	8.2	4.1	4.5	4.2	7.1
전국	186,271	217,094	221,872	256,891	270,112	284,735	297,021	299,241
증감률	-	16.5	2.2	15.8	5.1	5.4	4.3	0.7

주: 1) 행정안전부 통계에 2009년부터 다문화가구 수 산출되어 2009년부터 기재.

주: 2)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그림 3-27] 2009 ~ 2016년 대전 다문화가구 수 추이

2)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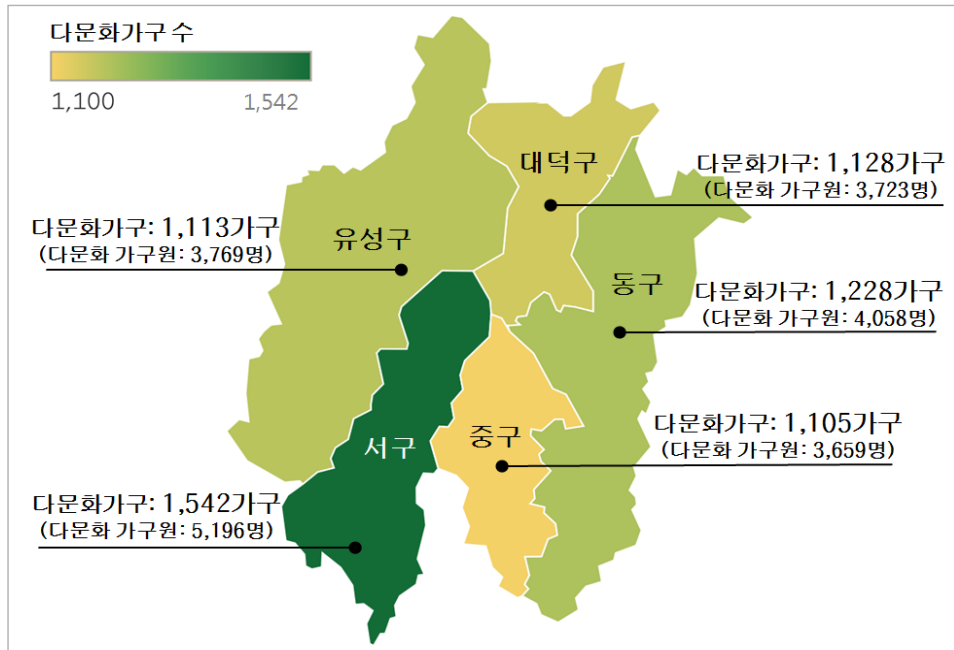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다문화 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임.

[표 3-2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문화 가구	6,116 (100.0)	1,228 (20.1)	1,105 (18.1)	1,542 (25.2)	1,113 (18.2)	1,128 (18.4)
다문화가 구원	20,405 (100.0)	4,058 (19.9)	3,659 (17.9)	5,196 (25.5)	3,769 (18.5)	3,723 (18.2)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8]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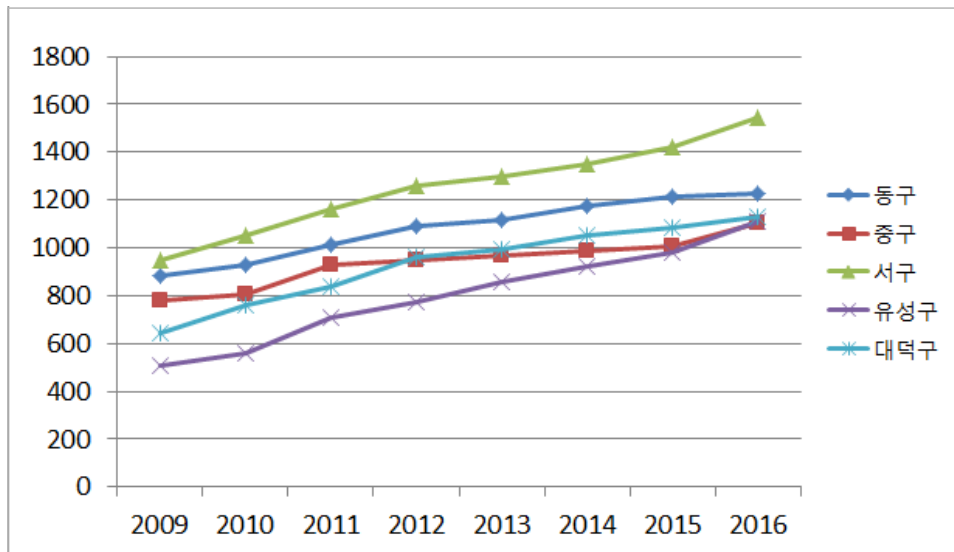
-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2009년 500 ~ 1,000가구 내외였던 기초자치구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6년 현재 1,100 ~ 1,600가구 내외로 증가함.

[표 3-29] 2009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767	4,105	4,656	5,037	5,244	5,480	5,710	6,116
증감률	-	9.0	13.4	8.2	4.1	4.5	4.2	7.1
동구	882	931	1,016	1,091	1,119	1,174	1,214	1,228
증감률	-	5.6	9.1	7.4	2.6	4.9	3.4	1.2
중구	782	803	931	947	969	985	1,008	1,105
증감률	-	2.7	15.9	1.7	2.3	1.7	2.3	9.6
서구	950	1,052	1,161	1,259	1,301	1,348	1,423	1,542
증감률	-	10.7	10.4	8.4	3.3	3.6	5.6	8.4
유성구	507	560	711	776	860	922	979	1,113
증감률	-	10.5	27.0	9.1	10.8	7.2	6.2	13.7
대덕구	646	759	837	964	995	1,051	1,086	1,128
증감률	-	17.5	10.3	15.2	3.2	5.6	3.3	3.9

주: 행정안전부 통계에 2009년부터 다문화가구 수 산출되어 2009년부터 기재.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그림 3-29] 2009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구 수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3) 동별

- 대전광역시 동별 다문화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표 3-30]과 같음.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가구원 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으로 406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564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390명, 유성구는 구즉동으로 626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491명으로 나타남([표 3-30]참조).

[표 3-30]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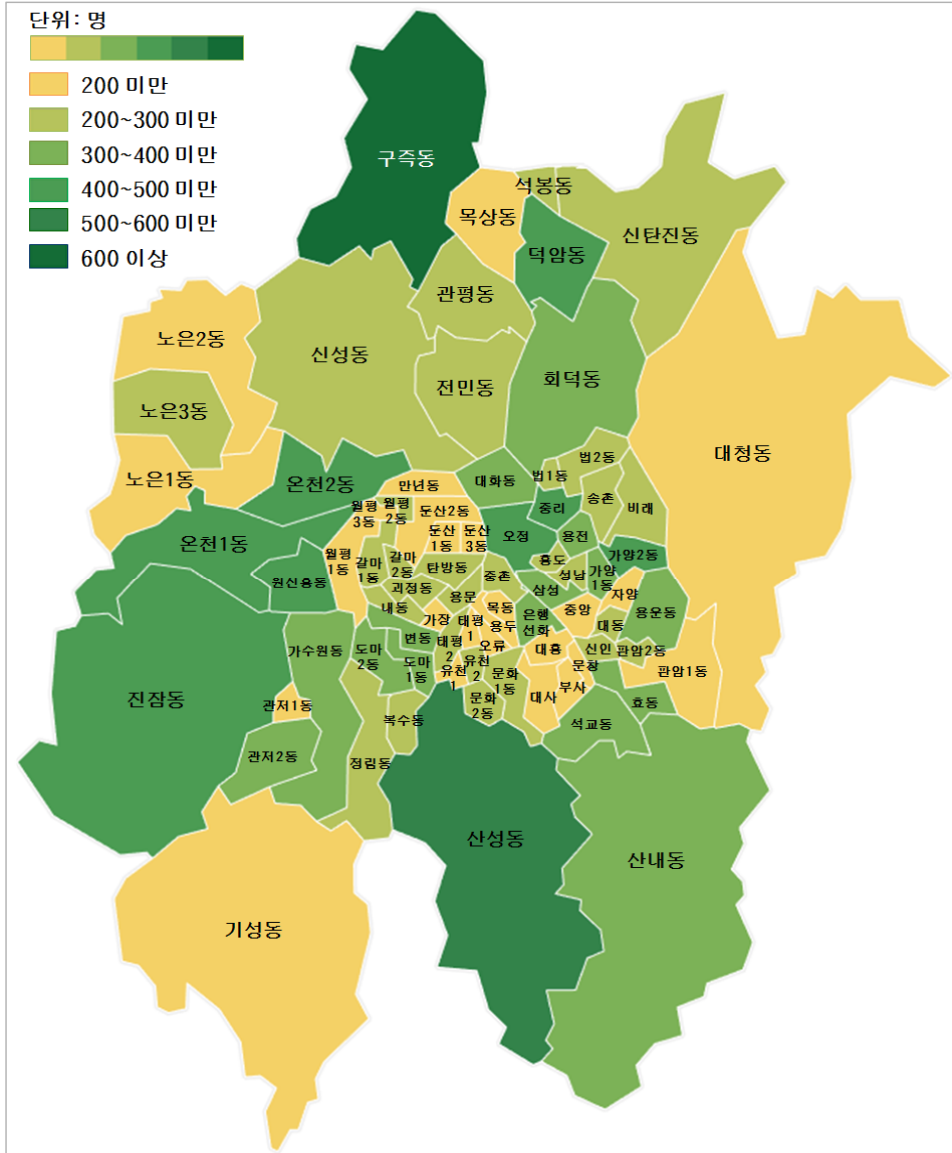
(단위: 명)

연번	읍면동	다문화 가구원 수	연번	읍면동	다문화 가구원 수	연번	읍면동	다문화 가구원 수	연번	읍면동	다문화 가구원수
1	동구	4,058	22	대흥동	149	43	탄방동	260	64	전민동	208
2	효동	332	23	문창동	126	44	둔산1동	65	65	노은1동	191
3	판암1동	148	24	석교동	376	45	둔산2동	189	66	구즉동	626
4	판암2동	248	25	대사동	111	46	괴정동	275	67	관평동	271
5	용운동	340	26	부사동	152	47	가장동	159	68	온천1동	484
6	자양동	191	27	용두동	117	48	내동	238	69	원신흥동	425
7	가양1동	328	28	오류동	126	49	갈마1동	268	70	노은2동	179
8	가양2동	406	29	태평1동	148	50	갈마2동	287	71	노은3동	288
9	용전동	325	30	태평2동	205	51	월평1동	189	72	대덕구	3,723
10	홍도동	232	31	유천1동	112	52	월평2동	227	73	오정동	409
11	대청동	31	32	유천2동	220	53	월평3동	102	74	대화동	326
12	산내동	309	33	문화1동	216	54	만년동	137	75	회덕동	388
13	중앙동	126	34	문화2동	262	55	가수원동	356	76	비래동	243
14	신인동	226	35	산성동	564	56	기성동	57	77	중리동	453
15	대동	216	36	서구	5,196	57	관저1동	167	78	법1동	268
16	성남동	219	37	복수동	235	58	관저2동	330	79	법2동	220
17	삼성동	381	38	도마1동	390	59	둔산3동	115	80	신탄진동	282
18	중구	3,659	39	도마2동	302	60	유성구	3,769	81	석봉동	214
19	은행선화동	351	40	정림동	229	61	진잠동	449	82	덕암동	491
20	목동	131	41	변동	353	62	온천2동	429	83	목상동	176
21	충촌동	293	42	용문동	266	63	신성동	219	84	송촌동	253

주: 1) 다문화가구는 동별로 통계가 산출되지 않아, 가구원으로 동별 통계 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 대전지역의 동별 다문화가구원 현황을 GIS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3-30]과 같음.



[그림 3-30] 2016년 대전 동별 다문화가구원 현황

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대전의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아 지도제작
 자료: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11.1.)

4절.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통계 특성

1.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 특성

- 대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할 때 규모상으로 15번째로,
- 지난 10년간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2.3배 증가했고, 증가세는 2011년 이후 주춤해 졌다.
- 자치구 가운데 서구에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다음이 동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이다.
- 지난 10년간 자치구의 결혼이주여성 추이를 보면, 동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를 동별로 보면, 동구에는 가양2동과 삼성동에, 중구는 산성동에, 서구는 도마1동에, 유성구는 구즉동, 대덕구는 덕암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특성

- 결혼이주여성은 30대가 37.3%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로 31.3%, 40대가 18.2%, 50대가 9.2%, 60대가 2.1%, 19세 이하가 1.7%, 70세 이상이 0.3%로 전국과 비교해 2,30대의 결혼이주여성이 많다.
- 구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젊은 결혼이주여성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 지역의 젊은 여성의 상당수를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32.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국 24.2%, 한국계중국인이 13.6%, 필리핀이 10.4%로 순이다.
- 지난 10년 동안 대전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이 크게 증가했고,
- 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에는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이 24.8%로 가장 높고, 동구와 중구, 서구, 그리고 대덕구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 2016년 대전지역에서 행해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481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비율이 76.1%,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비율이 23.9%이다.

□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

- 2016년 대전지역에서 행해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55건으로 전체 이혼의 5.4%를 차지하며,
- 지난 10년간 외국인과의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건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혼의 사유는 성격차가 30.3%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부정이 7.1%, 경제문제와 가족간 불화도 각각 3.9%를 보이고 있다.

2.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

-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6년 현재 4,59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는 4,431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63명으로 조사됐다.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보면, 2007년 824명에서 2016년 4,594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 자치구별로 보면, 5개구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증가했는데, 서구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다음이 동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이다.
- 동별로 보면, 동구에는 가양2동, 중구에는 산성동, 서구는 도마1동, 유성구는 구즉동, 대덕구는 덕암동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대전에는 6세 이하 학령기 이전의 다문화가족자녀가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7세부터 12세까지인 초등학교 자녀가 26.9%, 중학교 자녀가 6.5%, 고등학교 자녀가 5.7%로 나타난다.

□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9.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국 21.4%, 필리핀이 13.6%, 한국계중국인 9.3%이다.
-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와 중구, 서구와 대덕구의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높고, 유성구는 중국이 높다.
- 5개 구 모두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출신의 부모 자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가구

- 대전지역 다문화가구는 2016년 현재 6,116가구이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20,405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배우자는 6,988명, 결혼이주민 5,729명, 자녀는 4,557명이다.
- 결혼이주민 5,729명 가운데 2,400명이 국적을 취득했고, 자녀는 국내출생이 4,395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162명이다.
- 구별로 보면 서구에 다문화가구와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며, 중구가 가장 적다.
- 동별로 보면, 동구는 가양2동, 중구는 산성동, 서구는 도마1동, 유성구는 구즉동, 대덕구는 덕암동에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1절.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2절. 전문가 의견

4장

4장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인구 감소를 지역소멸의 징후로 인지하는 각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존재하는 다문화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 가운데 이들을 인구정책의 직접적 아젠다로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이중국적제도를 통해 이주민들이 언제라도 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자신들의 미래를 정박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글로벌 연결성, 그리고 한국과 출신국가간의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적 이점 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기획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족의 ‘통합’이라는 국가 기조 외에 이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역량을 강화시킬 다양한 지역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다문화센터의 전문가들이 경험하는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 다문화가족 심층면접

1. 심층면접 개요

앞장에서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를 통해 동별, 구별 다문화가족의 출신지, 지역적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대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실제적인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만나, 어떤 방식으로 이주를 했고,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이 요구되었고, 다문화가족 심층면접을 위해 대전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았다. 센터 밖의 다문화가족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두 커플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6명의 결혼이주여성은 각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다문화가족 두 커플은 직업이 다르다. 한 커플의 한국인 배우자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한 커플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는 9월 한 달 간 이뤄졌고, 장소는 일터와 거주지로 정했다. 일하는 공간과 거주지의 방문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인터뷰의 취지 및 인터뷰참여자의 권리가 적혀진 ‘인터뷰동의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참여자들은 인터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실했다. 처음에 머뭇거렸던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상황과 요구를 피력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표 4-1] 심층면접자 개요

	출신국	나이	결혼		자녀	한국 에서 교육	배우자			직업
			연도	방법			나이	직업	결혼	
A	우즈베 키스탄	35	2003	중개 업	아들 13세 딸 11세	대학교 가고 싶음	49	회사 원	초혼	다문화 센터 통역
B	몽골	40	2012 (2008) 유학	친구 소개	아들 6세 남녀 쌍둥이 3세	석사 졸업	34	회사 원	초혼	다문화 센터 통역
C	필리핀	30	2007	중개 업	딸 10세(2명)	야간대 졸업	48	경비	재혼	다문화 센터 통역
D	베트남	31	2007	친구 소개	딸11세 아들9세	사이버 대 졸업 예정	48	회사 원	초혼	다문화 센터 통역
E	베트남	34	2005	친척 소개	딸13세 아들12세	야간대 재학중	48	버스 운전 원	초혼	다문화 센터 통역
F	캄보디 아	33	2011	중개 업	딸 7세(2명)	대학재 학중	46	환경 미화 원	재혼	다문화 센터 통역

	출신국		나이	결혼		자녀	한국 에서 교육	배우자			직업
				연도	방법			나이	직업	결혼	
G	키프	베트남	25	2012	친척 소개	아들 5세	-	44	세탁 소	초혼	공장
H		한국인	44	2012	친척 소개	아들5세	-	25	공장	초혼	세탁소
I	키프	베트남	37	2014 (2007)	연애	임신중	-	57	자영 업	재혼	자영업
J		한국인	57	2014 (2007)	연애	임신중	-	37	자영 업	초혼	자영업

2. 심층면접 결과

1) 이주 결정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주와 결혼을 실행한 경우다. 가족이 선뜻 국제결혼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이므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친정 부모님 이 나이 되도록 있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득보다는 나이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생각으로 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았었는데,(몽골, B)

캄보디아 출신인 F씨는 자발적으로 결혼중개업소에 가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다. 친구들과 육촌언니도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없었다. 계속되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F씨는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업체를 하신 분을 알고 있어서 나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얘기하다가 나가게 되가지고. 나 심심하니까 한번 불러줘. 그때 그랬거든요. 장난치다가. 그 분이 한번 불러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캄보디아, F)

1번의 결혼 경험이 있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편의 솔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엄마가 반대했다. “제 결정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한국에 왔다. 연애나 소개, 결혼중개업을 통하든 스스로 결혼과 이주를 결정한 여성들은 가족생활에 만족과 안정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2) 가족관계

□ 남편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힘이다. 베트남에서 온 G씨는 지역사회에 적응할 때, 그리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와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남편에 대한 신뢰가 크다. 그 신뢰가 한국을 좋아하게 만든 큰 힘이다.

제 남편이 제일 도움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 못하고 신랑하나 보고 왔는데 처음엔 남편에게 배우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사주고, 야기 초등학교 책, 기억나는책, 저녁마다 퇴근할 때 한 시간씩 같이 앉아서 공부해요. 2년 정도 가르쳐줬어요.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베트남, G)

베트남 고향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잘 사는 동네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심한 G씨는 한국에 와서 결혼관계가 깨지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됐다. G씨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혼사유가 시어머니의 간섭인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깨달은 G씨는 남편에게 요구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깨져요. 그중에 참는 사람은 괜찮은데 신랑이 보호 안 해주면 살기 힘들어요. 저도 신랑에게 당신 하나만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뭐라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한다. 엄마는 형님도 있고 아주머니 있으니까 나는 혼자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잘해줘야 살지 처음에 말했어요. (남편이)알았다고 했어요.(베트남 G)

□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

인터뷰에 참여한 8명의 결혼이주여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혼과 이주를 진행해서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다. C씨는 8명 가운데 유일한 이혼한 사례다. 19살에 갑작스런 결혼과 이주를 하고 나서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자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다.

2015년에 들어가서 입학하고 2017년에 졸업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봤는데 옛날 C가 그림대요. 그래서 어떤 거 원하냐고 했는데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많이 만나지 말고 만난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만나라고 했어. 그래서 알겠어. 공부도 안할게. 졸업 1년이나 남았는데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알겠다고 했다가 또 2~3일 지나면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필리핀, C)

이혼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화가 내면 때리는 습관이 있던 C씨의 남편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딸 때문이었다.

남편은 화가 나면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본인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빠를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도) 맞았죠. 맞아도 신고(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 아빠인데 기록이 남잖아요. 경찰에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애한테 안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요.(필리핀, C)

□ 시댁 부모와의 동거

결혼이주여성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시부모님과의 동거다. 대다수가 시댁가족과의 동거에 불편함을 표현한다. D씨의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갖고 있던 한국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되게 오기 전에 선생님도 알다시피 동남아에서 한국드라마 완전 좋아하잖아요. 드라마상의 시어머니들보다 착하고 괜찮으셨어요. 현대적이고, 현실적이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안 그러세요. 일찍 일어나서 밥해라 이런 것은 없고, 본인이 하실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일어날 때까지.(베트남, D)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아이가 20개월이 되어 어린이집에 가면서 일을 시작한 G씨는 시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하다. 아이를 돌보거나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시어머니가 이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G씨는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기꺼이 수용한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도와주시고,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같이 사니까 불편한 거 없어요. 받은 거 많아요. 가게도 봐주고 야기도 봐주고, 저는 괜찮아요. 같이 사는 거 좋아. 어디갔다와도 집에 어른이 있으니까 좋아요.(베트남, G)

□ 한국문화의 적응과 강요 사이

결혼이주여성 대다수는 한국에서 한국문화의 적응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지만 강요를 받기도 한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20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경을 넘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고 혹은 되어야 된다는 국가주의적 관점과 가부장문화가 결합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적인 모든 것을 습득하고 있어야한다는 전제아래에서 이들의 내재한 출신국의 문화를 삭제하기를 요구받는다.

남자들은 한 달 안에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안 배웠다 부침개도 안 배웠다. 내가 왜 배워야 해요? 그래도 내 집이니깐. 너 집만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고 싶은. 그래도 내가 한국에 와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꺼 하고 싶으니까. 너도 내 것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우즈베키스탄, A)

베트남 출신인 G씨는 홀로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G씨를 잘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초기 G씨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문화가 힘들었다. 베트남에서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고 먹더라도 나가서 사먹는다. 한국에 와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고역이었다. 베트남 출신인 D씨는 결혼이주여성의 통역을 도와 주면서, 다양한 가족문제를 접하게 된다. 그 대부분은 시부모의 간섭이다.

다문화센터에서 보면 시부모님이 간섭하는 부분이 보면, 다른 친구 얘기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행하고. 아들도 잘해야 하지만 간섭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면 많이 있어요. 남편 돈 관리도 있고, 어디가면 물어보고 허락도

받고 아들이 뭐라고 해도 보고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베트남, E)

실제로 시부모의 간섭은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대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G씨는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파탄이 난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친한 언니 몇 명 있는데 베트남 언니들, 다 이혼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혼내는 것도 심한사람 있어요. 언니가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직장까지 와서 사장 만나서 (자기 며느리에게)월급 주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나 자기(시어머니) 통장에 보내라고, 집에 와서 부부방문을 열고 자라고 방에 들어가고.(베트남, G)

□ 대전의 이미지

결혼이주여성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이 대전에 갖는 이미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대전보다 복잡한 서울을 방문했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대전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만족한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 3년 이상 혼자 살다보면 복잡하고 힘든 것은 있었지만, 대전하고 서울 비하면 대전은 너무 살만하고 좋죠.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 받아 보는 말투 이런 것도 서울사람들보다 많이 편하다고 할까. 느낌이 달랐어요. 느린 것보다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고 바쁘다 보니까, 대전에 왔더니 조금 여유롭다 할까. 여유롭고 누구한테도 관심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서. 저는 남편보다 대전이 더 좋아서 왔어요.(몽골, B)

저는 원래 시골에서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서 진짜 (서울)지하철 타는데 당황했어요. 사람 밀고 들어가니까 참 대전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좋은 게 일자리가 없어요.(베트남, D)

반면에 대전의 도시스러움에 반한 경우도 있다. “교통 좋아요. 버스 지하철도 있고 (베트남, G)”. 이들은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대전의 큰 장점으로 꼽는다.

□ 시댁 부모의 사랑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는 남편의 노력과 함께 남편가족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보다는 시부모의 정서적 이해와 지지, 물질적 지원이었다.

저는 진짜 남편보다 시댁 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지만, 당연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애하고 결혼생활이 다르잖아요. 타국에서 왔다고 우리 시아버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시아주버니 집이거든요. 시댁 덕을 많이 보죠.(몽골, B)

(시부모님과)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저 남편한테 항상 그래요. 너랑 같이 사는 거 어머니 때문에 70%이예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 주니까.(우즈베키스탄, A)

남편의 부모가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70% 이상이 시부모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유지에서 시부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의 갈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잘해줘요. 팔처럼 생각해주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시부모님 역할이 커요.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주는 것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데.(베트남, E)

대전에 이주해 온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가족과의 관계도 안정되고 있다. F씨는 이제 엄마보다 시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잘하세요. 잘해주시고. 반찬해주시고. 요즘은 사고 나가지고 시어머니 못 걸으시거든요. 다리 김스하고 있어서. 제가 반찬 해드려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담될까봐 말씀 안하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말씀 안하세요. 명절 때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용돈 드려야 하는데 용돈을 주세요. 시부모님 잘해주시고. 친엄마보다 시어머니가 편해요. 우리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해요.(캄보디아, F)

□ 본국 가족의 지지와 도움

결혼이주여성이 본국 가족과 맺는 관계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본국가족을 가족재생산의 회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언니 같은 본국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를 돕는다. A씨의 경우, 둘째를 출산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엄마가 와서 10년 동안 함께 살며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도왔다.

둘째 아이 낳을 때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첫째도 방문 2번했었어요. 100일 때 한번 왔고, 돌잔치 때도 한번 왔었어요.(우즈베키스탄, A)

B씨는 본국 가족과 언니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혼자 3명의 아이를 돌보기가 벅했던 시기에 언니가 한국에 왔고, 힘들어하던 B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3개월을 돌봐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산후우울증이 있던 시기로 언니와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한번은 남편이랑 임신 중일 때 갔고, 두 번째 세 명 데리고 갔어요. 큰 언니가 출산을 도와주러 왔다가 애기 세 명을 혼자 데리고 가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식구들이랑 3개월 동안 같이 지냈다가. 저기서도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이 쉬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또 산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언니가 내 옆에 없었고 나도 고향에 가지 않았으면 어림에 세 명이고, 저 혼자였으면 진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오기를 잘했고 제가 고향 갔다 온 것,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무 회복 없이 나는 가야 되는데 큰 언니가 너는 너무 힘들다. 남편도 아침에 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하니까 너는 아무도 없다. 누구도 없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언니덕분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몽골, B)

자신의 꿈과 자녀 양육, 가사일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C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필리핀에서 온 엄마였다. 야간대학을 다니는 딸을 위해 엄마가 와서 1년 동안 아이를 돌봐줬다.

일단은 우리 아이가 야간대 다니고 있을 때 애기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친정 엄마가 1년 동안 와있었어요. 2015년에 와서 2016년에 가셨어요. 2016년에 엄마 갈 때 되었을 때, 우리아이가 필리핀가고 싶다고.(필리핀, C)

그러나 C씨의 자녀는 외할머니와 함께 필리핀에 가고 싶어 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허락했지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C씨가 필리핀의 엄마에게 얼마간의 돈을 부치긴 했지만 대부분은 외할머니가 C씨 아이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보냈어요. 아이가 2016년에 1월에 가서 2018년 5월에 왔어요.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녔어요. 보내기 쉽지 않은데 엄마 필리핀 가고 싶어. 처음에는 안 돼 무슨 소리야 했는데 얘기가 엄마 필리핀 가서 영어 배우고 올게 했어요. 나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야간대 다니고, 주말에도 실습 가야하니깐. 알겠다고. (돈은)보내지도 않아요. 엄마가 알아서. 제 등록금 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알아서 해.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필리핀, C)

3) 정착과정

□ 출신국 공동체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전에 정착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동일한 언어로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 개개인이 경험하는 가족 문제나 적응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국경을 넘어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제의 결은 유사하다. 소소하게는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이혼문제도 있다.

있었던 사람도 살다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혼문제도 있고, 이혼당한문제도 있고.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몽골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자조모임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특히 여자라는 게 외국에서 살다보니까 자국어로 누구랑 얘기하고 관심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한국 적응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한 달에 한번 모여서 하는 것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다 모이진 못하죠. 한번 모이면 많으면 11명 정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엄마들 많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고,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많이 있어요.(몽골, B)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는 반면에 단지 개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임도 있다. 기존의 출신국 공동체가 관주도의 특정 목적을 갖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 소규모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동향출신의

동료들이 '결혼이주' 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남편의 직업이나 학력, 남편과 시댁 가족 구성원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차로 각각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 오히려 말이 통하는 본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만났을 때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페이스북 북에서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 한 달에 한번 가랑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는 목적형 모임을 갖기도 한다.

베트남 모임에 나가요. 대전에서 베트남 여성 우리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폐북에서 만나요. 다 야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만나요. 장소는 때번 바뀌어요. 집이 가까우면 집에서 만나고 최근에는 도마동에서 만났어요. 15명 정도 모였어요. 음식도 만들고 싸우지 않아요.(베트남, G)

남편과 시댁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오히려 본국출신 모임을 꺼리는 경향을 갖기도 한다. G씨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 가운데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없다. 임신했을 때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할거 같”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다문화센터도 끊었다. 이에 대해 남편 H씨는 “애 엄마는 안 만날라고 해요. 배울게 없대요”라며 G씨의 말을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I씨도 G씨와 같은 생각이다. 한국에 와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힘이 들 때는 본국에 있는 언니와 연락을 한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폰과 인터넷으로 인한 상시적인 본국과의 연결 가능성이 강화되면서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전 자주 안 만나요. 만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야기하면 이해 안돼요. 안통해요. 자주 안 만나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여기, 한국에는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없어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정 힘들면 언니에게 전화하든가, 페이스북이나 카톡해요. (베트남, I)

□ 한국인들의 시선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을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하는 I씨는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 가운데 몇몇 손님 때문에 운적이 많다.

제일 무서운 거는 손님, 어떤 분은 이해해주고,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알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름은 모르면서 냉장고 쏘는 거 하나 줘봐. 이게 멀티탭인데 그거 이름은 모르고 설명만 해주면 시간이 걸려요. ~ 여기 장사하면서 모르면 어떡하냐? 하면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고 그래요.(베트남 I)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I씨에게 보이는 차별은 인종과 여성, 국가, 경제 등 다양하다. I씨의 배우자인 J씨는 국가의 경제력에 따른 무시와 인종차별을 확실히 느낀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가운데 I씨를 보면 무조건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시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인이 앉아 의자에 백인여성이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쉽게 반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사람(부인)을 보면 무조건 말을 뉘요. 예의를 지킬 줄은 알아야죠. 유럽 여자가 오면 말을 놓겠냐구요. 그런 것들이 화나게 만들죠. 아가씨인줄 알고 허카시 하려고 하고 친구 있냐고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한국인 배우자 J)

4) 국적과 체류 안정

□ 국적취득과 이중국적

국적 취득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은 양가적이다. 국적을 취득하면 얻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장한 후 혹은 은퇴한 이후의 삶의 현장을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적취득은 뜨거운 감자다.

이중국적제도를 갖고 있는 출신국의 여성의 경우,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 출신 C씨는 필리핀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나중에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다.

(저는)2007년에 와서 2011년에 국적을 뺐어요. 이중국적이요. 우리아이도 이중 국적. 필리핀 말은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필리핀, C)

반면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출신국가의 여성의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 된다.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을 갖기도 한다. 한편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한국국적이 꼭 필요한 가라는 고민도 갖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국적을 안 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중국적을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만이 한국국적을 딸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한국국적을 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살고 있고, 내 자녀들 가족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국적을 있든 없든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몽골, B)

□ 국적취득의 복잡함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최고 높은 등급인 6급 시험에 합격하면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그러나 한국에 오자마자 입신과 출산이 통과되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워 시험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수료증 다 받았어요. 한국어능력시험 4급까지 받았어요. 6급 받으면 바로 국적 딸 수 있는데, (4급은) 귀화시험 바로 있으니까. 조금 공부하면, 국적 신청할 수 있고. 6급은 시험 없이 딸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가면 귀화시험 따로 나오는 것 있어요. 다 60점 넘게 받아야.(우즈베키스탄, A)

오랜 연애 끝에 한국인 J씨와 결혼한 I씨는 다문화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나 통합교육 등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일을 돕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적취득 시험을 볼 때 I씨는 시험의 강도가 면접자인 공무원 개인의 기분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했다.

앞에 두 분이 앉아있는데, 물어보면 너무 무섭고 놀라고~ 시험 무서워요. 한국의 음식 어떻게 만드냐고 김치찌개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봐요. 공무원 사람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거, 책도 있지만, 책에 없는 것도 물어봐요. 진짜 그날, 공무원 사람 기분 안 좋으면 어려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베트남 I)

시험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국적취득을 위한 시험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도 크다. 두 번 시험에 떨어지면 서류는 새로 준비해야한다.

몇 명 갔는데 저랑 두 명만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하루에 몇 십명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 후에 다시 서류 보내고 시험 봐요. 두 번째도 합격 못하면 서류 다시 만들어요. 서류 만드는데 만 30만원 들어요.(베트남 I)

5) 미래기획

□ 성장과 교육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온 이후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한국어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고, 8명 가운데 3명이 야간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출신의 A씨의 경우, 다문화센터가 없어 무료 한국어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2004년에 OO대학교 어학당에서 1년 동안 170만원을 내고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어 급수를 따고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애를 먼저 낳고 나서 공부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포기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는데 그러려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가족이 필요하다.

배우고 싶다고. 내가 한국어능력시험 받으면, 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빨리 애기 낳으면 편하고, 우리가 애기 봐 줄 테니까, 편하게 공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애기 낳고 나서, 애기보고, 둘째도 낳고 시간도 흐르면서 대학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가고 싶는데, 그런데 수업 11시까지라서,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엄마가 오시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우즈베키스탄, A)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꿈을 갖는다.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다. E씨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졸업을 하면 심화과정을 들어가서 4년제 대학 졸업장과 같은 자격증을 받고 싶다.

요즘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이혼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있을까 저는 사실 사회복지과는 끝나고 나서 능력 있으면 시설 운영하고 싶었어요. 다문화 가정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베트남, E)

□ 정착지의 결정

현재의 가족관계, 본인의 정체성과 자녀의 교육, 경제사정을 고려한 미래기획이 명확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미래에 어디에 정착을 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의 G씨와 남편 H씨, I씨와 남편 J씨, 두 커플은 한국에 정착할 것을 결정한 상태다.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애엄마가 한국을 좋아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가 좋은데 저기 갈리가 없죠. 현재는 갈 이유가 없죠. 놀러가는 것은 좋은데 사는 것은 한국이죠.(한국인 배우자 H)

H씨와 배우자인 J씨는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 H씨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 J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완벽한 한국인으로 키울 생각이다.

이 사람(I)도 한국을 워낙 좋아하고 베트남사람이지만 베트남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을 더 좋아해요. 한국에다가 우리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이죠. 제가 없어도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고 ~철저한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한국인 배우자 J)

반면에 현재가 불안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미래에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혼과 함께 심리적, 경제적 안전망이 부재한 C씨는 한국과 필리핀 가운데 어디가 본인과 딸의 미래에 좋은 전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다.

애기(딸) 제가 혼자서 나중에 잘 키울 수 있는지 대학까지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해요.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애기(딸) 결혼하면 여기 있을까 필리핀 들어갈까. 여기는 여자니까 시댁으로 갈까봐. 필리핀에 있는 것보다 아이에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애가 결혼하면 제가 혼자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에요.(필리핀, C)

□ 한국과 출신국 사이

결혼이주여성의 미래기획은 다양하게 기획된다. 한국에서 뿌리 내리는 삶을 기획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한국과 출신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이용해 안락한 노후를 기획하는

이도 있다.

네. 다시 가고 싶어요. 제가 마흔 살 되면 큰 아이가 19살 될 거예요. 제가 군대 보내고 나서 학교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끝나고 돈 벌기 시작하면, 나 요양 병원 보내는 것 보다. 내가 우즈벡에서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즈베키스탄에 갈수도 있고. 여기서 국민연금 받으면, 우즈베키스탄에서 40만원이면 되게 큰돈이에요. 여기서 40만원가 되면 여기서는 60넘어서 여기서 살수 없잖아요? 40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큰돈이에요. 한 달 잘 살 수 있어요.(우즈베키스탄, A)

6) 자녀 교육과 양육

□ 남편과의 갈등

자녀교육에 있어서,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주요한 통로가 된다고 믿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의 교육문화를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이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자녀의 교육에 바라보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다른 가치관은 갈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남성 배우자의 의견으로 교육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식으로 애기를 키우니까, 애기아빠가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우리엄마가 자매만 키우고 나랑 언니랑 밖에 없었으니까. 아들 키우기 되게 힘들었어요. 애기아빠는 애기들한테 계속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억지로 보내니까. 애기들은 눈치보고 조금씩 놀고 싶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학원안가고, 자유시간이죠. 자유시간 많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애기들도 이렇게 살수 있다고 나중에 그러면서 자기들 알아서 인생 찾아서 알아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기아빠가 반대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 안 시키면 애기들 올라가면서 힘들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학교에 못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생각도 틀리니까. (우즈베키스탄, A)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에 열성인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응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려던 B씨는 자녀에게 탈모가 생기면서 스스로의 교육방식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큰애가 6살인데 엄마로서 교육을 시키려고 같이 한글 공부를 시작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제 느낌은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선생님이요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내 방법이 잘 못 된 거구나. 내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탈모까지 생기는 것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식한테 더 가까이 가면서 내가 똑똑한 아이를 바라지 않고 엄마랑 외롭고 속상하지 않고, 엄마랑 친구 될 수 있는 자녀를 원하는 거라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에게 한결음씩 갈수 있는 방법이 뭐있는지.(몽골, B)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도 문제도 많고, 애기들 밥 먹이는 것도 문제도 많고, 애기들 밥 먹는 거, 시간을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애기들은 9시 넘어서 엄마 나 배고파. 나는 해주고 싶은데, 아빠는 문짝도 못 열게 하는 거야. 살찌는 것 아니고 자기들 시간 맞춰서 먹어야 하나까. 애들이 간식 먹고 밤에 치킨도 먹고, 자기들이 습관 되면, 자기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7시 이후에 잘 먹지도 않아요. 그래도 애기들이 습관이 들었으니까, 아침까지 참고 아침에서 일어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A)

□ 한국인 엄마들과의 차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한국인 부모들을 만날 때, 이주 여성은 불편함을 경험한다. 사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거라는 편견을 갖게 될까봐 보내고 싶지 않은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쵸.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 애기들 데리고 살면 완전히 다르게 키울 수 있었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엄마들 모임 나가면 계속 물어보니까. 애기들 어디서 다니고 있어요? 어느 학교? 어느 학원? 우리 애기들 학원안다니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우즈베키스탄, A)

□ 한국이름으로 바꾸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는 결혼이주여성도 있다. D씨는 베트남 국적과 한국국적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이름으로 바꿀까 고민도 했는데, 과정이 복잡해 일단 이름 변경을 안 하기로 했다.

이름 바꿀 생각 있었는데 이름 바꾸면 할 서류도 많고. 왜냐하면 국적 바꾸고 주민등록증 나오고, 나와야지 개명 신청할 수 있어요. 계속 두 번 바뀔까 하고 그냥 쓰고 나중에 개명하게요.(베트남, D)

F씨는 이름을 바꿀 생각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 이름이 아이가 다문화가족임을 알리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놔두다가 놔두다가 했는데 이번 달 초에 신청했어요. 애들 학교 가야 돼서.(캄보디아, F)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는 자신의 이름을 간직하는 이도 있다. 아이를 위해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자녀가 괜찮다고 하자 개명고민을 접었다.

개명해야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살짝 걱정 했는데,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아이들이 괜찮다고 해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게 친구들이 아냐고 하니깐, 아는 친구도 없고 상관없다고 해서.(베트남, D)

□ 자녀의 인정

이중언어에 대한 필요성이 일상화되고 언어가 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결혼이주여성도 자녀와 더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영어만 글로벌 언어로 인정받던 이전과 달리 다양한 언어에 대한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중 언어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일반 다문화처럼 러시아말로 말하면 시끄러운 것 아니고. 엄마가 러시아말도 하고 통역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수도 있고, 애기들도 내가 이제 러시아 말하면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요. 옛날에 애기가 7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내가 러시아말 하면, 엄마 너무 시끄러워 한국말 해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다른 엄마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쑥스럽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 제가 러시아말하면 얘기가 더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우리 엄마가 통역사라서 엄마가 통역하기 때문에 러시아말 해야 한다고. (우즈베키스탄, A)

7) 지역의 다문화정책

□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의 다문화 이해 교육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정책에서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한국에 오는 다른 문화의 배우자에게만 한국문화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말고, 파트너인 한국인도 배우자의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문화정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에 1~2년 살고 나서 얘기태어나면 다 이혼하고 도망하고 다른 자기나라 남자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한국남자들 이민자들 데리고 오기 전에 인식개선 수업 안 받기 때문에, 이민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자기가 모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A)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은 배우자에게만 그쳐서는 안 되는 다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이다. 한국의 가족문화가 배우자와 자녀라는 핵가족 관점을 넘어 배우자의 가족이 연결된 상황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은 각 배우자의 가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가족들 다 집에서 남자가 여성이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면, 다 같이 동영상 같은 거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어요. (우즈베키스탄, A)

다문화가족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언어, 인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전과 비교해 지역민들의 눈빛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거리를 걷다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는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다문화가족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인식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예전에는 시선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다 보니까 시선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왜 내 외국인인지 너 너희 나라 가지 이런 말해요. 대중교통 이용 할 때는 많이 하세요. 어쩔 때는

*너희나라 가난하지? 솔직히 나라가 가난하지 내 집이 가난한건 아닌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모르는 척하고 대답 안 해요.(캄보디아, F)*

□ 이중언어 교육정책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가족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본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다문화교육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중언어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부터 교육에 대해서 쉬으면서 좋은 점만 나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생각하고 이제 다문화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몽골, B)

한국어가 유일한 공용어이자 주류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다.

어제도 어땠어 했는데 3모듬인가 4모듬으로 나뉘대요. 여자 2명, 남자 2명 했는데 남자들은 장난만 쳤대요. 여자 1명은 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속상해. 하고 싶은데. 필리핀어, 영어 안 된다고 해서. 한국어 모르는데 속상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10분이나 20분 늦게 끝났다고 했어요.(필리핀, C)

□ 경제활동 참여와 자기 능력의 확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높은 비율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현재 미취학자녀로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자녀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단시간 근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여성도 많다. 그러나 이걸 경제적 이유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뚝배기를 해낸다는 자기 능력의 확인이기도 하다.

지난 9월 5일 날 대전시에서 취업박람회 있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 이주

여성들 왔을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엄마들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 9시까지 보내고 4시에 끝내면, 10시까지 3시까지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저녁 조금 괜찮다고, 풀타임이 불가능한 엄마들이 많고, 언어문제 자녀문제 양육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하고 싶은 엄마들 많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자기 걸로 채우고 싶은 사람도 많더라고요.(몽골, B)

G씨는 아이가 20개월이 될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문화센터에서 소개해 준 세탁 관련 일을 하다가, 식당에서, 지금은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5개월째 일을 하고 있다. G씨는 일을 하면서 가족의 보험도 들고, 아들 태권도 학원비를 내고 있다. 돈을 모아서 전셋집에서 벗어나 아파트도 살 계획이다.

저는 보험하고 아들 태권도 학원 보내요. 한 달 50만원이 기본이에요. 남는 거는 다 저금해요. 아들 대학 내고 가르쳐야해요. 계속 돈 모으고 싶어요. 공부는 하려하는데 지금은 돈부터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거 하나씩. 우선 모아서 한국에 집을 더 좋은데 이사가고 싶어요. 여기는 전세잖아요. 사고 싶어요.(베트남 G)

일을 하고 저축을 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등 지역사회에서 미래 기회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능력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D씨는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관련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넓히고 싶어한다. 그러나 전문 통역일을 위해 여러 곳에 지원을 해봤지만 성과가 없다. D씨는 대학졸업증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민 있어요. 한국에 잘 정착하고, 되게 생활을 잘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넓지 않아서, 저는 통역에 관한 업무 제가 하고 싶어 해요. 분야 좀 넓혀졌으면 하는데, 제가 이력서 내봤는데도 안 되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졸업증이 없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베트남, D)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능력과 상관없이 '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여성이자 외국인, 자녀를 둔 엄마로써 결혼 이주여성에게 가장 흔한 일자리는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일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은 공장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고용센터 가서 직업교육훈련 지원해주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그거 배우고 나면 일자리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한테 일 좀 찾아달라고 해도 여기저기 다 보고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고 외국인은 안 뽑는 데도 많고 식당이 많아요. 식당일은 엄마들한테 힘들잖아요?(베트남, D)

낭만적 사랑과 새로운 삶을 기획하며 국제결혼을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일자리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결혼과 일자리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대부분도 아이가 유치원에 나가기 시작하면 일자리를 찾는다. 한국의 언어나 노동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자리를 찾는 방법과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사실은 대전지역에서 결혼이민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온지 5년 이상은 거의 일하러 다녀요. 그런데 거의 어디 가나면 식당 아니면 공장가요. 대전지역에서 시민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취업 관련 더 알아 봐주고.(베트남, E)

□ 일과 자녀양육의 균형

B씨의 한달 급여는 150만원이다. 이 가운데 월세로 매달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남편에게 딸 양육비로 매달 20만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렵다.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하나 막막하다. 투잡을 하고 싶은데, 퇴근 후에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더 맘이 놓이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리핀에서 졸업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이버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야간대학교 공부도 했지만 번듯한 직장을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고 있어요. 여기만 말고 다른데 갈 수 있을까. 다른데 취업할 수 있을까. 저 여기 2010년부터 했어요. 갈 때가 되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 많은 것 같아요. 대학 졸업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졸업해도 딱히 갈만한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죠. 여기 아니면 어디 갈 데 있을까.

조금 더 괜찮은 월급으로 찾아가야하는데 알바 한다고 해도 애기 있어서 안 되고
(필리핀, C)

□ 아이돌봄서비스

B씨는 경제활동의 참여가 실제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산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자 적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짧은 시간이라도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다.

여성 새일 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해주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만 가능하다는 것 있거든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들 있으면 정식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때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몽골, B)

□ 예비학교의 증대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딸의 의견을 듣고, C씨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딸이 2년 동안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다. 문제는 이처럼 중도입국을 하거나 엄마 나라에서 머물다 오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이중언어라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한국어가 다소 늦는 경향이 있다. C씨는 필리핀에서 돌아온 딸이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잘 구사하는 반면에 한국어를 어눌하게 구사해 깜짝 놀랐다.

문제는 한국어를 까먹었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는 게 학교에서 언어가 부족하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냥 일반학교로 보냈거든요. 다른 데처럼 다문화 정책학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도입국 자녀나 잠깐 우리아이처럼 엄마고향에 있다가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필리핀, C)

□ 사별에 대한 두려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이주여성은 사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도 적게는 14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남편과 연령차를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통역을 하면서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 D씨도 걱정이다.

제 남편도 나이차이 많이 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갑자기 저도 갈 수도 있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만약에 한명이 가면 한명 남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까?(베트남, D)

□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이혼한 C씨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꿈이다. 그래야 딸의 교육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일자리도 어렵고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급여로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부모여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12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주거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주민센터의 대답은 답답하다. 오히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한부모 지원도 받는다면 더 빨리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저도 더 공부하고 싶은데, 능력 더 키워서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월세 30만원. 핸드폰비, 가스비, 전기세, 식비. 한부모 신청했는데 저는 120만원 이상 이면 안 된다고. (주거지원)제가 3번인가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데 신청할 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일하지 말고, 주거 지원받고 그래야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면서 일 안하고 주민 센터에서 한부모 수당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부모 안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일하는 데로 맞춤형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필리핀, C)

현재의 지원제도는 오히려 일을 하는 대신에 한부모 수당을 받고, 계속해서 지원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C씨는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부를 원하는 한부모여성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거나, 자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한부모에게는 돌봄을 연결해주어 자립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수혜의 대상으로 이미지화 된 다문화가족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일 수 있다.

□ 본국 가족의 도움에 대한 지원 방법

자녀 출산과 양육에 친정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은 다문화가족은 이에 대한 다양한 보상 방법을 간구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친정 부모를 초청해서 일정기간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청으로 입국한 이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편상

도움을 받은 가족에게 물질적 보답을 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장기비자가 3개월 비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면 초등학교에 간 아이에 대한 돌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 수 있도록 자녀를 돌봐줄 본국가족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엄마 와서 오래 안 있어도 비자를 오랫동안 발급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자격이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기도 보험이 돼서 부담이 덜하잖아요. 3개월 비자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 할 수 없고, 아플 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좀 엄마한번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시는 동안, 그 의료보험 되었어요. 그래서 좋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면 부모님 초청해도, 단기비자 3개월밖에 안돼요.(베트남, D)

자녀를 돌봐주시는 친정부모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었던 저렴한 건강검진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본국 가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단기라도 일할 수 있다면, 본국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이다.

□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한국인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최근 사별을 경험하는 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별을 할 경우 결혼이주 여성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하고 나이차이 많이 나서, 요즘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예요. 왜냐하면 결혼이주여성 친구들이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사별해가지고, 어려운 상황 닥치는 거예요. 한국어도 모르고, 국적도 안 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는 다문화센터가 없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D)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의 다문화센터이다. 지역의 다문화센터는 사회네트워크가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실질적 네트워크이다.

2절. 전문가 의견

1.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대전의 결혼이민자는 2012년 4,757명에서 2017년 현재 5,729명으로 5년 사이에 972명이 증가하였다. 최근 3년의 결혼이민자 증가추이를 보면 매년 100여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서구>동구>대덕구>유성구>중구 순이다. 특이한 점은 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줄고 유성구와 대덕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기타 국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으며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을 제외하면 중국과 베트남 출신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결혼이민자수는 줄어들고 베트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적 변화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혼하는 이들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학력

러시아와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이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경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되나, 현장에서 만나는 다문화가족 대상 사례관리가정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동구, 중구지역의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고, 서구와 유성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종교

대전지역의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카톨릭계가 많고, 그 이외의 출신국 결혼이민자는 두드러진 종교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일교를 통하여 이주하여 온 경우가 대다수다.

□ 문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생활 적응에 뛰어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도도 높은 편이다.

- 중국 :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활동적이며 자존심이 강하다
- 베트남 :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모계 사회의 문화를 갖고 있어, 남녀 평등에 대한 감각이 높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 필리핀 : 법적으로 이혼이 존재하지 않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며, 생활력이 강하다.
- 일본 :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강하고, 검소한 성격을 갖고 있다.
- 캄보디아: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예절이 바르다. 밝고 온화하며, 친절하며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음식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한국의 식생활에 적응이 빠르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학력은 낮으나 머리가 영리하고 총명해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편이다.
- 러시아: 러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2.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한국인 남성의 특성

□ 연령차

대전지역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연령은 결혼이민여성보다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0세 가량 연령차가 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간의 나이차는 줄어들고 있다.

□ 배우자 문화 수용

최근 한국인 배우자 남성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 학력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학력은 평균 고졸로 보여진다.

□ 직업과 수입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직업은 다양하나 경제적인 수입이 낮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

3. 2015년 이후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변화

□ 다문화가족의 규모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국제결혼 감소에 따른 신규 결혼이민자 유입의 감소로 전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집단에서 중·장기 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던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도 감소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다양화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외국 출신 여성으로 결합한 '다문화가족'의 유형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귀화자와 출생 내국인 가족, 출생내국인과 다문화가족 자녀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았던 한국인 남성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연령이 낮은 결혼이민여성의 1인 가구 혹은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결혼이민여성 혹은 한국인 배우자 1인 가구나, 자녀와 함께 하는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족은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인 배우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하며, 영유아 비중은 낮아지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에는 여전히 미취학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부모의 출신국가에 잠시 머무르고 오거나 중도에 입국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욕구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 초기에 강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4.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초기정착지원(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적응교육)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정착 이후 나이차가 큰 배우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자립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교육

대전에도 결혼이주여성보다 한국인 배우자의 인구가 더 많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있지만, 한부모이자 다문화라는 특수한 배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배우자 모임이나 아버지 모임을 통한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배우자 외에 시부모 및 형제자매 등 확대가족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 대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학교지원

다문화가족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의 경우 한국어 교육 및 학교 적응

등 문제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도입국자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중도입국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정체성 혼란과 언어 및 문화 적응 등이 있다. 현재 학교 입학 및 진학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으나, 중도입국자녀의 소통할 언어가 가능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지도나 학교생활 안내에 학교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

□ 다문화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실태 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다. 전국조사에서 대전지역의 다문화비율이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준비 및 실행되어야 한다.

DSI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5장

5장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분석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의 절반은 이루지 못했다. 우선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이라는 연구목적 자체가 무모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이 이뤄졌어야 했다.

연구자는 가장 최근에 발표(2017년 11월)된, 조사인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의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심층면접과 대전지역 다문화센터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통해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결혼이주여성

□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규모와 분포

- 2016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5,160명으로 결혼이주남성(739명)보다 약 7배 많다.
- 대전지역 5개구의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24.5%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구 20.3%, 대덕구 19.5% 유성구 17.9% 중구 17.8% 순이다.
-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결혼이주민 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삼성동 110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151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106명, 유성구는 구즉동으로 184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129명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역의 동별 결혼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들은 극단적으로 밀집하지 않고, 동별로 골고루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현황

- 2016년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30대가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31.3%, 40대 18.2%, 50대 9.2%, 60대 2.1%, 19세 이하 1.7%, 70세 이상 0.3% 순으로 30대 이하 결혼이주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과 비교하면 대전 결혼이주여성은 20대 7.5%p와 30대 3.8%p차로 비율이 높다.

- 기초자치구의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구별로 40대 이하 젊은 결혼이주여성이 65%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20년 간 급속하게 늘어난 국제결혼의 영향이 40대 이하 여성의 분포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현황

- 대전지역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32.2%이며, 다음으로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이다.
- 지난 10년간 대전지역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이 2007년 16.7%에서 2016년 32.2%로 크게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 기초자치구별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는 중국이 24.8%로 가장 비율이 높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베트남이 가장 비율이 높다(동구 36.4%, 중구 33.4%, 서구 31.2%, 대덕구 36.4%).

2. 다문화가족 자녀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와 분포

- 2016년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이하)는 4,594명이다. 국내출생 자녀는 4,431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63명으로 국내출생 자녀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24명이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6년 4,594명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2011년 이후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1,1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906명, 대덕구 885명, 유성구 865명, 중구 805명 순이다.
- 대전광역시 동별 다문화 가족 자녀수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으로 89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148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95명, 유성구는 구죽동으로 125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125명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61.0%(2,801명)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령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대전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가 기초자치구별로 모두 60% 내외를 차지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

- 2016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이 2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1.4%), 필리핀(13.6%) 순이다.
- 지난 10년간 대전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가 2007년 10.1%에서 2016년 29.8%로 매우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 2016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특징적인 것은 5개 기초자치구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3. 다문화가족

- 2016년 대전지역 다문화가구는 6,116가구로 구성원은 총 20,405명이다. 한국인 배우자 6,988명, 결혼이주민 5,729명, 자녀 4,557명 등이다.
- 대전의 다문화가구수는 17개시도 가운데 14번째이고, 다문화가구원수도 14번째이다.
- 대전의 다문화가구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가 3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 28.1%, 자녀 22.3%, 기타동거인 15.3%이다.
-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대전의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수가 큰 폭(62.4%)으로 증가하였다.
- 2016년 현재 대전지역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다문화 가구 및 다문화가구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이다.

-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기초자치구의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9년 500 ~ 1,000가구 내외였던 기초자치구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6년 현재 1,100 ~ 1,600가구 내외로 증가했다.
- 대전광역시 동별 다문화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가구원 인구를 가진 동을 살펴보면 동구는 가양2동으로 406명, 중구는 산성동으로 564명, 서구는 도마1동으로 390명, 유성구는 구즉동으로 626명, 대덕구는 덕암동으로 491명이다.

4. 지역 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것

□ 남편과 시부모의 지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

-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부모의 지지와 도움이 남편과 시댁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바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부부 중심의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며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있다.
- 다른 하나는 시부모까지 가족으로 포함하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이들은 시부모의 이해와지지, 물질적 도움을 바탕으로 확장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지역에 대한 정착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빨랐다.

□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의 다문화 이해 교육

-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정책에서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한국에 오는 다른 문화의 배우자에게만 한국문화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말고, 파트너인 한국인도 배우자의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출신국 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 한국에 이주한 후,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친정부모나 자매의 도움을 받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이 안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특히 친정부모들이 젊은 경우에 한국에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친정부모와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빨리 안정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적 취득과정의 복잡함

- 한국에서 정착하기 원하는 결혼이주민은 국적취득과정의 복잡함, 시험의 어려움, 비용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시험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어렵고, 애국가를 불러야하는 고역도 겪고 있다.

□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확대

-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가족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본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중언어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 경제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높은 비율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현재 미취학자녀로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자녀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단시간 근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여성도 많다. 그러나 이견 경제적 이유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자기 능력의 확인이기도 하다.

□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 능력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능력과 상관없이 '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여성이자 외국인, 자녀를 둔 엄마로써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흔한 일자리는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일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공장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연계된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

□ 일과 자녀양육의 균형

-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돌봐야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다. 저임금 일자리의 한달 급여가 150만원일 경우, 월세와 기타 생활비(수도세, 가스비, 핸드폰 비, 전기세, 자녀 학원비 등)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자녀가 어린 경우 투잡을 갖기도 어렵다. 특히 출신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번듯한 직장을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 아이돌봄서비스

- 경제활동의 참여가 실제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산되어야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자 적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짧은 시간이라도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다.

□ 예비학교의 증대

- 최근에 중도입국 혹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경제적, 혹은 교육적 이유로 출신국에 보냈다가 다시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을 하거나 엄마 나라에서 머물다 오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예비학교의 증대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다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 한국인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최근 사별을 경험하는 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별을 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의 다문화센터이다. 지역의 다문화센터는 사회 네트워크가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실질적 네트워크이다.

□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자, 실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과 감소하는 지역인구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07~2016년도 인구동향조사〉
- 김원섭(2008), 여성결혼이민자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36권, 112-135:125
- 김현미 외(2016), 정착주기별 다문화가족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류유선(2016),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리사 두건(2017), 〈평등의 몰락〉, 현실문화.
- 이면우(2015),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다문화 사회연구〉 제8권 제1호, 103-144.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권, 209-236.
- 행정안전부, 〈2007~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Cristina Szanton Blanc, Linda Basch, and Nian Click Schiller(1995), *Southern Asian Institute, International Affair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Transnationalism, Nation-State, and Culture*, Vol. 36. No.4:683-686.
- Goldring, Luin, Berinstein, Carolina, and Bernhard, Judith(2007), *Institutionalizing precarious immigration status in canada*, CERIS Working Paper No. 61.
- Portes, Alejandro(1999), *Conclusion: Towards new world-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463-477.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